

ISSN 2713-9638

經 學

5

2023. 6.

韓國經學學會

經學 5

2023. 6.

〈연구논문〉

- 경학 연구자의 관점에서 본
AI 프로그램 활용의 현재와 과제 이강재 / 1
- 17세기 조선 경학의 내면으로의 관심 전환
— 창계 임영(1649~1696)의 경우 함영대 / 35
- 乃菴 崔左海의 『孟子竊意』 研究 이동학 / 59
- 『詩經』·「螽斯」의 활용양상에 대해서
— 史料와 문집을 중심으로 이상봉 / 81
- 『논어필해』 역주 (1) 김주옥 / 107

〈서평〉

- 서평: 헤르메스를 위한 변명
— 『朱子大傳』과 『陽明大傳』 번역에 부쳐 김태완 / 147

〈부록〉

- 한국경학학회 회칙 / 189
- 한국경학학회 논문 투고 규정 / 193
- 한국경학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 200
- 한국경학학회 연구윤리 규정 / 205

經學 論文 審査書	/ 215
한국경학학회 임원	/ 216
회원가입안내	/ 217
원고 모집 안내	/ 218

경학 연구자의 관점에서 본 AI 프로그램 활용의 현재와 과제 *

이강재 **

-
1. 들어가면서
 2. AI와의 전면적 대면 시작
 3. 고전 한문의 번역에서 만난 AI 번역기
 - 1) 번역 및 분석 방법
 - 2) AI 번역기의 번역문 사례
 4. 멀티모달 AI의 등장과 활용
 5. ChatGPT와 논한 경학 연구의 방향
 - 1) 경학 연구자로서의 ChatGPT와 대화 사례
 - 2) ChatGPT와 대화에서 주의할 점
 6. 강의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7. 마치면서: AI와의 동행에서 주의할 점과 과제
-

■ 국문요약

본고는 ChatGPT의 공개 후 본격화된 AI 시대를 경학 연구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의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주의할 점과 과제를 논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에 먼저 고전 한문의 번역에서 만난 AI 번역기의 활용

* 이 글은 2023년 4월 15일 한국경학학회 2023년 춘계학술대회에서 기조 강연으로 했던 「경학 연구자의 AI와의 동행기」를 수정 보완하여 작성한 것이다. 또한 이 중 일부가 2023년 5월 1일 발행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의 뉴스레터 『아시아브리프』에 「인공지능과 문헌학 연구」의 내용으로 들어갔음을 밝힌다.

**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 E-mail: likangqi@snu.ac.kr

사례를 설명하고, 멀티모달 AI의 등장과 활용, ChatGPT와 논한 경학 연구의 방향을 기술하였다. 또한 강의 현장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단상을 경험에 근거하여 설명하였다.

아울러 본고는 AI와의 동행은 피할 수 없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고 또 경학 전공자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음을 다음 다섯 가지로 밝히고 있다. 첫째, ChatGPT를 우리의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로서 활용하려면 우리가 ChatGPT보다 똑똑하고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 현장에서 ChatGPT 등 AI 사용을 금지하기보다 교육 방법을 혁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자신의 전공 영역의 학습과 연구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고전 연구자의 역할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과 참여가 필요하다. 다섯째, 향후 다가올 정보와 언어의 비대칭을 고려한 노력이 필요하다.

주제어: 인공지능, ChatGPT, 멀티모달, AI 번역기, 경학, 교육

1. 들어가면서

2022년 11월말 OPEN AI사의 ChatGPT3.5가 공개된 이후 우리는 모두 놀라움과 두려움을 느꼈다. ChatGPT의 등장은 2016년 구글 딥마인드(Google DeepMind)가 만든 인공지능 바둑프로그램 알파고(AlphaGo)가 이세돌 9단을 이겼을 때 느꼈던 충격과는 또 다른 충격이다. 알파고는 바둑에 국한된 것이어서 우리 연구자와는 좀 떨어진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이번에는 직접 교육과 연구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인공지능의 발달이 이렇게 빨리 진행된 것과 향후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놀라움과 두려움이 교차 되었다. 이는 현대문명의 역사에서 ChatGPT의 등장 전과 후가 나누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될 정도였다.

ChatGPT에 앞서 2022년 9월 미국 콜로라도 주립박람회에서 디지털 ART 부분 우승작으로 선정된 작품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 Midjourney라는 AI 프로그램으로 만든 것임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었다. Midjourney는 2022년 3월 처음 공개된 그림을 그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작품을 창작품으로 인정할지 논란과 함께 향후 창작의 영역까지 AI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격은 상당했다. 또 DALL-E2라는 AI 역시 그림을 그려주는 데에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면서, 인간의 사유와 창조 영역까지 이미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실 이보다 앞서 기계번역은 이미 많은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고 이에 대한 논의도 상당히 진척되었다. 따라서 현재 드러나는 AI의 모습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22년 12월 이후 AI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두려움과 걱정을 피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를 어떻게 잘 활용하여 우리에게 유용하게 만들지에 대한 논의도 많아지고 있다. 지난 3월 시작된 개학을 앞둔 시점에서는 대학의 교사들은 학생들 보고서 작성의 원칙이나 강의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등에 대한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ChatGPT는 장점도 있지만 잘못 사용했을 경우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게 만든다. 나는 AI의 등장을 두려워하거나 걱정만 할 것은 아니며 인간을 도와주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하자는 생각이다.¹⁾ 즉, 인간과 AI의 본격적인 동행의 시대가 왔다는 것이다. 세상의 흐름은 AI의 등장과 사용을 인정해야 하며 우리가 이를 경계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왕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AI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이와 동행하여 미래 지향적인 우리의 학술연구와 교육에 유용한 도구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1) 이강재(2023), 「고등교육과 AI의 동행, 이제 시작이다」 참조.

이 글은 경학 연구자, 혹은 고전 문헌과 언어 연구자로서의 인공지능 시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찾아가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이는 최근 ChatGPT를 비롯한 다양한 생성형 AI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AI의 활용을 전제로 할 때, 우리 분야의 연구자가 어떻게 교육과 연구를 해나갈지, 그리고 AI와의 동행 과정에서 주의할 점과 향후의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논하려는 것이다.

2. AI와의 전면적 대면 시작

ChatGPT가 일반인의 관심을 끈 이후 관련 업계에서는 구글의 'Bard', 아마존의 Bedrock, 중국 바이두의 '文心一言'이나 알리바바의 '通義千問'을 포함하여 각종 AI 관련 프로그램이 경쟁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생성형 AI에 대한 설명이나 동영상도 계속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각종 AI 관련 프로그램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ChatGPT를 비롯한 생성형 AI에 대해 정말 많은 글이 쏟아지고 있고 관련 동영상도 하루에도 몇 개씩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간단한 개론적인 설명부터 복잡한 사용법, 미래 사회의 변화 가능성, 한계와 문제점 등 다양한 논의가 나왔다. 대학에서 권장하는 곳과 금지하는 곳, 그리고 활용에 있어서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곳 등에 대한 소식도 들려온다. 그런가 하면 지금의 속도로 AI가 발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로 일정 기간 지금보다 더 발전된 AI의 개발을 중지하자는 제안도 나왔다.²⁾ 물론 이미 생겨난 문제 때문에 사용이 중지되는 곳들이 생겨나기는 하지만³⁾, 그렇다고 개발 자체를 중지하자는 제안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거나 다른

2) 신현보(2023), 「6개월만 AI 개발 멈추자...머스크 등 IT거물 1000명 서명」.

3) 정원식(2023), 「챗GPT 차단' 이탈리아가 불 땀긴 'AI 디스토피아' 논쟁」.

경쟁 업체의 견제와 관련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의 신기술 개발 경쟁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내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은 ChatGPT, DeepL 번역기, 구글 번역기, 중국 Baidu 번역기, 네이버 파파고 번역기, 古詩文斷句, DALL-E2, Midjourney, Bing의 이미지 생성기 등이다. 여기에 더해 영상 자동 제작이나 음악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도 초보적으로 사용해 보았고, 몇 가지 프로그램을 계속 알아가는 중이다. 이상 프로그램의 사용은 순수하게 비전문가로서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이며, 아직 정확한 사용법을 잘 안다고 말하기 어렵다. 또 최근 여러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되면서 유료로 전환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 유료 버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나는 AI에 대한 비전문가로서 그간 사용한 AI의 세부적인 특징을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하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이들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고 향후 우리의 연구와 교육에 있어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지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3. 고전 한문의 번역에서 만난 AI 번역기

AI와 관련한 나의 관심사는 향후 우리의 연구와 교육에서 어떻게 활용한 것인가이다. 특히 고전 한문의 우리말 번역에 이용 가능한지에 대해 가장 크게 관심이 있다. 이미 중국에서 개발된 광학식 문자판독기(OCR, Optical Character Reader)나 자료화된 텍스트의 처리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상당한 수준까지 개발된 상태이다.⁴⁾ 그렇다면 원전

4) 중국과 타이완에서의 경학 연구에서 디지털 프로그램이 어떻게 개발되었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는 허철(2023)의 『중국의 디지털 경학 연구의 방향과 시사』를 참고할 것. 또한 고전한문의 기계번역에 대한 이전의 성과는 배은한 외(2022)의 『한문고전 기계번역의 이해』를 참고할 것.

의 텍스트화 이후 가장 필요한 것은 원전의 우리말 번역이다.

현재 고전한문의 번역을 시도해볼 수 있는 AI 프로그램은 ChatGPT, DeepL, Baidu 번역기, 구글 번역기, 파파고 번역기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인공지능망의 Deep Learning을 이용한 것인데, 기존의 Baidu 번역기, 구글 번역기, 파파고 번역기에 더해 최근 새로운 번역기 DeepL이 등장하였다. 채팅 기반의 생성형 AI인 ChatGPT 역시 번역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이전의 기계번역은 흔히 “인공지능망 기계번역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는 “컴퓨터가 원문을 문장 단위로 읽어 들인 다음 심층 학습으로 획득된 매개변수를 활용하여 문장에 대응되는 최적의 번역문을 통채로 생성해 내는 과정”⁵⁾이라고 한다. 최근의 생성형 AI는 과거보다 컴퓨터의 저장용량과 속도 등이 개선되면서 초거대언어모델 LLM (Large Language Model)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져서 이전보다 훨씬 성능이 뛰어나다. GPT3.5의 경우 이미 1,750억 개의 문장을 학습했다고 하니 엄청난 데이터에 근거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AI 번역기와 관련하여 나의 주된 관심사는 고전 한문이 우리말로 어느 정도 정확하게 번역되는지에 대한 것이다. 영어 등의 외국어는 기존의 번역기에서도 상당한 정확성을 갖고 있었고, 현대중국어의 우리말 번역 역시 이미 상당 수준까지 발전하였다. 그렇지만 경학자, 문헌학자의 관심 영역에 있는 언어는 고전 한문인데, 이에 대한 우리말 번역의 정확도가 높아진다면 학문의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나는 고전 한문의 번역에서 최근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정확도를 알아보고자 『맹자(孟子), 양혜왕상(梁惠王上)』의 첫 구절을 대상으로 실

5) 강병규, 이지은(2018), 「신경망 기계번역의 작동 원리와 번역의 정확률 - 중한 번역을 사례로」, 255쪽.

험해보았다. 이 구절을 선택한 것은 우리에게 익숙하여 번역의 정확성, 번역의 품질을 실험하기에 쉽기 때문이다.

1) 번역 및 분석 방법

우선 원문의 날 것 그대로의 白文을 ‘古詩文斷句’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표점본을 만든다. AI 번역 프로그램 중 Baidu에만 ‘중국어(문언문)’을 별도의 언어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는 고전 한문보다는 현대중국어 문언문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AI 번역기에서 고전 한문을 중국어의 하나로 인식할 것이기에 현대중국의 표준적인 표점에 근거하여 번역할 문장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표점 처리한 원문을 번역 AI 4종과 챗봇 1종을 통해 번역문을 확보한다. DeepL의 경우 문장 단위로 번역을 요구할 경우 대안을 제시해주는 경우가 있다. 이는 그동안 인공지능망 번역에서 부족한 점으로 지적되었던 오류를 수정하는 기능이 있다는 점에서 과거보다 발전된 방식이다. 다만 이번 분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문장을 함께 넣어서 번역한 결과를 사용하였다.

다음으로는 마침표 기준으로 문장을 나누어 각 AI가 어떻게 번역하였는지를 비교해보고, 올바른 번역이 나오지 않은 것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인지를 분석해 보았다. 다만, 비록 문장부호에 의해 문장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논리적으로 연결된 문장의 경우, 한 문장으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맹자원문 → 한국어”, “맹자원문 → 영어 → 한국어”, “맹자원문 → 현대중국어 → 영어 → 한국어” 번역의 방법을 썼을 때를 비교해보았는데, 아직 큰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의 논

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단 AI의 언어처리 방식의 특징은 논외로 하고 번역 결과물이 언어적, 의미적으로 어떻게 나왔는지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번역문에 보이는 존칭 여부는 논외로 하였고, 띄어쓰기 등의 단순한 문제는 내가 수정하여 분석하였다.⁶⁾

2) AI 번역기의 번역문 사례

(1) 백문 원문

孟子見梁惠王王曰叟不遠千里而來亦將有以利吾國乎孟子對曰王何必曰利亦有仁義而已矣王曰何以利吾國大夫曰何以利吾家士庶人曰何以利吾身上下交征利而國危矣萬乘之國弑其君者必千乘之家千乘之國弑其君者必百乘之家萬取千焉千取百焉不爲不多矣苟爲後義而先利不奪不鑿未有仁而遺其親者也未有義而後其君者也王亦曰仁義而已矣何必曰利

(2) 표점 프로그램 사용의 결과

孟子見梁惠王。王曰：叟不遠千里而來，亦將有以利吾國乎？孟子對曰：王何必曰利？亦有仁義而已矣。王曰何以利吾國？大夫曰何以利吾家？士庶人曰何以利吾身？上下交征利，而國危矣。萬乘之國，弑其君者，必千乘之家；千乘之國，弑其君者，必百乘之家。萬取千焉，千取百焉，不爲不多矣。苟爲後義而先利，不奪不鑿。未有仁而遺其親者也，未有義而後其君者也。王亦曰仁義而已矣，何必曰利？

6) AI 번역기로 작업한 일자는 2023년 2월 25일 및 3월 18일임.

(3) 번역문 비교

원문1: 孟子見梁惠王。

(구)7) 맹자는 양혜왕을 보았다.

(딤) 맹자는 양나라 혜왕을 만났다.

(바) 맹자가 양혜왕을 만나다.

(켓) 한 번 ‘孟子’는 ‘梁惠王’을 만났습니다.

(파) 맹자가 양혜왕을 뵈웁니다.

→ 위의 번역문에 대한 간략한 분석: ① (딤)에서 ‘양혜왕’을 ‘양나라 혜왕’이라 번역한 것은 ‘양’을 분명하게 나라로 인식했다는 장점이 있다. ② (켓)에 ‘한 번’이라는 말이 추가되었는데, ‘~한 적이 있었다’라는 뜻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다. ③ ‘맹자’ 뒤에 ‘는’을 쓰지 ‘가’를 쓰지에 따라 뉘앙스가 달라진다. 이는 국어학에서 화제와 초점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여기에서 상세한 논의는 생략한다. ④ ‘뵈’을 만나다와 보았다, 뵈었다로 번역하였는데, 군주에 대한 존중을 나타낸다면 뵈었다가 가장 적절할 것이다. 다만 맹자를 존중하는 입장에서는 ‘뵈었다’라는 번역어를 꼭 쓸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원문2: 王曰：叟不遠千里而來，亦將有以利吾國乎？

(구) 왕은 “노인이 수천 마일을 여행했는데 그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까요?”라고 말했습니다.

(딤) 왕은 맹자에게 “맹자가 천리 밖에서 와서 우리나라를 이롭게 하겠습니까?”라고 물었다.

(바) 왕 왈: 노인이 천 리 밖에 안 와서 우리나라를 이롭게 할 수 있겠는가?

7) 여기에서 사용된 약칭은 다음과 같다. (구) 구글 번역기, (딤) DeepL 프로그램, (바) Baidu 번역기, (켓) ChatGPT 프로그램, (파) 네이버 파파고 번역기.

(켓) 왕이 말합니다. “아저씨가 천 리를 먼 길을 와서 이 나라에 이익을 줄 수 있겠나요?”

(과) 왕이 말하기를, “수! 불원천리에서 온들 우리나라를 이롭게 할 수 있겠는가?”

→ 위의 번역문에 대한 간략한 분석: ① ‘왕’ 뒤에 ‘은/이’의 차이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이는 원어민인 우리나라 사람도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AI에서 정확하게 쓰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② ‘노인’, ‘맹자’, ‘아저씨’, ‘수’ 등으로 번역어가 나누어지는데, ‘수’라고 원문의 말을 그대로 쓴 것은 부적절하지만 그 외에는 큰 문제가 없을 듯하다. ③ ‘불원천리’를 천리를 멀다고 여기지 않다라는 문장 그대로의 뜻이 아닌 (답)‘천 리 밖에서 오다’, 혹은 (켓)‘천 리 먼 길을 오다’ 등의 해석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과) ‘불원천리’를 그대로 쓴 것은 부적절하다. ④ (바)에서 ‘왕 왈’이라고 쓴 것은 ‘曰’의 번역을 하지 않는 것으로 부적절하다. ⑤ (과)에서 ‘온들’의 번역어는 왜 들어간 것이지 알 수 없다. ⑥ ‘亦將...’의 해석은 대체로 무난하다.

원문3: 孟子對曰：王何必曰利？亦有仁義而已矣。

(구) 맹자가 그에게 말했다: 왕은 왜 이익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까? 인(仁)과 의(義)도 있다.

(답) 맹자가 말하기를 “왕이 왜 이익이라는 말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자비와 의로움 일뿐입니다.”

(바) 맹자(孟子)가 왕에게 이르기를 왕이 구태여 리라고 할 필요가 있는가? 또한 인의가 있을 뿐이다.

(켓) 그러자 ‘孟子’가 대답했습니다. “왕님, 꼭 이익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仁)과 의(義)가 있으면 되지요.”

(과) 자가 대왈, “왕! 하필이면 이익이라 할 필요가 있는가? 인의도

있을 뿐이다.”

→ 위의 번역문에 대한 간략한 분석: ① ‘對’를 ‘대답하다’라고 번역어를 쓴 것은 (켓)(파)에만 보인다. (파)에서 맹자를 ‘자’라고만 한 것은 어색하다. ② ‘何必’의 ‘必’ 때문에 ‘~해야’라고 번역한 것이 보인다. (바)에서 ‘구태여’라는 번역은 가능할 듯하다. ‘而已矣’는 (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뿐이다’라는 의미를 살리고 있다. ③ 仁과 義를 (딤)에서는 ‘자비’와 ‘의로움’으로 번역한 것이 두드러진다. 구체적인 의미를 찾아갔다고 할 수 있다. ④ (켓)에서 “꼭 이익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과 의가 있으면 되지요.”라고 한 번역어도 무난하다고 할 것이다. ⑤ (파)에서 ‘자가’ ‘대왕’, ‘왕!’ ‘하필이면’ 등 한자를 그대로 쓰는 것은 적절한 번역이 아니다. ⑥ (켓)에서 ‘그러자’라는 말을 맨 앞에 넣은 것은 전체적인 문맥을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

원문4: 王曰何以利吾國? 大夫曰何以利吾家? 士庶人曰何以利吾身? 上下交征利, 而國危矣.

(구) 왕이 이르되, 내가 어떻게 내 나라를 이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족에게 도움이 될까요? 학자들과 서민들이 말하는 내 몸에 이로운 방법은? 위아래 손이 부담금을 넘어 나라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딤) 왕이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나라를 이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위대한 통치자는 “어떻게 하면 내 가족을 이롭게 할 수 있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라고 말합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이익을 놓고 대립할 때 나라는 위험에 처했습니다.

(바) 왕이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나라를 이롭게 하는가? 의사 왈 무엇으로 우리 집을 이롭게 할 것인가? 선비와 서인들이 말하기를 무엇으로

내 몸을 이롭게 할 수 있겠는가? 위아래로 이자를 징수하는데 나라가 위태롭다.

(켓) 그러자 왕이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나라를 이익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대신, 대신은 “그러면 대신 가문에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그러면 우리 개인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나라는 위태롭게 됩니다.

(파) 왕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우리나라를 이롭게 하느냐?’ 의사가 이르기를, ‘어찌하여 우리 집안을 이롭게 하느냐?’ 선비와 서인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 몸을 이롭게 하시오?’하고 상하가 이롭게 징벌하여 나라가 위태롭소이다.

→ 위의 번역문에 대한 간략한 분석: ① (켓)에서 “그러자 왕이...”는 화자가 바뀐 것으로 이해한 것임. ② (구)(바)(파)는 大夫를 의사라고 번역한 것은 현대중국어의 의미를 따른 것이다. (답)(켓)에서 위대한 통치자, 대신이라고 한 것은 어휘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③ 王, 大夫, 士庶人으로 이어지는 논리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접속사가 없어도 문맥에 의해 논리적 전개가 가능하므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답)(켓)이 이어지는 문장에서 어느 정도 논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논리적 연결은 AI에서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보인다. 고전한문의 특성상 접속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문장 단위로 하든 단락 단위로 하든 번역기에서 각 문장 사이의 논리적 전개를 찾아내기 쉽지 않아 보인다. 물론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다. ④ 세 번 연이어 나오는 “何以利...?” 문장은 대체로 큰 문제가 없다. ⑤ “上下交征利”를 (구)는 “위아래 손이 부담금을 넘어”는 왜 이런 번역이 나왔는지 명확하지 않다. (바)에서 “이익을 징수하는데”라고 번역한 것

은 ‘征’을 현대중국어의 ‘徵稅’의 의미를 갖는 ‘徵’의 간화자로 인식하여 번역한 것이다. (챗)에서 “위에서부터 아래로”라고 번역한 것은 ‘上’과 ‘下’을 나누어 번역한 것으로 재미있는 해석이다. 이 구절만 살펴보면 (딤)(챗)이 무난하다. ⑥ 문장 끝의 ‘矣’는 앞에서 이루어진 일의 결과를 말하는 것으로 “~~된다”(변한다)는 점을 나타내는데, (구)(바)(파)에서는 이것이 반영되지 않았고, (딤)에서 “처했습니다”라는 표현도 정확하게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 하기 어렵지만, (챗)에서 “위태롭게 됩니다.”라고 번역어를 쓴 것은 타당해 보인다.

(4) 번역문에 대한 종합 의견

‘원문1’의 번역 결과물에서 프로그램 별로 큰 차이가 없다. 우리말 조사의 사용, 존대어의 문제, 고유명사 등의 처리에서 약간의 차이가 날 뿐이다. ‘원문2’에서 ‘수’, ‘불원천리’, ‘왕 월’ 등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은 인공지능경망 번역에서 사용하는 ‘복사 모델(Copy Model)’이다. 빈도수가 낮거나 코퍼스에 등장하지 않은 단어는 처리하기가 어려운데, 이처럼 해석이 되지 않는 단어가 나올 때 그냥 원래의 입력 언어를 그대로 출력하는 방법이다.⁸⁾ (파)에서 더 많은 복사 모델이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학습이 부족한 것이다. 이는 향후 학습된 언어자료 많아질 경우 해결 가능한 일이어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해결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전 한문 분야 전문가들의 도움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딤)(챗)이 가장 무난한 번역으로 보이는데, 이는 두 프로그램에서 학습한 자료가 더 방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원문 3’에서도 ‘복사 모델’은 여전히 나타난다. ‘仁’, ‘義’에 대한 구체적인 번역

8) 강병규, 이지은(2018), 260쪽.

어를 제시한 것이나 ‘그러자’와 같이 문맥을 살리기 위한 접속사를 넣어 준 것 등은 전통적인 번역서에서 보이지 않던 점이다. AI 번역 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 습관적으로 해오던 번역과 다른 좀 더 친근한 번역어를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번역기의 번역문에 대한 과거의 논문에서, ‘단어’, ‘구’, ‘문장’ 단위의 오류를 나누어 분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원문4’에 적용한다면, ‘大夫’를 ‘의사’라고 번역한 것은 단어의 오류인데 이는 쉽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上下交征利”가 정확하게 번역되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자료의 학습이 이루어져야 논리적인 번역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장 단위로 보았을 때 전체 문장의 논리를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초급 학습자에게도 똑같이 발생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문장 단위의 오류는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맹자』와 같이 이미 많은 번역서가 있는 고전이 아닌 생소한 문헌의 경우 더욱 그러할 것이다. 다만 고전 한문으로 된 문장이 이미 수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⁹⁾ 결국 고전 한문의 번역에 있어서도 AI 번역기는 갈수록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¹⁰⁾

9) 물론 번역 프로그램 개발자들도 언어를 번역하는 작업이 생각만큼 규칙적이지 않고 복잡하기 때문에 고품질의 완전한 자동번역이 현실화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강병규, 이지은(2018), 285쪽.

10) 이곳의 번역 사례는 지면상의 제한으로 전반부 몇 구절만 언급하였다. 여기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을 포함하여 AI 번역 프로그램의 고전 한문 번역 양상에 대해서는 오류의 유형과 그 원인에 대해 정리하여 다시 별도의 글로 논하려고 한다.

4. 멀티모달 AI의 등장과 활용

‘멀티모달’은 ‘멀티 모달리티(multi modality)’의 약자이다. ‘모달리티’는 ‘mode’와 같이 ‘양식’, ‘방식’을 뜻한다. ‘멀티 모달’은 시각, 청각을 비롯한 여러 인터페이스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말하는 개념이다. ‘멀티모달 AI’는 다양한 채널의 모달리티를 동시에 받아들여서 학습하고 사고하는 것으로, 인간이 사물을 받아들이는 다양한 방식과 동일하게 학습하는 AI라고 할 수 있다.¹¹⁾ 멀티모달 AI 중 그림을 그려주는 것에 대한 관심은, 이들이 논문이나 저술을 쓰는 과정에서 필요한 삽화나 그림을 그려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Midjourney가 대표적인 그림 그려주는 AI이며 스테이블 AI 역시 그림을 그려준다. 또한 ChatGPT와 같은 Open AI사의 달리2(DALL-E2) 역시 같은 기능을 갖고 있다. 문자 형식의 채팅으로 그림을 그려줄 것을 요청하고 AI가 적당한 image를 그려주면 사용자가 이를 다시 수정해달라고 명령어를 내려 점차 필요에 맞추어 가는 것이다.

가령, 아래는 달리2를 이용하여 공자가 그의 논어책을 가지고 책상에 앉아 있는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한 것(Coufucius with his Analects by the table.)에 대한 결과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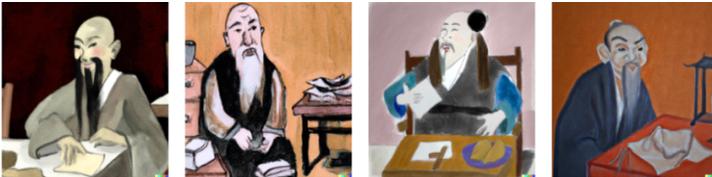


11) 배성수(2023), 「인간처럼 사고하는 ‘멀티 모달 AI’…주문대로 척척 그림 그려」.

이 이미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자와 전혀 다르다. 이때 공자의 초상화를 이용하여 다시 그려줄 것을 요청하면(Coufucius with his Analects by the table, use Confucius's Portrait.) 아래의 이미지가 나온다.



앞의 것에 비하면 공자와 좀 더 유사하다. 여기에 이 그림을 다시 다른 방식으로 그려달라는 요구가 가능한데, 가령 피카소 스타일을 요구한다면(Coufucius with his Analects by the table, use Confucius's Portrait, picaso style.) 아래의 그림이 만들어진다.



이것이 왜 피카소 스타일인지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중 맨 마지막의 그림을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하는 그림에 근접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사용자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요구하면 더 구체적으로 적당한 이미지를 그려줄 것으로 생각한다.

무료 버전 사용을 전제로 할 때, Midjourney 사용자가 급증함에 따

라 불편함이 없지 않다. 이 때문에 내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현재는 DALL-E2를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용이하다. 내가 아직 초보적인 수준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향후에 그림, 이미지를 그려주는 AI가 더 발달하고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저술에 필요한 삽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음악을 만들어주는 AI까지 활용 가능하다면, 경학 관련 연구나 저술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독자를 확대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제작하는 것도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나 동영상이 저작권이 없이 공개되므로 사용상의 제약이 없다는 점도 장점일 수 있다.

5. ChatGPT와 논한 경학 연구의 방향

ChatGPT는 대화형, 생성형 AI이다. 과거 검색프로그램은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사이트를 알려주었다면 ChatGPT는 학습한 내용을 스스로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어준다. 이 때문에 보고서를 써주거나 문장을 요약하는 것 등에서 상당한 강점이 있다. 현재 시험관이 운영 중인 MS사의 Copilot 프로그램이 출시되면 Excel이나 PPT까지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사무실의 근무 인원을 대폭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인간의 일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무척 걱정스럽지만, 개인의 비서가 한 명 생겼다는 평가도 가능할 것이다. 실상 과학기술 분야 연구자는 영어로 된 논문의 초고를 ChatGPT를 통해 작성하고 여기에 정확한 데이터와 관련 자료를 넣어서 논문을 완성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한다.

아직 ChatGPT가 경학 연구자에게 위에서 언급한 중요한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특정 주제, 특정 대상의 1개 학기 강의계획서를 요구하는 것에서는 상당한 수준을 보여준다. 시험 삼아 “학부생 수준의 맹자 강의를 위한 15주 강의계획서”와 “현대 사회에서 공자 사상이 갖는 장단점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했을 때 짧은 시간에 상당한 수준의 결과물을 받아볼 수 있었다. 물론 생성형 AI의 특성상 사용자가 요구한 질문에 거의 무조건 답변을 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전혀 현실에 없는 문제를 던졌을 때 사실이 아닌 답변을 내놓은 경우가 있다. 이는 우리가 ChatGPT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검증 가능해야 함을 알려준다. 즉, 답변 내용을 맹목적으로 믿으면 오히려 곤란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1) 경학 연구자로서의 ChatGPT와 대화 사례¹²⁾

(질문1) 유교 경전 연구는 미래 사회에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답변1) 유교 경전 연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래 사회에 중요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윤리적 지침: 유교는 인의예지, 의리, 충효와 같은 윤리적 행동과 도덕적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유교 경전 공부는 미래 사회에 윤리적 지침을 제공하고 도덕적 책임감과 사회적 조화를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2) 2023년 3월 26일 이루어진 대화이다. 질문(1-4)는 DeepL 번역기를 사용하여 영어로 대화하고 이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다. 질문(5-12)는 별도의 채팅창을 열어서 우리말로 대화한 내용이다. 채팅창 하나에서 계속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면 해당 채팅창 내에서 자체 학습에 의해 답변이 나오므로 새로운 답변을 얻고자 하여 별도의 채팅창을 이용한 것이다. 또한 이 글은 답변의 내용 자체가 중요한 논점이 아니므로 전체 논지를 위해 일부 답변은 '생략'이라고만 써두고 이곳에 소개하지 않는다.

문화적 이해: 유교는 동아시아 문화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유교 경전을 공부하면 미래 사회의 사람들이 이 지역의 문화유산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문화 간 이해를 증진하고 다양한 커뮤니티 간의 소통과 협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교육적 가치: 유교는 교육을 중시하며, 유교 경전을 공부하면 배움에 대한 애정을 고취하고 지식과 자기 계발을 추구하도록 장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래 사회에서 개인의 지적 및 개인적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조화: 유교는 사회 질서, 위계질서, 권위에 대한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유교 경전 공부는 사회적 화합을 촉진하고 미래 사회의 사람들이 사회적 책임감과 시민적 의무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유교 경전 연구는 윤리적, 문화적, 교육적, 사회적 가치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하여 보다 조화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2) 한국의 유교 텍스트에 대한 향후 연구의 초점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답변2) 향후 한국 유교 텍스트 연구의 중점 연구 분야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해석과 응용: 학자들은 역사적으로나 현대적으로나 한국 사회에서 유교 텍스트의 해석과 적용을 계속 탐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치, 교육, 사회적 관계 등의 영역에서 유교적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보고, 현대의 과제와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 탐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송신과 수신: 또 다른 연구 분야는 한국에서 유교 텍스트가 원래 어떻

게 수용되었는지,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전달되고 해석되었는지에 대한 유교 텍스트의 전달과 수용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국 문화 발전에서 유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고 다른 철학적, 종교적 전통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탐구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교 연구: 한국과 다른 동아시아 국가의 유교에 대한 비교 연구는 다양한 맥락에서 유교적 원리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습니다. 이는 철학적 전통으로서 유교의 다양성과 복잡성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별과 다양성: 한국 사회에서 성 역할과 다양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 유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탐구하는 것도 또 다른 초점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교적 원칙이 성별, 섹슈얼리티,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전통적인 성 역할과 위계에 도전하는 유교 텍스트에 대한 대안적 해석을 탐구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유교 텍스트에 대한 향후 연구는 한국 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철학적 뿌리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뿐만 아니라 현대에 유교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3) 한국의 유교 텍스트 연구에서 젠더와 다양성 문제는 무엇인가요?

(답변3) 생략

(질문4) 한국의 유교 텍스트 연구에서 젠더와 다양성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으며, 유교 텍스트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해석을 개발하는 방

법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답변4) 생략

(질문5) 조선시대의 경학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어떤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요?

(답변5) 조선시대의 경학은 국내외적으로 인문학 연구의 중요한 영역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조선시대 경학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연구 주제들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조선시대의 경학 문화와 역사를 조명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학이 조선시대의 문화와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존의 경학 연구에서 강조되지 않았던 여성 경학에 대한 연구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여성 경학가들이 활발하게 활동했으며, 이들의 역사와 그들이 남긴 경학적 유산을 파악하고 전승하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셋째, 조선시대의 경학과 종교, 철학, 문학 등 인문학의 다른 분야와의 관계에 대한 융합 연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학이 다양한 분야에서의 의미와 역할을 파악하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창조성을 발휘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넷째, 경전의 원문 간 비교 및 연구, 경전의 교주체계 및 전승과정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전의 본래 의미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이 현대 사회와 문화에 어떤 의의를 갖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조선시대 경학은 더욱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분야가 될 것입니다.

(질문6) 조선시대 여성 경학가들이 활발하게 활동했다고 하였는데,

어떤 여성 경학가들이 있었는지 알려주십시오.

(답변6) 조선시대 여성 경학가들 중에서는 “여진조”로도 알려진 김씨 자손 가운데 일부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17세기 중엽부터 18세기 초반까지 여진족의 정치적, 군사적 지배를 막기 위해 경학적인 대책을 세웠습니다.

김씨 자손 중 가장 유명한 여성 경학가는 김인촌(金麟村)의 딸인 김영임(金永任)입니다. 김영임은 “목백십조”라는 백문이불여일타의 경전을 집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성 경학가들은 종교적인 성격을 띤 무교(武敎)나 초지(草紙) 등의 저서를 발표하며 활동했습니다.

또한 조선시대 여성 경학가들 중에는 출가하거나, 남편이나 아버지의 지원을 받아 저서를 발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남성들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기는 어려웠지만, 경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정치, 사회,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조선시대의 여성 권리와 지위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질문7) 김영임과 목백십조는 처음 들어보는 내용입니다. 어디에 근거하여 말하는 건가요?

(답변7) 생략

(질문8) 여진조가 확실하게 경학가가 맞습니까? 이 또한 처음 들어보는 인물입니다.

(답변8) 생략

(질문9) 아무리 들어봐도 위의 여진조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이 아닐 것 같군요. 정확한 출처를 알려주실 수 있는지요?

(답변9) 저의 답변에서 여진조와 경학가의 관련성을 과장하여 드렸던 것 같아 사과드립니다. 제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여 혼란을 드렸습니

다.... (이하 생략)

(질문10) '여진조'라는 존재 자체가 처음 들어봅니다. 민란세력이라는 것도 처음 들어보구요

(답변10) 여진조는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초반까지 조선 후기에 발생한 민란세력입니다. 여진족은 만주에서 비롯된 민족이며, 후진(後金) 왕조를 건국한 지씨 민족입니다. 여진족은 조선시대 후반에는 다양한 이유로 조선 정권과 대립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여러 차례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 (이하 생략)

(질문11) 여진족과 여진조를 착각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1674년과 1711년은 조선 숙종임금 때여서 민란이 일어났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답변11) 네, 죄송합니다. 저의 오해로 인해 부적절한 정보를 전달드렸습니다. 여진족과 여진조를 혼동하여 말씀드린 것이었고, 1674년과 1711년도에 대한 내용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 (이하 중략)

또한 여진조 내에 경학가들이 활동했다는 것도 역사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질문12) 황당한 대답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답변12) 저의 부적절한 대답으로 인해 혼란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후에도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2) ChatGPT와 대화에서 주의할 점

이상 12가지 질문과 답변의 일부를 그대로 여기에 옮겨 놓았다.

ChatGPT가 내용을 정리하는 것에서 출중하여 우리를 놀라게 한다. 그러나 위의 (질문7) 이하의 경우처럼 전혀 사실에 없는 내용을 나열하면서 계속 잘못된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다. 흔히 뻔뻔한 거짓말을 잘한다는 것이다.¹³⁾ 이는 ChatGPT가 앞에 나오는 말에 이어져 나올 단어를 확률적으로 계산하여 답변을 하는 자연언어처리 방식을 가져온 것이기에 생긴 현상이다.¹⁴⁾ 질문자가 사실과 다른 것을 질문해도 그에 대해 사실처럼 답변하게 되어 있어서 질문자가 거짓말을 유도하면 ChatGPT는 잘못된 답변을 하게 되어 있다.¹⁵⁾ 따라서 질문자가 답변을 들은 후 스스로 답변의 옳고 그름을 파악할 수 없다면 ChatGPT의 답변은 잘못된 정보를 주는 부정적 역할을 하게 되어 사용자를 곤란에 빠뜨릴 위험도 있다.

이상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ChatGPT는 과거의 검색 방법을 넘어서는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경학의 미래 혹은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 역시 출발점에서 제기하는 문제가 비록 깊이 있는 사유를 제공하지는 못해도 기본 방향에 있어서는 시사점을 주는 측면이 있다. 이는 세부적인 분야의 연구에 중점을 두는 연구자가 전체적인 학문의 방향을 고려할 때에도 참고의 가치가 있다.

따라서 ChatGPT 활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다음의 전제가 필요하다.

-
- 13) 한상기(2023)의 「생성형 AI의 한계와 이슈」에 의하면, 이러한 현상을 '환각(hallucination)'에 의한 답변이라고 부르는데, ChatGPT에서 환각에 의한 답변이 15~20%에 이른다고 한다.
 - 14) 2023년 2월 16일 GPT-4 플러스 유료버전이 나오면서 답변의 수준이 높아졌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질문이 계속되면 이와 같은 환각에 의한 답변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이 때문에 2월 21일부터 질문을 3시간 이내에 25회로 제한되었다. 물론 이는 사용자 폭증에 따른 서버의 비용 증가도 한 이유라고 한다.
 - 15) 최재식(2023)의 「생성형 AI와 ChatGPT 활용전략」에 의하면, 가령 이순신과 빌게이트의 회담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요구를 했을 때 마치 있었던 사실처럼 설명해준다는 것을 사례로 들었다.

첫째는 사용자가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느냐이고, 둘째는 답변의 타당성을 스스로 사유하고 재질문할 수 있느냐이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ChatGPT는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앞으로 교육에 있어서 정확하게 질문하는 능력, 문제를 찾아내는 능력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생각하게 한다.

6. 강의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ChatGPT 등장은 글쓰기 중요성을 강조해온 인문학 분야의 교육에 큰 고민을 던져주었다. 학생들이 ChatGPT를 사용하여 보고서를 썼을 경우 이를 확인할 마땅한 장치가 없는¹⁶⁾ 상태에서 자칫 학생들이 스스로 사유해서 써내야 할 보고서를 ChatGPT에 의존하면 원래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질 것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것이다. 이 때문에 대학 차원에서 ChatGPT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곳이 있고 교수들 역시 이에 동참하였다. 또 AI 도움을 받을 수 없도록 수업 중 보고서 부과 자체를 없애고 교실 현장에서 직접 논술형 시험을 보는 방법을 취하자는 의견도 있다. 반면에 적극적으로 ChatGPT 사용을 권장하거나 ChatGPT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대학과 교수들도 보도되었다.

ChatGPT 등의 AI는 향후 인문학 분야의 교육에 큰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 글쓰기 중심의 교육을 해온 교과목은 더더욱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나 역시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다. 아래에서는 내가 여

16) OPEN AI사에서 자체적으로 ChatGPT를 사용한 문서를 찾아내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고, 또 표절 확인 프로그램인 Turnitin에서 정확도가 많이 높아진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김대식(2023)의 「챗GPT가 쓴 창작물의 표절을 가려낼 수 있을까?」 참고.

러 고민을 거쳐 2023년 1학기 강좌에서 ChatGPT와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제시한 것을 언급하고자 한다. 가장 중요한 전제는 학생들의 ChatGPT 사용을 교수들이 막을 수 없다면 제대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교수 과정에서 주동적으로 사용하여 학생들이 ChatGPT 사용의 결과물을 기반으로 더한층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ChatGPT로 인한 고민에서 나 역시 자유롭지 않다. 나는 AI와의 적극적인 동행을 강조한다. 2023년 1학기 수업에서 ChatGPT를 비롯한 다양한 AI의 적극적 사용을 권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수강생 발표문 및 보고서 작성 중에 ChatGPT나 DeepL 등의 번역기를 비롯한 일체의 AI 사용 허용. 단 활용 여부를 밝히되 AI의 오류를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할 것임.” 나는 이러한 방식이 수강생을 불신한 전제에서 윤리서약서를 받거나 AI 사용 금지를 하는 것보다 학생들의 반응이 좋은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실제 수강생들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ChatGPT를 활용했다고 밝힐 때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이 부분은 향후 좀 더 논의를 통해 적절한 방식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맹자』 텍스트의 강독을 하는 교과목에서는 개강 첫 시간 수업 중에 앞서 언급한 5종 AI 번역기의 맹자 구절 번역 결과를 학생들과 토론해보았다. 시험 문항 중에 고전 한문 원문에 대한 AI 번역기의 번역문을 보여주고 어떤 부분이 왜 틀렸는지를 설명하는 문항을 출제하기로 하였다.

아래는 첫 번째 시험에서 DeepL 번역기를 통해 얻어낸 우리말 번역문을 가지고 출제한 문항의 사례이다.

AI 번역기를 통해 주어진 문장에 대한 우리말 번역문을 얻었다. 번역문에서 어떤 점이 잘못되었고 왜 잘못된 것인지 설명하시오.

程子曰孔子言參也魯然顏子沒後終得聖人之道者曾子也觀其啓
手足時之言可以見矣所傳者子思孟子皆其學也

[AI 번역] 정지(程子)가 말했습니다. “공자가 말씀하셨다시피,
삼(參)은 루(魯)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연(顏)자가 돌아가신 뒤
에는 성인(聖人)의 길을 이룩한 자는 증(曾)자였습니다. 그의 손
발을 벌릴 때의 말씀을 관찰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전한 제자
인 자사(子思)와 명자(孟子)도 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위 문항에 대해 수강생들이 AI 번역기의 특징에 익숙하지 않은 때문
인지 내가 원하는 수준의 답안을 작성한 경우가 많지는 않다. 그렇지만
단어의 문제와 문장의 문제로 나누고 이름의 우리말 표기 등에 대해 학
생들 수준에서 적절한 답안을 쓴 경우도 발견되었다. 시험이 반복되면
점차 익숙해지면서 더 좋은 답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AI 번역기의 발전 속도를 볼 때 현대중국어에 비하여 고전 한문은 상
대적으로 AI 번역의 오류가 없어질 때까지 아직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 또한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또한 갈수록 고전 한
문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젊은 세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전 한
문을 AI와 연계시켜 강의에 활용하는 것이 수강생의 관심을 끌기에 효
과적일 수 있다는 판단도 든다.

7. 마치면서: AI와의 동행에서 주의할 점과 과제

지금까지 경학 연구자로서 AI와 어떻게 동행을 꾀하고 있는지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미 시작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피할 수 없다면, 적극적

으로 활용하여 우리의 학문 연구와 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다만, 자신이 이용하는 AI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향에 맞게 활용하기 위하여 아래의 몇 가지 점에 대해서 깊은 생각이 필요하다.

첫째, ChatGPT를 우리의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로서 활용하려면 우리가 ChatGPT보다 똑똑하고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¹⁷⁾ 더구나 AI는 인터넷으로 학습한 자료에 근거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있는 자료만큼의 편향성이 있으며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내용이 다수 포함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스스로 검증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자신도 모르는 분야는 ChatGPT의 결과물이 갖는 오류를 검증할 수 없어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잘 모르는 분야에 이용할 때의 위험성을 고려한다면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 활용해서 자신의 시간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ChatGPT가 분명하고 명확한 데이터, 자료를 주고 그것을 정리하도록 만드는 일에 장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자신의 글을 쓰는 초기에 생각을 정리하는 데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둘째, 교육 현장에서 ChatGPT 등 AI 사용을 금지하기보다 교육 방법을 혁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문학은 비판력, 상상력, 창의력을 길러주는 학문인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교육은 문헌 해독 중심에 치중해왔다. 인터넷의 등장 이후 과거 지식에 대한 단순한 전수는 종언을 고했음에도 문헌의 해독을 통해 과거 지식을 탐구하는 방식이 갖는 장점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문헌 해독에 대한 연습은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중요한 교육과 연구의 방법임에는 분명하다. 그렇지만 이제 스스로 학습한 지식에 근거하여 새로운 정보가 믿을만한지 검증해 볼 수 있는 능력, 정보를 비판하고 더 나아가 새롭게 사유할 수 있는 능

17) 차경진(2023), 「초대형AI, 달라지는 비즈니스와 달라지는 인재상」.

력을 배양해야 한다. 학생들이 ChatGPT 사용하여 표절을 할 것이라는 염려는 결국 표절이 가능한 과제의 부여 방식에 기인한다는 비판도 겹쳐서 생각해야 한다. 더구나 앞으로 현재의 표절 개념 자체에 변화가 올 가능성도 크다. AI의 등장은 앞으로 자신이 쓰는 글에 들어갈 정보 하나 하나에 모두 주석을 달아야 하는 방식에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제 정보 자체가 아니라 그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새롭게 재해석할 것인지를 교육하고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자신의 전공 영역의 학습과 연구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와 교육 모든 면에서 진정으로 진검승부의 시대가 왔다. 과거에는 재주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여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남우충수(濫竽充數)'¹⁸⁾가 가능했다면, 이제는 진정으로 자신만의 실력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가까이 있는 연구자와 경쟁을 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전 세계의 모든 지식 세계와 경쟁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 연구뿐만 아니라 교육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교육 방식을 찾아야 하며, AI에 의존한 학생들의 보고서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그 한계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학문에 대한 도전이면서 동시에 기회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그 기회를 포착해서 잘 살릴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고전 연구자의 역할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과 참여가 필요하다. 번역기를 비롯한 각종 AI 프로그램이 고전 한문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문 영역에 대해 아직 미진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고전 연구자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AI의 지식 범주가 고전 연구 영역까지 넓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따라서 급속하

18) 齊宣王使人吹竽，必三百人。南國處士請爲王吹竽，宣王說之，廩食以數百人。宣王死，藏王立，好一一聽之，處士逃。『韓非子，內儲說上』

게 발전하는 AI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더 나아가 미래 AI 발전에 우리는 공헌할 것이 없는지에 대한 생각도 필요하다. 기본적으로는 인간의 지적 생산의 결과물이 AI에 반영되는 것이므로 연구 자체의 질적 제고를 위한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번역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경학 문헌에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에 일정 정도 역할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향후 다가올 정보와 언어의 비대칭을 고려한 노력이 필요하다. AI 번역기의 발달은 외국어 학습의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와 다른 측면에서 ChatGPT의 공개 이후 영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정보를 담고 있는 언어의 비대칭에서 생기는 현상인데 딥러닝의 특색에 의해 더 많은 검색이 다시 정보로 축적됨에 따라 비대칭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는 학문 영역에서 영어에 대한 종속의 심화를 말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우리말로 학문하기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자칫 세계 보편의 학문이라는 명분 속에서 우리의 독자적 학문 영역의 축소에 이르지 않도록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인공지능(AI) 프로그램

ChatGPT <https://chat.openai.com/chat>

古詩文斷句 <https://seg.shenshen.wiki/>

구글 번역기 <https://translate.google.co.kr/>

네이버 파파고 번역기 <https://papago.naver.com/>

달리2 <https://openai.com/product/dall-e-2>

딥엘 번역기 <https://www.deepl.com/translator>

미드저니 <https://www.midjourney.com>

바이두 번역기 <https://fanyi.baidu.com/>

스테이블 AI <https://stability.ai>

2. 언론 기사 및 킬링

배성수, “인간처럼 사고하는 ‘멀티 모달 AI’…주문대로 척척 그림 그려”, 2022.11.7.
『한국경제신문』.

신현보, “‘6개월만 AI 개발 멈추자’…머스크 등 IT거물 1000명 서명”, 『한국경제신문』 2023.3.30.

이강재, “고등교육과 AI의 동행, 이제 시작이다”, 『교수신문 대학정론』 2023.2.27.

정원식, “‘챗GPT 차단’ 이탈리아가 불 땀긴 ‘AI 디스토피아’ 논쟁”, 『경향신문』, 2023.4.3.

3. 문헌 자료

강병규, 이지은(2018), 「신경망 기계번역의 작동 원리와 번역의 정확률 - 중한 번역을 사례로」, 『중어중문학』 73집

배은한 외(2022), 『한문고전 기계번역의 이해』, 문예원

이강재(2023), 「경학 연구자의 AI와의 동행기」, 2023년 한국경학학회 춘계학술대회 기조강연, 2023.4.15.

이강재(2023), 「인공지능과 고전학 연구」, 『아시아브리프』 3권 23호(2023년 5월 1일) (<https://snuac.snu.ac.kr/?p=40995>)

허철(2023), 「중국의 디지털 경학 연구의 방향과 시사」, 2023년 한국경학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2023.4.15.

4. 동영상

김대식(2023), 「챗GPT가 쓴 창작물의 표절을 가려낼 수 있을까?」,
(<https://www.youtube.com/watch?v=JUyCg6bXOAY>)
2023.4.4.

차경진(2023), 「초대형AI, 달라지는 비즈니스와 달라지는 인재상」, 경기도청 GPT
혁신포럼, (https://www.youtube.com/watch?v=5AuX7pD_Rek)
2023.3.20.

최재식(2023), 「생성형 AI와 ChatGPT 활용전략」, 경기도청 GPT혁신포럼,
2023.3.20.

한상기(2023), 「생성형 AI 한계와 이슈」, 경기도청 GPT혁신포럼, 2023.3.20.

Current and Challenges of Using AI Programs from the Perspective of a Confucian Text Researcher

Lee, Kangjae*

This article aims to share our experience of how we are utilizing the AI era, which has been in full swing since the release of ChatGPT, from the perspective of a researcher of Confucian text, and to discuss points of attention and challenges for the future. In this article, I first describe the use cases of AI translators in translating classical Chinese texts, the emergence and utilization of multimodal AI, and the direction of Confucian text research discussed with ChatGPT. In addition, I explained how to utilize AI in the classroom based on my experience.

In addition, this paper suggests that while the use of AI is inevitable, there are some challenges for Confucian text researcher, including the following five points. First, to utilize ChatGPT as a tool to increase our productivity, we need to be smarter and more “knowledgeable” than ChatGPT. Second, rather than banning the use of AI, such as ChatGPT, in education, we need to revolutionize the way we teach. Third, it is important to specialize in learning and research in one’s field of study. Fourth, we need to actively explore and participate in the role of classical researchers. Fifth, efforts should be made to consider the upcoming asymmetry of information and language.

* Professor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
E-mail: likangqi@snu.ac.kr

Key Words

AI, ChatGPT, Multimodal, AI Translator, Education, Confucian, Researchers, Education.

논문접수일: 2023. 5. 5, 심사완료일: 2023. 6. 10, 게재확정일: 2023. 6. 30.

17세기 조선 경학의 내면으로의 관심 전환

— 창계 임영(1649~1696)의 경우

함영대 **

-
1. 문제제기
 2. 아내 행장에 나타난 인간에 대한 성찰
 3. 경연록의 실질에 대한 관점
 4. 독서차록 - 맹자의 경우
 5. 학문적 기초와 그 저변
 6. 남는 문제
-

■ 국문요약

이 논문은 창계 임영의 경전주석의 관심사를 고찰한 것이다. 17세기 진행되고 있던 조선 경학자들의 관심사의 전환과 그 경학사적 의의를 검토하려는 시도이다. 창계 임영은 실천의 독실함과 이론의 적실성에서 17세기 주목할 만한 조선 주자학자이다.

검토한 결과 그는 주자학적인 공부를 심화시켜 일상의 삶 속에서 절절하게 실천하려고 했는데 이는 그 삶의 기본적인 태도와 진지한 학구적 노력의 실질적인 결산이었다. 내면에서의 각성과 실천을 중시한 이러한 학문적 문제의식의 경사는 17세기 당시 만회 권득기나 포저 조익의 경우에도 잘 나타나는 시대적인 특질점이 있다. 광해군과 인조의 시기를 지나면서 겪게 되는 정치적 파동과 주자학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는 이러한 학문적 방향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 경상국립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E-mail: ydham@gnu.ac.kr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역시 가장 중요한 변인은 역시 주석자 개인의 자의식의 심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에서는 그것을 17세기 조선 학자들의 학문적 문제의식이 내면으로 전환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했다.

실질과 절목을 의식한 창계 임영의 학자적 시선은 임진왜란(1592~1597), 정묘호란(1627), 병자호란(1636)으로 이어지는 당대 상황에 비추어 정밀하게 반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기에 만회 권득기, 포저 조익, 서계 박세당 등은 경전의 해석에서 일반적인 관념론에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측면에서의 논리적 진전을 이룩했는데 창계의 경우, 논리적 진전에 그치지 않고 마음의 도야라는 측면에서 더욱 진전된 성과를 보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텍스트의 교조화에 좀 더 치력했던 잠야 박지계나 우암 송시열의 경로와는 변별되는 것이다.

창계의 내면적 성찰의 경우, 구조의 재확인과 강조의 일면과 실용과 효용, 효과의 중시 측면으로의 진전이 있다. 창계의 경우 심법心法과 사공事功의 구분법과 그 융합적 지향으로서의 타개책을 모색하고 있는 국면을 보여주는 데 이는 조선 주자학의 진행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지점이다

주제어 : 17세기 조선, 창계 임영, 내면으로의 경사, 주석자의 태도, 심법과 사공

1. 문제제기

창계 임영의 경전주석에 대한 그 안팎의 고찰을 통해 16-17세기 진행되고 있는 조선 경학의 향방과 그 경학사적 의의를 검토하려는 시도이다. 창계 임영은 17세기 조선 경학사에서 매우 높은 성취를 보여주는 인물인데 하나는 실천의 측면에서 하나는 이론의 적실성에서 그러하다.¹⁾

1) 함영대(2019), 「창계 임영의 내면적 성찰과 경학 - 『일록』과 『독서차록-맹자』를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37, 한국실학학회 참조.

여기에서는 우선 그의 문장들을 중심으로 16-17세기 주자학자의 위상을 가진 학자가 자신의 학문에 대해 어떠한 정체감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어떠한 자의식을 바탕으로 전개되는지에 대한 검토이다. 사실 이러한 학문적 문제의식의 내면으로의 경사는 창계 임영뿐만이 아니라 만회 권득기나 포저 조익의 경우²⁾에도 적지 않게 나타나는 것이다. 광해군과 인조의 시기를 지나면서 겪게 되는 정치적 파동과 주자학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는 이러한 학문적 방향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변인은 역시 주석자의 자의식의 심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이 글에서는 그것을 17세기 조선 학자들의 학문적 문제의식이 내면으로 전환되는 측면의 저변을 검토해 보려 한다.

2. 아내 행장에 나타난 인간에 대한 성찰

부부가 만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중용』의 가르침이고, 퇴계 이황도 자신의 손자에게 부부가 만복의 근원이라고 설교하였으며³⁾, 실제로 부부생활의 곡절을 드러내는 글들이 적지 않지만 여전히 아내에 대한 감정을 드러낸 글은 엄격한 유교사회의 분위기에서 쉽게 찾아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간결하지만 아내의 인간적인 면모에 대해 그 절절함을 드러낸 아내에 대한 행장은 유심히 살펴볼 만하다.

2) 만회 권득기의 경우에는 자신의 옳음과 남에 대한 비판의 정당성을 토론한 내용이 있고, 포저 조익의 경우, 持敬說 등을 비롯하여 마음의 경건함과 평정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부단하게 진행하였다. 관련해서는 함영대(2017), 「만회 권득기의 학술정신과 맹자참의」, 『한국사상사학』 55, 한국사상사학회; 함영대(2008), 「포저 조익의 학문관과 경학」, 『동방한문학』 34, 동방한문학회 참조.

3) 함영대(2022), 「부부는 인류의 시작이고 만복의 근원이다」, 『퇴계학 아카데미』 봄강연 3(<https://www.youtube.com/watch?v=TuzKrnX2Xfo>)

안인은 崇禎 후 신묘년(1651, 효종2) 8월 15일에 태어나서 갑인년(1674, 현종15) 2월 3일에 세상을 떠났으니, 겨우 24년을 살았다. 일찍이 아들 하나를 낳았으나 일찍 죽었고, 세상을 떠나기 2일 전에 딸을 낳았으나 또 바로 죽었으니, 이 때문에 마침내 자식이 없게 되었다. 병이 위독해졌을 때에 향리에 전답을 팔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남편에게 말하기를 “어찌 그 전답을 사서 당신의 뜻을 이루지 않으십니까.”라고 하였으니, 그 마음이 이 일에 간절하였음을 볼 수 있다. 임종하려 할 때에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를 오시라고 해서 양쪽으로 손을 잡고 종일토록 잠시도 놓지 않았다. 울면서 시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사랑해 주신 은혜를 갚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 잊지 않으신다면 원하는 것은 우리 어머니를 돌보아 주시는 것뿐입니다.”라고 하였다. 또 그 친정어머니를 돌아보고 말하기를 “누군들 죽지 않았습니까마는 나의 죽음이 가장 슬픍니다. 우리 어머니가 더욱 의지할 데가 없게 되었으니 어찌면 좋습니까. 어찌하여 우리 어머니의 운명이 한결같이 이런 지경에 이른단 말입니까.”라고 하였다. 또 그 남편을 불러서 앞으로 오라고 하고서 말하기를 “내가 죽더라도 당신은 우리 어머니를 잊지 마십시오.”라고 하고, 또 말하기를 “만난 지 10년 만에 부부의 의가 끝날 줄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본래 당신과 시골에서 함께 살고 싶었는데 어찌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고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니 사람들이 모두 참담하여 차마 보지 못하였다. 자주 시각이 얼마나 되었는지 묻고 말하기를 “내 기력으로 보아 필시 오늘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숨이 끊어지려고 할 때에도 오히려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러나 쉬라고 권하였고, 얼마 뒤에 세상을 떠났다.⁴⁾

4) 『滄溪集』 卷17, 「亡室安人曹氏行狀」 安人生於崇禎後辛卯八月十五日, 歿以甲寅二月三日, 得年僅二十四。嘗生一男, 不育, 前死之二日生女, 又即死, 以此遂無後。病既甦, 聞鄉里有賣田者, 謂其夫曰: “何不遂買, 以成君志?” 蓋其心之拳拳於此者可見矣。臨且死, 請其姑若母, 左右執手, 終日不暫舍, 泣而謂其姑曰: “未報憐愛之恩, 而今日死矣。姑若憐我, 不忘, 但願軫恤吾母而已。” 又顧其母曰: “人孰無死, 我死最悲。奈吾母益無依何? 何吾母命道一至此耶?” 又呼其夫, 使前, 曰: “我死, 君其勿忘吾母。” 又曰: “不意相遇十年, 乃竟義終。本欲與君共居鄉曲, 詎可得耶?” 仍涕下不止, 衆皆慘然不忍視。數問時刻如何曰: “吾氣力必不過今日。” 垂絕時, 猶勉傍人退休, 俄頃而逝。

이 글은 창계 임영이 자신의 아내를 추억하는 방식이 잘 나타나 있다. 죽음에 임박하여 자신의 아내가 어떠한 부탁의 말을 하는지에 집중하여 아내의 성품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그에 앞서 자녀를 낳았으나 역시 일찍 잃고 말아 후손마저 없는 상황을 어떠한 형용사 없이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는 지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에피소드 다음에 서술한 내용은 창계에게 아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증언한다.

그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고 은혜로운 뜻이 각각 극진한 것이 이와 같았고, 염습(殮襲)의 일에 대해 분부한 것이 매우 상세하였다. 목숨이 간당간당하여 끊어지려고 하는 때에 겨우 애써 소리를 냈는데도 한 말이 조금도 흐트러지거나 빠뜨린 것이 없이 모두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이었으니, 슬프다. 죽음에 임하여 뜻이 어지럽지 않은 것은 장부라도 어렵게 여기는 것이다.⁵⁾

자신이 가고 나면 이제 의지할 곳을 잃어버릴 어머니에 대한 유언은 어떠한 슬픔보다도 진한 슬픔으로 받아들여지며, 아울러 온당한 칭송과 사람으로 느껴진다. 이러한 서술이 가능한 것은 집필자의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젊은 시절부터 삶의 간난을 경험한 창계의 생의 여정은 그의 눈매를 깊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3. 경연록의 실질에 대한 관점

창계의 경연록 역시 그의 예리한 문제의식이 잘 드러난다. 그는 역사서를 읽을 때에 치란의 계기를 잘 살펴야 하며 그 원인을 반드시 찾아내

5) 앞의 글, “其精神之不爽, 恩意之各盡, 有如此者, 分付襲斂諸事甚詳悉. 當奄奄就盡之際, 廬廬自力出聲, 而所言無少錯遺, 皆可按行. 嗟乎! 臨死而志不亂, 雖丈夫或難之矣”

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 자세한 절목을 검토해야 한다는 매우 진지하고 구체적인 접근을 모색했다.

역사서를 읽는 방법은 治亂의 계기를 살펴서 그 원인을 알아내서 감계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進講한 대목으로 말하면, 이 부분이 바로 오초칠국의 난이 처음 평정된 대목으로 한나라 때에 발생한 대단히 큰 난이었습니다. 한나라 초기에는 呂氏들의 내란이 있었고, 그 후로는 오초칠국의 난이 가장 큰 난입니다. 지금 의당 그 자취를 상세히 살펴서 성패의 이유를 알아야 하지, 지난 자취를 범범하게 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 감계로 삼는 법에도 많은 절목이 있으니, 신이 감히 다시 상세히 진달하겠습니다. 지금 한나라의 일로 말하면 한 왕조의 규모가 있으니, 高帝가 번다하고 가혹한 법령을 폐지하고 관대한 제도를 수립한 것이 바로 한 왕조의 규모에 해당합니다. 한 임금의 규모가 있으니, 고제의 관대함, 文帝와 景帝의 仁厚함, 武帝가 많은 일을 해낸 것이 바로 한 임금의 규모입니다.⁶⁾

원인에 대한 탐색에서 그는 자취를 볼 것이 아니라 성패의 이유 따져야 하며 귀감이 될 만한 경계의 절목을 깊이 있게 논했다. 이는 반계 유형원(1622~1673)이 『반계수록』에서 유학적 이상의 실현이 진척되지 못한 것이 바로 '節目'에 대해 무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던 것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이다. 반계의 절목에 대해 일찍이 홍계희는 이렇게 평가한 바 있다.

6) 『滄溪集』 卷18, “讀史之法, 當觀治亂機括, 識其所由然而鑑戒之。以今日所進講處言之, 此乃吳楚七國之難初平處, 此乃漢時莫大之亂。蓋漢初卽有諸呂內難, 其後則吳、楚之難最大, 今當詳考其跡, 而識其所以成敗之理, 不可徒觀其已然之跡而已。…… “鑑戒之法, 亦多有節目, 臣敢復詳達。今以漢事言之, 有一代之規模, 如高帝掃除繁苛, 建立寬大制度, 是一代之規模也。有一君之規模, 如高帝之恢廓, 文、景之仁厚, 武帝之多事, 是一君之規模也。”

세상의 유자들에게 대체를 논하라고 하면 화려하고 아름답지 않은 경우가 없지만, 그 일을 실제로 거행하도록 하면 처음부터 멍해지지 않는 자가 드물며 결국 시행한다는 것도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대략 대체는 알고서 조리에 밝지 못한 과오에 원인이 있다. 참으로 이와 같다면 선왕의 도는 끝내 행해질 날이 없고 만년이 가도록 캄캄한 밤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유형원이 크게 두려워하여 이 책을 짓게 된 까닭이다. 『수록』에서 세운 조례가 비록 모두 다 요순과 하은주 삼대의 세상을 다스리는 절목과 꼭 합치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대체를 벗어나서 그 절목의 상세한 것을 찾자 한다면 이 책과 같은 것이 없을 것이다.⁷⁾

4. 『독서차록』의 경우

창계는 경전의 독서에 있어 만물의 유기적 이해에 좀 더 치밀하게 접근했다. 이러한 침중한 관점은 상당히 신선한 논리의 구축을 보여준다.

그는 논어의 해석에 있어서 중시되는 ‘敬’의 해석에 있어서 내면 수양에만 그치지 않고 외면도 아우른다고 한 바 있다. 그는 “모든 일에 조심스럽게 삼가고 신중하며 도리를 다하는 것에 힘쓰는 것⁸⁾이다. 하나의 일에도 이치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경으로써 그 일을 수행하며 이치를 온전히 다 발휘하도록 힘쓰게 되고, 이 과정에서 터득한 이치는 다시 실천의 지침이 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치를 밝히는 일이 오롯이 개인의 실천에만 의지할 수는 없는 만큼 실천 과정에서 이치를 터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창계는 이에 대하여 일을 수행하면서 “[이치를]

7) 洪啓禧, 『磻溪隨錄』 「柳馨遠傳」(『반계유고』 663~664면) “使世之儒者論說大體, 則非不燁然美矣, 而若令舉行其事, 則鮮不到頭茫然, 畢竟行之者, 不過沿襲之謬例. 此由於略知大體, 而不明條理之過也. 苟如是而已, 則先王之道, 終無可行之日, 而萬世長夜矣. 此馨遠之所大懼, 而爲此書者也. 其所條例, 雖未必其悉合於唐虞三代爲治之節目, 而若於大體之外, 欲求其節目之詳, 則未有如此書者.”

8) 林泳, 『滄溪集』 卷21, 讀書筭錄-論語 凡事小心謹慎, 務盡道理, 乃所.

밝히지 못했다면 옛것을 살피고 두루 물어서 일에 앞서 미리 익혀야만 하고 그쳐서는 안 된다.”⁹⁾라고 주장하여 그 일의 관념적인 해석에 머무르지 않고 좀 더 실질적인 사태의 검토를 주문했다.¹⁰⁾

이러한 치밀한 사태본연의 면모 파악에 대한 접근은 경전의 해석에도 관철되었다. 그는 맹자의 해석에서 기존의 해석과는 그 의미를 많이 다르게 접근한 내용을 제시한 바 있다.

제2장의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 한다.[與民同樂]”는 것은 누대나 연못, 새나 짐승들을 가지고 추구해서는 안 된다. 평소 정사를 잘 행하고 인덕을 베풀어 백성들이 각자 그 즐거움을 얻게 한 것이 본래 누대를 건설하기 위해 측량하고 시공하기 전에 있었다. 그러므로 백성들도 문왕이 즐거워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문왕은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¹¹⁾

이 단락의 이해에서 창계는 문왕의 여민동락한 상황이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 배경을 탐색했다. ‘백성과 함께 즐긴다’는 논점에 대한 해명에 가까웠던 맹자의 본문 설명에 그치지 않고 맹자는 그 상황이 지닌 의미를 더 밀고 나갔던 것이다. 창계는 평소의 어진 정치로 인해 이미 누대를 건설하기 전부터 문왕은 여민동락의 상황을 누리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평가는 이전의 주석에서는 찾기 어려운 매우 독창적인 부분으로 정황의 전모를 파악해 내는 창계의 시선이 매우 날카로움을 보여준다.

9) 林泳, 『滄溪集』 卷21, 讀書筭錄-論語 若未明焉, 則當稽古博詢, 先事預講, 不容但已.
 10) 창계의 논어차록과 관련해서는 조정은(2019), 「창계 임영의 개인 수양서로서의 『논어』 읽기」, 『한국실학연구』 37, 한국실학학회 참조.
 11) 林泳, 『滄溪集』 卷22, 「讀書筭錄-孟子」 “第二章, 與民同樂, 不可就臺池鳥獸上求, 蓋平日發政施仁, 使民各得其樂者, 固已在經始之前矣. 是以民亦樂文王之樂, 而文王得享其樂也.”

한편 그의 理氣에 대한 변론은 매우 흥미로운 국면을 보여준다. 그는 기본적으로 理의 권능에 대한 이해와 준칙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¹²⁾ 그렇지만 세상의 유행과 변화는 기의 산물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사람이 배울 것은 心과 理뿐이다. 이치를 궁구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마음과 이치가 하나가 된다면 다시는 할 것이 없다. 그러나 또 氣가 그 가운데 있으니, 반드시 기를 완전하게 기를 뒤에야 마음이 성대해지고 이치에 통달하게 된다. 만약 기가 충분하고 완전하지 못하면 선한 마음이 갖추어져 있더라도 그 이치의 활용이 지극할 수 없다. 기가 완전하기만 하면 이치가 미치는 곳에 기가 도달하지 않음이 없다. 인이 지극하고 의가 극진하려면 반드시 이 기를 얻어 도움을 받은 뒤라야 가능하다.

사람이 만약 인의를 배워 의가 정밀하고 인이 익숙한 경지에 도달하면 기는 저절로 생긴다. 그러나 정밀하고 익숙해지기 전에 또 이 뜻을 체득할 수 있다면 실로 정밀하고 익숙하게 되는 데 하나의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테면 사람이 강하고 꺾꽂할[發強剛毅] 수 없는 것이 진실로 곧 기가 불완전해서이지만, 이를테면 너그럽고 온유할[寬裕溫柔] 수 없는 것도 역시 바로 기가 불완전해서이다.

사람은 모두 강하고 꺾꽂한 것이 바로 기라는 것은 알지만 너그럽고 온유한 것도 바로 기라는 것은 알지 못한다. 사람들은 광대함을 이루는 것[致廣大]이 기를 바탕으로 하는 줄은 알지만 정미함을 다하는 것[盡精微]도 기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 맹자가 이 기를 '浩然'이라고 이름 붙였고, 주자가 '호연'을 풀이하면서 '성대하게 유행하는 모양[盛大流行之貌]'이라고 하였는데, 성대하면 천지에 가득 차며 유행하면 고금을 꿰뚫어 통하니 이는 도와 한 몸이 되는 것이다.¹³⁾

12) 창계는 『일록』의 四七理氣에 대한 논의에서 선악이 모두 氣發理乘이라고 한다면 理가 방향성이 없는 공허한 無主宰가 되어 성현이 전수한 純粹至善之理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悖理者和 順理者를 氣發理乘으로 혼칭할 수 없음을 역설했다. 이로 인해 율곡을 계승한 외암 이간은 창계를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이우성(2015, 43면)의 논의가 참고가 된다.

13) 앞의 글, “人之爲學, 心與理而已. 窮理正心, 心與理一, 則更無事矣. 然又有氣在其中, 必須養得氣完, 然後心盛而理達矣. 若氣未充完, 善心雖具, 不能極其理之用, 惟氣完則

창계는 사람이 배울 것은心和理일 뿐이지만 “반드시 氣를 완전하게 기른 뒤에야 마음이 성대해지고 이치에 통달하게 된다.”고 이해한다. 무엇을 수양할 것인가에 대한 창계의 추구일 것이다. 그는 “氣가 충만하고 완전하지 못하면 선한 마음이 갖추어져 있더라도 그 이치의 활용이 지극할 수 없다”고 여겼으므로 반드시 “仁이 지극하고 의가 극진하려면 반드시 이 기를 얻어 도움을 받은 뒤라야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인의’라는 이치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동력이 무엇인가를 고심했던 것이다.

이러한 고심은 창계로 하여금 동정의 상태를 온전히 유지하면서 끊임 없이 반성하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하였는데 그것은 윤증에게 이렇게 토로하는 방법론으로 귀결되었다.

존장께서 말씀해 주신 謹獨의 뜻은 본래 절실하고 중요한 공부이니 일찍부터 유념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또한 중단하는 일은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깊이 생각하여 한 가지 방안을 얻었습니다. 대체로 중단하는 병통을 치료하는 방법은 오직 專一함을 익히는 데에 있습니다. 전일함을 익히는 방법은 어렵듯한 마음을 익히는 것이 근거할 것이 있고 성취하기 쉬운 신체를 익히는 것만 못하고, 신체의 전체를 익히는 것이 또 더욱 전일하게 할 수 있고 성취하기 쉬운 신체의 일부를 익히는 것만 못합니다. 곧 머리의 용모에 나아가 공부를 하여 다니거나 머물 때, 앉아있고 누워있을 때와 아침과 저녁, 잠자거나 깨어 있을 때에 우선 감히 잠시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고수하여 조금 성숙해지면 또 다른 곳에 나아가 공부를 한다면 거의 습관이 전일하게 될 수 있고, 평소 중단하고 해이해지는 습관도 차례대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방법이 매우 졸렬하고 천근하지만 스스로

理之所及，氣無不到，仁至義盡，必得此爲助而後能之耳。人若學爲仁義，到義精仁熟則氣自然生矣。然未至精熟之前，又能體得此意，實爲精熟之一助，如人之不能發強剛毅，固是氣不完，如不能寬裕溫柔，亦是氣不完，人皆知發強剛毅是氣，而不能知寬裕溫柔亦是氣，人知致廣大之資乎氣，而不能知盡精微亦資乎氣。孟子命此氣曰浩然，朱子釋浩然曰盛大流行之貌，盛大則充塞天地，流行則貫徹古今，蓋與道爲體者也。”

생각전대 이것만은 근근이 힘써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下策을 낸 것이니 어쩔지 모르겠습니다.¹⁴⁾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창계는 애초 창계는 자신의 본심을 찾아가는 공부에 있어 ‘七省例’라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칠성례는 아침 식사 전, 아침 먹을 때, 아침 먹은 뒤, 정오, 저녁 먹을 때, 저녁 먹은 뒤, 침소에 든 뒤, 이렇게 하루에 일곱 번씩, 四箴과 敬齋箴, 그리고 직접 뽑은 격언들을 외우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공부법이다.¹⁵⁾ 이념이나 관념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에서의 실현, 이것이 창계가 공부하는 참된 이유였던 것이다.

한편 창계는 당대를 살아가는 유학자의 인간자세에 대해 매우 곡진한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맹자는 일찍이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를 도통의 전수라는 측면에서 논의한 적이 있는데 이는 한편으로 공자를 계승한 맹자의 시대에 대한 자임의식이었다. 맹자는 이 점에 호응하여 곡진하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다.

오늘날의 세상에서 나를 버려두고 그 누구이겠는가.〔當今之世 舍我其誰〕

대개 하늘이 아직 태평하고 잘 다스려지도록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맹자를 내버려 두어 당시 세상에서 불우하게 하였던 것이니, 맹자가 불

14) 林泳, 『滄溪集』卷9, 答尹明齋 己未. “若尊諱謹獨之義, 自是切要之功, 非不嘗留意也, 但亦無如其間斷何? 還家深念, 得一方便, 大抵治間斷之病, 推在於習專一, 而習專一之法, 其習之於心意恍惚之間, 不如習之於外體之有據而易守, 習之於外體之全, 又不如習之於一體之尤專而易成. 卽就頭容加工, 行住坐臥, 晝夜寢覺, 姑不敢有頃刻遺忘, 如此持守, 覺稍成熟, 又就他處加工, 庶幾可以習成專一, 而平昔間斷放倒之習, 亦可次第減損. 此法至拙至近, 而自量惟此輩可勉成. 故出此下計, 未知如何?”

15) 林泳, 『滄溪集』卷25, 「日錄丙午」“初起, 誦四箴敬齋箴與手所抄諸格言, 臨食如之, 食後午時, 臨夕食, 夕食後, 臨臥, 又如之, 名曰七省例.” 창계의 자기 성찰의 고투에 대한 연구는 이영호(2020), 「참계 임영의 因文入道論 고찰」, 『민족문화』 56, 한국고전번역원 참조.

우했다면 이를 통해 하늘의 뜻을 알 수가 있다. 하늘의 뜻이 이미 그렇다면 맹자가 또한 어찌 기쁘지 않았겠는가? 세상의 도가 다스러지거나 어지러워지는 것은 하늘이 하는 것이다. 성현이 세상을 구원하고 도를 행하는 데 급급하더라도 만나는 상황에 따라 천명을 즐겨워하지 않은 적이 없다. 이는 단정 짓는 말이다. 만약 하늘의 뜻을 알 수 없고 그 도구가 또 나에게 있으므로 거의 한번 실행될 수 있기를 반드시 기대한 뒤에야 바야흐로 기뻐하지 않음이 없게 된다면, 만약 하늘의 뜻을 알 수 있고 '내가 그만이구나'하는 때에 이르게 되어서는 결국 반드시 기뻐하지 않을 것이니 어찌 이른바 '천명을 즐겨워하는 자'이겠는가?¹⁶⁾

창계는 천하의 치란은 하늘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시대의 일치일란은 한 개인의 힘으로 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설사 그것이 맹자와 같은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공자가 그러했듯이 그 혼자만의 힘으로는 변화시키기 어려운 것이라 여겼으리라. 하지만 창계는 천명을 즐겨워해야 하는 이유는 반드시 그 좋은 것을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직시했다. 그는 성현이 만나는 상황에 따라 늘 천명을 기뻐했으며 그것은 만나는 때에 따라 급급한 자신의 상황과는 별도로 그러한 마음을 견지했다고 파악했다.

이러한 자세는 당대의 책임을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自任意識'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생각은 당대의 경술을 통해 시대의 보익을 추구했던 포저 조익이나 서계 박세당에게서도 나타나는 것이다.

박세당의 경우는 군자의 憂世意識을 짚기도 했다.¹⁷⁾ 그러나 창계의

16) 林泳, 『滄溪集』卷22, 「讀書箚錄-孟子」, “當今之世, 舍我其誰. 蓋天未欲平治, 故舍孟子, 使不遇於世, 孟子不遇, 則天意可知. 天意既然, 則孟子亦何爲不豫哉. 蓋世道治亂天也, 聖賢雖汲汲於救世行道, 亦未嘗不隨遇而樂天也. 蓋乃斷置之言, 若必待, 天意未可知. 其具又在我, 庶幾其一行而後, 方無不豫, 則若到天意可知, 吾已矣之時, 終必不豫矣, 豈所謂樂天者哉.

17) 趙翼, 『孟子淺說』「公孫丑下」13章 “此章又以名世自任, 蓋天之生聖賢, 非使自有餘而

경우는 천명과 그 이루어진 역사에 대한 인식이 깊고 시대에 처하는 인간의 자세로서 더욱 곡진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나아가 창계는 빈부귀천의 추구하고 인의예지의 실천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처세를 비판하고 좀 더 인간세상의 실상에 나아가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개 ‘命’이란 한 글자는 바로 귀천과 빈부를 판단하는 公案이고, 부귀를 추구하는 데는 도가 있다는 것은 바로 중간에 또 나뉠대로 다시 曲折이 있다. 오늘날 사람은 부귀와 빈천이 자기 신상에 利害가 절실한 것을 보고 그만 나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여기고, 성현의 덕업이 숭고한 것을 보고는 이는 평범한 사람으로서 미치지 못할 바라고 여겨, 자신과는 천만리 멀리 있는 것처럼 여길 뿐만이 아니니 이는 매우 미혹된 것이다.

부귀와 빈천이 내 몸에 아무리 절실하다 해도 실로 내 마음대로 취하기 어렵다면 이는 내 능력 밖에 있는 것이고 본래 내게 속한 것이 아니며, 仁義禮智가 물욕에 가려 본래 없던 것 같으나 생각을 한 번 뒤우치게 되면 모두가 인의예지가 모두 나에게 있고 죽을 때까지 재주를 다하면 얻지 못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본래 내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라는 것을 전혀 생각지 못한 것이다.¹⁸⁾

‘富貴는 在天’이라는 생각과 부귀를 추구하는 방법에 대한 추구가 동시에 존재하는 현실을 직시한다. 창계의 말은 부귀의 추구를 추구하며

已, 將以補其不足者也。故聖賢之生於世也, 必汲汲以行道爲志, 以天下之治亂爲己任也, 於此兩章, 可見其自任之心也。”; 朴世堂, 『思辨錄』「公孫丑下」13章 “有以見自任之重自釋之寬。然所不豫者, 卒形於言語之外, 而不可謂無也, 則聖賢憂世之意, 其深矣哉。”
18) 林泳, 『滄溪集』卷22, 「讀書箚錄-孟子」 “蓋命之一字, 便是勘斷貴賤貧富之公案。求之有道, 乃是中間, 又自更有曲折也。今人見貴富貧賤, 於自己身上, 利害親切, 便認爲在我者, 而見聖賢德業崇高, 以爲此非常人所及, 其視之不管如千萬里之遠, 此甚惑也。殊不思富貴貧賤, 雖切於吾身, 而實難以吾心任意取之, 則是在外而本非在我者也。仁義禮智, 雖蔽於物欲, 直似本無, 而一念悔悟, 無不在是, 終身竭才, 無不可得, 是在我而本非在外者也。”

인의예지를 실천하는 데는 무심했던 보통 사람들의 인식을 근원에서부터 각성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반성적 시각은 이 『독서차록』이 단순히 경전의 知的인 해석에 그치지 않고, 시대와 호흡하며 당시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실천의 지향이 내함된 고심어린 17세기 조선 유학자의 진지한 성찰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5. 학문적 기초와 그 주변

창계는 지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온전히 실천해 낼 때 그것이 참된 학문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할 일은 오직 평소 책과 건문을 통하여 알게 된 의리를 익히고 궁구하여, 이것을 오늘날 내가 움직이고 응대하는 일상생활에 녹아들어 자리 잡게 하는 것이다. 存養을 독실하게 하여 사사로운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며, 점검을 면밀하게 하여 은미한 것도 빠트리지 않게 한다. 항상 性善의 뜻을 간직하여 잘못을 고치기에 반드시 힘을 다하며, 마음의 찌꺼기를 말끔히 씻어서 애초의 본성을 회복하며, 자신의 본분으로 응당 해야 할 일은 책을 펴서 읽지 않고도 행하는 것일 뿐이다.¹⁹⁾

창계의 학문은 건문한 의리를 일상생활에서 실천되는 것이다. 스스로 돌이켜 끊임없이 점검하여 아주 작은 일일까지 모두 적용하는 것이다. 性善의 뜻으로 개과천선하며, 수양을 통해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책으로 공부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도 자신의 본분으로 응당 할

19) 林泳, 『滄溪集』卷25, 「日錄-丙寅(1686)」“唯在溫習究極乎平日所知書冊見聞之義理, 融會湊泊於今日此身動靜應接之日用. 持養純篤, 不容於安排, 點檢密切, 不漏於隱細. 常存性善之意, 必盡矯治之力, 斷斷以消融查滓, 還復性初, 爲己分應行之事, 不待開卷讀書.”

일이라면 독실하게 실행하는 것이다. 이른바 그 스스로 목표한 대로 “학문은 다른 것이 없고 그 요체는 마땅히 해야 하는 모든 일을 번거로움을 견디며 애써 부지런히 하는 것”²⁰⁾이다.

그의 이러한 공부는 철저한 주자학 텍스트에 대한 독서에서 그 기초를 세운 것이다.

병오(1666)년 여름에 이르러 『朱子大全』을 보고 마음이 감발되어 마침내 학문에 몸을 바쳐 종사할 생각을 품었으며, 중요한 곳을 암송하고 실체를 깊이 연구하면서, 낮밤으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며 급급함을 버리지 않았던 기간이 수개월이 넘고, 『주자대전』을 모두 읽고 나서부터 『대학』을 읽어서 일 년의 노력을 들이고 나니 자못 학문에 익숙하게 된 것 같았다. 그 동안에 『朱子語類』와 『性理大全』과 『二程全書』 및 우리나라 퇴계와 율곡의 글에 이르기까지를 함께 읽고, 또 『근사록』과 『소학』을 읽고 모두 암송하였으니, 이때가 내 나이 스무 살로 무신년(1668)이었다. 이때 義理의 체계와 학문의 뜻에 대해 그 줄거리를 거의 모두 대략 알았고, 그 중간에 또 간혹 깨달음이 깊고 신묘한 경우나 가진 뜻이 매우 좋았을 때가 있었으니, 만일 이것들에 나아가 계속 연마하고 精進하기를 쉬지 않았더라면, 내가 오늘날 어찌 이와 같이 되었겠는가! 애석하고 애석하다.²¹⁾

그러니까 막 발간된 『주자대전』을 접한 퇴계가 그러했듯 창계는 18세에 『주자대전』을 읽고 학문에 뜻을 세웠으며, 그 책의 중요한 내용을 읽고 암기하면서 스스로 각고의 노력을 했다. 그리고 다시 『대학』을 1년에

20) 林泳, 『滄溪集』卷26, 「日錄-癸酉(1693)」 “學問無他, 凡事之所當爲者, 耐煩勤苦, 乃爲要道.”

21) 앞의 글 “及至丙午夏間, 因看朱子大全, 意有感發, 遂有委身從事之計, 默誦要處, 潛究實體, 晝夜刻苦, 憧憧不舍者數月餘, 因得盡看大全, 自此去讀大學, 費了一年工夫, 頗似熟爛, 其間兼看語類, 性理大全, 二程全書, 以及東方退栗文字, 又讀近思小學, 皆成誦, 此時年方二十, 戊申歲也, 義理體段, 問學意思, 幾乎皆略識梗槩, 而其中亦或有曉解深妙處, 意思極好時, 若就此接續加工, 精進不息, 則今日豈如此乎, 惜哉惜哉.”

걸쳐 정밀하게 읽었으며, 그 사이에 『朱子語類』, 『性理大全』, 『二程全書』, 퇴계·율곡의 글과 『근사록』과 『소학』을 암송했다. 스무살 때 스스로 의리의 체계와 학문의 뜻에 대해 대략 알았다고 자부했으니 학문적 기초에 대한 확립은 상당히 일찍 완성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스스로의 각고의 학습은 후학에 대한 지도에서도 이어졌다.

그는 후생들에게 먼저 四書에서 구한 다음 詩·書·禮·易과 春秋의 순으로 학습할 것을 지도했으며, 북송과 남송을 거치며 완성된 주지학에 학문이 모두 구비되어 있으니 지금부터는 쉬지 말고 그것을 탐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가르쳤다. 그리고 사물들을 모두 살펴야 할 것이지만 온갖 이치는 모두 마음 속에 있다고 하여 주자학적 수양론을 강조하는 학문방법론을 실천하라고 타일렀다.²²⁾

그러한 주자학적 학문 소양을 바탕으로 한 창계의 학문에 있어서의 궁극적 목표와 그 학문방법의 근거는 성현은 배워서 이를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었다. 그는 “성현은 반드시 배워서 이를 수 있다고 여겨서, 마음을 보존하고 이치를 탐구하기를 대상을 대할 때마다 잠시도 잊지 않는다면, 거의 근거할 바가 있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고 판단했다.²³⁾

창계가 목표로 설정한 성현이 되는 길은 마음을 보존하여 이치를 탐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창계는 그 궁극의 방법이 『심경부주』에서 강조된 ‘敬’의 실천에 있다고 생각했다.

22) 林泳, 『滄溪集』卷2, 「示學者」 “門路先從四子求, 詩書禮易及春秋. 濂洛關閩俱有述, 自今探討不宜休 …… 其問物物皆當察, 萬理都融方寸中.”

23) 林泳, 『滄溪集』卷26, 「日錄-己巳(1689)」 “要在以聖賢爲必可學, 存心玩理, 隨所接而不容暫忘, 則庶有所據而可進矣.” 이러한 학문적 저변에 대한 검토는 함영대(2019) 참조.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할 때의 방법은 다른 것이 없으니, 오직 이치를 밝히면 사물이 저절로 뚜렷해져서, 기거동작에 절도가 있게 되고 마음이 바르게 될 것이다. 이치를 밝히는 방법 또한 다른 것이 없으니, 오직 마음을 바르게 하면 知覺이 늘 밝아서, 사려가 쉽게 통하고 이치가 밝게 될 것이다.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하면서도 이치를 밝히지 않는 것은, 비유컨대 얇은 여울에 배를 띄우는 것과 같으니, 비록 자유자재로 오르내리기를 바라더라도 어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이치를 밝히고자 하면서도 마음을 바르게 하지 않는 것은, 비유컨대 눈을 감고 물건을 보는 것과 같으니, 비록 또렷이 살피기를 바라더라도 또한 어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格物과 致知 이후에 誠意와 正心이니, 치지를 하면서 敬을 하지 않는 자는 없었다.²⁴⁾

창계는 正心과 致知가 매우 깊은 상관관계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곧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은 이치를 밝히는 데서 시작하고, 이치를 밝히려면 마음을 바르게 하여 知覺을 밝혀야 한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순환논법이다. 그러나 格物致知 이후의 誠意正心を 논하고 있으므로, 굳이 그 선후관계는 따지면 格物致知를 앞세운 것인데 그 올바른 격물치지의 원천을 正心, 곧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으로 설정한 것이 흥미롭다. 창계가 그러한 사유의 귀결이자 실천의 핵심을 敬으로 정한 것은 그런 점에서 주의 길게 보아야 한다. 敬은 正心할 수 있는 이상적인 마음가짐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창계는 敬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마음이 온전히 보존된 상태, 곧 정심의 지속을 고투에 가깝게 추구했다.

24) 林泳, 『滄溪集』卷26, 「日錄-丁卯(1687)」 “欲正心之道無他, 唯明理則物則自著, 動靜有節而心得其正矣, 明理之道亦無他, 唯正心則知覺常昭, 思慮易通而理可以明矣. 欲正心而不明理, 譬如浮船淺灘, 雖欲沿洄自在, 豈可得也. 欲明理而不正心, 譬如合眼觀物, 雖欲照察了然, 亦何可得也. 故格致而後誠正, 未有致知而不在敬者.”

학술에서의 공통된 병통은 원래 마음이 끊어지는 데에 있는데, 나는 천성이昏弱하여 이 병통이 더욱 심하다. 마음이 보존되어 있을 때는 理와 義의 온전한 체가 흡사 밝게 구비된 듯하고, 보고 듣고 먹고 숨 쉴 때에 천지와 서로 통하는 것을 느껴서 털끝만큼도 사사롭거나 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서 성현의 언행을 묵묵히 생각할 때는, 친절함을 깊이 느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고, 아직 할 수 없는 것이라도, 한번 떨쳐나서면 이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느꼈다. 그런데 잠시라도 끊어짐이 생기면, 이런 생각이 한꺼번에 없어지고, 모든 세속의 범상하고 편협하고 더러운 생각이 또 생기지 않는 것이 없어서, 세상의 한 가지 곤은 절개와 한 가지 뛰어난 행실이 있는 사람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게 된다. 이 병통이 없어지지 않으면, 마침내 형편없는 소인의 경지로 떨어질런지도 알 수 없고, 이 병통이 실제로 없어지면, 성현의 경지라 하더라도 역시 배워서 이를 수 있는 방도가 없지 않을 것이니, 나의 일생의 成敗는 단연코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리라!²⁵⁾

보존된 마음을 지속하지 못하고 끊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학술의 공통된 병통인데 창계 자신이 昏弱하여 이렇게 하지 못하는 병폐가 있다는 고백은 매우 아프게 들린다. 보존되고 그렇지 않음이 현인이 되고 소인이 되는 것과 관련이 있으므로 창계는 이것을 일생의 성패가 달린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파악했다. 그러므로 그는 “처음 배움에 뜻을 두었을 때 이미 이 병통을 자각하여, 주자의 ‘이 마음과 이 이치는 원래 끊어짐과 이지러짐이 없다.’라는 말과 ‘하루 24시간 동안 항상 제대로 살펴야 한다.’라는 말 등을 깊이 음미하여 여기에 몸을 맡기고 마음에 새기고자

25) 林泳, 『滄溪集』卷26, 「日錄-散錄」 “學術通患, 固在於間斷, 余性昏弱, 此患尤甚. 當其存在時, 理義全體, 宛若明備, 視聽食息, 覺與天地相通, 不容有纖微私吝意. 就中默念聖賢言行, 甚覺親切, 或有行處便是之意, 其未能處, 亦覺有一撥可至之機矣. 纔有間斷, 一敗塗地, 凡世俗庸常偏狹汗濁之念, 又無所不有, 視世之有一節一行之人, 不及又遠矣. 此患不除, 遂陷入無狀小人之域, 亦不可知, 此患果除, 雖聖賢亦不無學以可至之道, 余之一生成敗, 斷在此矣.”

하였으며,²⁶⁾ 그 뒤에 張子の ‘三月不違와 日月至焉의 내외와 빈주의 구분을 알아 여기에 힘쓰고 정진하여 그치지 않게 해야 하며, 이것을 지난 단계는 거의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말을 보고는 감발됨이 더욱 깊어졌다.”고 토로했다.

자신의 약점을 막는 방법으로 “오직 이 마음의 끊어짐이 늘 무슨 일 때문에 생기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대하고 자주 해가 되는 일에 나아가 그 잘못된 점을 찾아내어 힘써 바로잡아야 하며, 비록 지금 당장은 그런 일이 없더라도 또한 미리 다스려야 한다”고 지목했다. 창계는 그것이 바로 ‘克己의 일’이라고 생각했다.²⁷⁾ 이처럼 그의 사상적 고투와 실천은 매우 고되고 값진 것이었다.

6. 남는 문제

실질과 절목을 향하는 창계 임영의 학자적 시선은 임진왜란(1592~

26) 창계는 18세에 『일록』을 작성하고 나서부터 모든 일상의 거취, 말과 행동을 기록했고, 사소하거나 미묘한 마음의 변화 등 글로 기록하기 어려운 것은 따로 날짜마다 동그라미, 점, 획을 긋는 방법으로 내일 자신의 행위를 점검했으며, 그 방법을 수시로 개정하며 엄밀하게 자신을 단속하였다. (권25, 『日錄-丁未(1667)』, “余既爲日錄, 凡日用動靜語言事爲, 皆記之. 又以小事不足煩記錄, 且心之微妙, 書不能文. 故別爲日旁圈點畫例, 每日點檢其所爲. 於心無不慊則圈, 無不欺則畫, 始慊終欺則圈而畫, 始欺終慊則畫而圈, 欺慊雜則點, 凡圈或大或小, 點與畫皆然, 欺慊有大小也. …… 又改圈點例, 比向者加嚴密.”

27) 앞의 글, “初向學時, 已自覺此病. 深味朱子此心此理, 元無間斷虧欠. 及十二時中, 常切照管等語, 而欲委身佩服. 後來見張子要當知三月不違與日月至焉, 內外賓主之辨, 勉勉循循而不能已, 過此幾非在我者之說, 感發尤深. 終是此患尙存, 自察病根, 固是昏弱之致, 亦緣在家汨沒, 聞見應接, 無非俗事, 故根本未立, 易得流徇而然也. 人之處勢雖各異, 亦無不可爲學之處, 要在做得透徹耳, 問者欲專就一事上習專一, 以頭容直爲法, 自是硬法, 亦不能持久, 要之去此患十分甚難. 當欲去此患之時, 此心固存, 非不專也. 及將間斷, 每是忘忽之頃, 并與欲去病之心而亡之, 雖欲預爲之法, 亦無奈何. 惟當深思此心間斷, 常因何事, 就其最重而數爲害者, 究見罪過, 力加矯治, 雖目下所無之事, 亦可預治, 此克己之事也.”

1597), 정묘호란(1627), 병자호란(1636)으로 이어지는 당대 상황에 비추어 정밀하게 반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기에 만회 권득기, 포저 조익, 서계 박세당 등은 맹자의 해석이라는 구체적인 국면에서 일반적인 관념론에 머무르지 않고 어느 정도는 논리의 진전을 이루었는데 창계의 경우는 논리에 그치지 않고 마음의 도야라고 하는 좀 더 진전된 측면으로 나아간다. 이는 상대적으로 텍스트의 교조화에 좀 더 치력했던 잠야 박지계나 우암 송시열의 경로와는 변별되는 것이다.

창계의 내면적 성찰의 두 경향을 살펴보면 理의 경로와 氣의 경로가 다리다. 이를테면 원리, 구조의 재확인과 강조의 일면과 실용과 효용, 효과의 중시 측면으로의 진전이 있다. 창계의 경우 心法과 事功의 구분 법과 그 융합적 지향으로서의 타개책을 모색하고 있는 국면을 보여주는 데 이는 조선 주자학의 진행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지점이다.

〈참고문헌〉

- 임 영, 『참계집』,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94.
 정동화 외, 『국역창계집』, 한국고전번역원, 2015.
 유형원 저, 임형택 외 편역, 『반계유고』, 창비, 2017.
- 김태년(2008), 「論思辨錄辨 의 浩然之氣論에 대한 고찰」, 『기전문화연구』 34, 인 천교육대학 기전문화연구소.
 문석윤(2009), 「조선 후기 성리학에서 맹자 호연장 논란과 그 의의」, 『한국문화』 47,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우경섭(2008), 「우암 송시열의 호연지기론」, 『동서철학연구』 48, 한국동서철학회.
 이영호(2020), 「참계 임영의 因文入道論 고찰」, 『민족문화』 56, 한국고전번역원
 조정은(2019), 「창계 임영의 개인 수양서로서의 『논어』 읽기」, 『한국실학연구』

37. 한국실학학회.

채희도(2016), 「율곡 공부론이해의 단초로서 호연지기론 연구」, 『율곡사상연구』 32, 율곡연구원.

함영대(2017), 「만회 권득기의 학술정신과 맹자참의」, 『한국사상사학』 55, 한국사상사학회; 함영대(2008), 「포저 조익의 학문관과 경학」, 『동방한문학』 34, 동방한문학회.

_____ (2019), 「창계 임영의 내면적 성찰과 경학 - 『일록』과 『독서차록-맹자』를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37, 한국실학학회.

_____ (2022), 「부부는 인류의 시작이고 만복의 근원이다」, 『퇴계학 아카데미』 봄강연 3 (<https://www.youtube.com/watch?v=TuzKrnX2Xfo>)

A Shift of Interest to the Inner Side of Gyeonghak
in Joseon in the 17th Century:
In the Case of Lim Yeong (1649~1696) in Changye

Ham, Young-dae *

This This thesis examines the interests of Chang-gye Imyeong's commentary on the scriptures. It is an attempt to examine the transition of interests of Confucian scholars in Joseon in the 17th century and its significance in the history of Confucian studies. Im Yeong of Changye is a Joseon Neo-Confucianist who is noteworthy in the 17th century for his sincerity in practice and the appropriateness of theory.

As a result of the review, he deepened his study of Neo-Confucianism and tried to practice it earnestly in everyday life, which was the practical settlement of his basic attitude of life and serious academic efforts. This inclination of academic criticality, which emphasizes inner awakening and practice, has a characteristic of the times that is well displayed in the 17th century in the case of Manhoe Kwon Deuk-gi and Pojeo Jo-ik. It is presumed that the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political upheaval and Neo-Confucianism experienced during the reigns of Gwanghaegun and King Injo became factors that further deepened this academic direction.

However, the most important variable is also judged to be due to the deepening of the self-consciousness of the individual commentator. In this article, it was reviewed focusing on the aspect of the 17th century Joseon scholars' academic awareness of the problem being converted to the inner side.

Chang-gye Imyeong's scholarly gaze, conscious of substance and cut-off,

* Professor,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 E-mail: ydham@gnu.ac.kr

needs to be ruminated precisely in light of the contemporary situation leading to the Imjin War (1592~1597), the Jeongmyo Horan (1627), and the Byeongja Horan (1636). During this period, Manhoe Kwon Deuk-gi, Poje Jo-ik, and Seogye Park Se-dang did not stop at general ideology in interpreting the scriptures, but made logical progress in specific aspects. showed successful results. This is different from the paths of Janya Park Ji-gye and Uam Song Si-yeol, who were relatively more devoted to the dogmatization of the text.

In the case of Chang-gye's introspection, there is progress toward the reconfirmation and emphasis of structure and the emphasis on practicality, utility, and effectiveness. In the case of Changgye, it shows the way to distinguish between Simbeopsimbeop and Sagongsajik, and the phase in which a breakthrough is sought as a fusion goal, which is an important point that cannot be overlooked in the progress of Neo-Confucianism in Joseon.

Key Words

Joseon in the 17th century, Chang-gye Imyeong, inward inclination, commentator's attitude, simbeop and boatman

논문접수일: 2023. 5. 21, 심사완료일: 2023. 6. 9, 게재확정일: 2023. 6. 30.

乃菴 崔左海의 『孟子竊意』 研究

이동학 **

-
1. 서론
 2. 최좌해의 『孟子』 해석
 - 1) 關異端 의식
 - 2) 군신관계의 균형 추구
 - 3) 仁義禮智의 실천적 해석
 3. 결론
-

■ 국문요약

본고는 내암 최좌해의 『맹자절의』에 나타난 해석을 성호학과 『맹자』 해석과의 관계성 속에서 조명하였다.

최좌해의 삶은 관직 진출을 하지 않고 향리에서 강학에 집중한 처사적 삶이었고, 성호학과 및 낙론계 인물들과 교류하였으며, 그 중 학문적으로 안정복 계열에 가까웠다.

최좌해 경서해석 태도는 『맹자절의』에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를 벽이단 의식, 군신관계의 균형 추구, 仁義禮智의 실천적 해석이라는 주제 속에서 살펴보았다. 특히 인의예지의 해석은 동아시아에서도 희소한 사례이자 다산 정약용의 해석에도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본고는 18세기 강원 유학사에 최좌해라는 인물이 존재하였고 성호학과 인물들과의 교류 속에서 『맹자절의』라는 유의미한 해석서

*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한문학전공 박사과정 / E-mail: lee98dhk@naver.com

가 나타났음을 보이고자 하였다.

주제어 : 최좌해, 성호학파, 孟子, 孟子竊意, 강원도

1. 서론

본고는 乃菴 崔左海(1738~1799)의 삶과 학문을 조명하고, 『맹자』 주석서인 『孟子竊意』에 담긴 『孟子』 해석상의 특징과 그 학술사적 의미를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최좌해는 18세기 강원도 춘천의 인물로, 과거를 통한 관직 진출을 추구하지 않고 오로지 학문과 강학에 힘쓴 인물이었다. 현재 전하는 최좌해의 저술은 『五書古今註疏講義合纂附竊意 - 論語』 40권 10책과 『五書諸註竊意』 16책, 문인들과의 강의록인 『龍巖書齋講義退錄』 22권 11책·『龍巖書齋日講記』 1책·『退錄』 9책이 있고, 조선·중국·일본의 학설을 회집하고 按設을 부기한 『禮經考』 2권 1책·『雜錄』 6책·『雜識』 2책¹⁾이 있으며, 그의 문인들에 의해 수집된 『乃齋遺稿』 9권 3책, 연보인 『淵正先生遺事』 1책²⁾이 전한다.

최좌해의 인물관계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우선 그의 학맥은 노론 낙론계로 알려져 있다.³⁾ 실제로 그의 연보에 미호 김원행에 수학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그의 아들 김이안과도 인성과 물성에 관한 토론을 하였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그가 노론 낙론계 학맥인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우선 본고

1) 이상 8종은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이다.

2) 이상 2종은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이다.

3) 허권수, 「맹자질의 해제」, 『한국경학자료집성』 4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0.; 최석기, 『한국경학가사전』,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8.

에서 다룬 『맹자절의』에는 조선 학자의 서적으로 『맹자절서』가 유일하게 인용되어 있다. 한편 최좌해의 제자로 들어온 황인득은 황덕길의 재종숙인데, 최좌해의 누이와 혼인하였다. 황덕길은 안정복의 제자이고, 최좌해의 『잡록』에 안정복의 글을 수집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볼 때, 안정복과도 직접적 혹은 간접적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⁴⁾

이처럼 방대한 저작을 지니고 있고, 노론 낙론계 및 성호학과 인물들과 폭넓게 교류한 전적이 있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최좌해에 대한 선행 연구는 학술지 논문 1편과 학위논문 2편이 전부이고 그 외에는 논문에서 인용되거나 해제 자료에서 간략히 소개되었을 뿐이다.

해제를 제외한 선행 연구는 최좌해의 『논어』⁵⁾ 및 『맹자』⁶⁾에 한정되어 있다. 그 이유는 최좌해의 경학에 대한 연구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고⁷⁾, 경전 해석의 관점과 특징, 학문적 연원 등을 도출하기 위해 『논어』와 『맹자』 등 사서 중 분량이 상대적으로 긴 서적에 대한 주해서를 검토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현재 최좌해에 대한 연구는 선행 연구들로 인해 그 토대가 비로소 갖추어졌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좌해 경학의 전후관계를 보여

4) 이동학(2023) 참고.

5) 김효동, 「내암 최좌해의 논어 해석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6) 나중선, 「내암 최좌해와 그의 경학」, 『동방한문학』 33, 동방한문학회, 2007; 이동학, 「내암 최좌해의 맹자학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3.

7) 나중선(2007)은 내암 최좌해의 경학을 『맹자절의』를 중심으로 최초로 연구하였다. 다만 그 특징의 파악에 있어서 '주자의 해석을 벗어난 독자적 해석 추구' 등으로 분석하였는데 이는 저자가 인정하였듯 내암 최좌해에 대한 연구성과가 축적되어 있지 않은 데서 기인한 것이었다. 김효동(2012)은, 그가 춘천에서 문인들을 양성하였던 삶의 전반기와 『논어』 해석을 전반적으로 다루었다. 이동학(2023)은 김효동(2012)에서 다루지 못한 최좌해의 인적 네트워크를 보강하고, 『맹자』 해석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다만 언급된 세 연구 모두 내암 최좌해의 인적 네트워크 및 문인집단의 실체를 밝혀내지 못하였고, 최좌해의 방대한 저작에 비해 연구대상이 된 주 텍스트가 『맹자』 및 『논어』 등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최좌해의 경학 전반에 대한 연구로 아직 확장되지는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줄 수 있는 『맹자절의』에 나타난 해석을 검토하고자 한다.

『맹자절의』는 18세기 조선의 학문 전파와 수용 양상, 그 중에서도 성호학의 영향력을 보다 세밀하게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맹자』는 성호학과 문인들의 문제의식을 심도있게 살펴볼 수 있는 서적이다.⁸⁾ 이에 『맹자절의』에 『맹자질서』 혹은 여타 성호학과 문인들의 관점이 어느 정도 수용되었는가, 학문의 전달 과정에서 어떠한 변주가 일어났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강원도 문인인 최좌해 경학의 전후관계, 나아가 성호학과 경학의 밝혀지지 않은 일면을 조명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이에 본고는 『맹자절의』를 성호학과 『맹자』 해석과의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하고자 한다.

2. 최좌해의 『孟子』 해석

본 절은 최좌해의 『맹자』 해석 태도를 關異端 의식, 균형적 군신관계의 추구, 仁義禮智의 실천적 해석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하고자 한다. 이는 최좌해와 성호학과의 관계를 고찰하고 『맹자절의』에 보이는 변별점은 무엇인지를 알아볼 것이다.

본격적인 『맹자』 해석 태도를 고찰하기 전, 최좌해의 경서 해석 태도는 어떠한지를 간략하게 보고자 한다. 최좌해는 19세부터 경문을 중심으로 스스로 本意를 탐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고,⁹⁾ 自得의이라 할

8) 함영대, 『성호학과의 맹자학』, 태학사, 2011, p.17, “성호학과 내에서 경학 탐구 대상으로 『맹자』는 뚜렷하고 확고한 위상을 지녔다고 하겠다. 아울러 『맹자』가 가진 다양한 문제의식은 성호학과 내에서 이루어진 경학 의견의 계승과 변이를 그 어느 경진보다도 풍부하고 흥미롭게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9) 『淵正先生遺事』卷1, 「年譜」, “先生年十九歲, 先生嘗自謂, 凡諸經旨得不難, 非眞, 得不眞. 傳箋註訓釋, 皆先儒之先我所自解者. 先儒學者, 我學者, 我所傾在其得耳眞傳耳. 遂揜註去讀, 自究正文, 盡釋其義, 然後合而考之, 則異同互濟, 概相脗合.”

수 있겠다.¹⁰⁾ 이러한 자세는 문인집단에게도 계승되어 훈고와 강설의 한계를 지목하고 경문의 본지를 밝히고자 한 해석 태도로 이어졌다.¹¹⁾

그렇다면 최좌해는 『맹자』의 본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아래의 3가지 주제를 통해 고찰할 것이다.

1) 闢異端 의식

① 西學에 대한 배척

최좌해의 활동 당시인 18세기의 학적 배경을 살펴보면, 문인들 사이에 천주교가 널리 전파되고 있었다. 성호학파의 문인들은 천주교를 수용한 권철신·이벽·정약용 등과, 천주교를 배척한 안정복·황덕길 등으로 나뉘어지기도 하였다. 최좌해의 성향은 안정복 계열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맹자』 「등문공하」 9장에 대한 해석에도 반영되었다.

육상산 이래로 일찍이 장례를 간단히 지내고, 삭발 및 검은 옷을 입는 등의 일을 일삼지 않음이 없어서 급하게 이단을 배척하였는데 반드시 죄를 인정하지 않았으니 이는 다만 우리 유자 가운데 이단에 오염된 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저들이 오히려 능히 스스로 그 설을 꾸미고 세상에 창궐하여 마땅히 한 때의 미혹을 꾸짖지 않고, 도리어 마침내 엄연히 스스로 유자라고 하나 실제로는 쉬지 않고 이단의 설을 꾸미고 부회하였으니 어찌 吾門의 해충이자 도적을 이끌어 모해하는 자가 아니겠는가? ... 불교에 이르면 과연 양주보다 묘하고 목적보다 크다. 그러나 이른바 스스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도리어 행하여 얻지 못함이

10) 『雜錄』 1, 「貢助徹辨」, “遂疑孟子經世之論竊所未安, 後之學者宜莫如善究本旨, 而得隱貼爾, 恐不害爲補贖朱子之道也.”

11) 『五書諸註竊意』, 「序例」, “聖門微旨, 常患莫察. 辭約者不得闡其妙, 語長者不得領其要, 訓詁者後而眩亂其眞, 講說者後而漫漶其神. 使其本旨因之晦墮, 則是有書而等無也.”

있는 것이고, 이른바 보시라는 것은, 도리어 실재가 없는 것이니 이는 사람을 미혹되게 하기에 부족하다. 오직 허무·적멸의 논의만이 현란하고 고명하며, 화·복의 두려움은 우매함을 움직여 떳떳한 본성과 향상된 도를 지키지 못하게 하니 진실로 기만하는 것이므로 싫어할 만하다. 오늘날 예수의 설에 이르러 더욱이 그 뒤에 나와 공교함이 더한 것이다. 이적과 금수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수 있음이 이에 이르러 세차다.¹²⁾

최좌해는 육상산과 불교, 예수를 이단으로 보고 엄격하게 배척하는 태도를 보인다. 육상산이 나타난 이후 그들은 겉으로는 유학자인 척하며 속으로는 건강부회하여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보았으며, 吾門의 해충이라고까지 혹평하였다. 불교에 대해서는 사람을 미혹되게 할 정도는 아니나 기만함이 있어서 배척할 대상으로 보았다. 예수의 설은 그 뒤에 나와 더욱 교묘하다고 하였다.

이를 안정복이 천주교를 바라보는 관점과 비교해보면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서양의 서적이 연경으로부터 동방으로 마구 들어와 정도를 해칠 조짐이 크게 있었다. 이에 선생은 「천학교」와 「천학문답」을 지어 근원을 연구하고 시비를 판별하여 분명하게 이를 막았다. ... 말하기를, “도가에서 노자를 존경하는 것이나, 석씨들이 석가를 존경하는 것이나, 서양 사람들이 예수를 존경하는 것이나, 그 뜻은 다 한 가지이다. 서학은 뒤에 나왔으면서도 도가나 석씨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가장

12) 『孟子竊意』, 「滕文公」第9章, “自象山以下, 既未嘗有不仕薄葬, 削髮衣緇等事, 則遽斥之異端, 必不肯服, 此只算吾儒中漫染於異端者耳. 然彼猶能自文其說而跳踉於世, 則不啻只責其一時之感, 却乃儼然自以爲儒, 而其實於異端之說粧撰付會之不暇者, 豈非吾門中孟賊而引賊之媒孽乎? ... 至於釋道, 則果是妙於楊朱大於墨翟, 然其所謂自潔者反有行不得者, 其所謂普施者反無實落處, 此不足以惑人, 而惟以虛寂之論眩亂高明, 禍福之怵恐動愚蒙, 使之不能守秉彝之性雅常之道, 誠爲誣罔而可惡矣. 到今耶穌之說, 尤其後出而愈巧者也, 夷狄禽獸之可以惑人者, 到此爲烈.”

높은 천주를 내세워 제가들로 하여금 아무 소리도 못하게 하니 그 계책이 교묘하다.”¹³⁾

예시로 든 글은 황덕길의 『하려집』에 수록된 「순암선생행장」으로 안정복의 도가, 석가, 서학에 대한 관점이 나타나 있다. 도가든, 석가든, 서학이든 뜻은 대양 같으나 서학이 그 중 나중에 등장하여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자 天主라는 절대적 존재를 내세웠으니 그 계책이 교묘하다고 하였다. 서학에 대한 안정복의 언급과 최좌해의 ‘예수의 설’에 대한 평가는 가장 나중에 나타났으면서도 교묘하다고 한 점에서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關異端 의식의 반영

최좌해는 벽이단의 관점을 「공손추상」 2장에 적용하여 해석하고 있다.

이는 또한 맹자가 공자의 치밀한 뜻을 계승한 것으로, 위로 옛 성인을 계승하고, 회통하여 공으로 삼지 않는 곳이 없었다. 그 진실한 공부의 큰 법도는 知言등의 章에 있으니 여기에서는 상세히 설명하지 않는다.¹⁴⁾

이상은 「등문공상」 9장을 요약하는 최좌해의 언급으로, 최좌해는 맹자가 공자의 정밀한 뜻을 이어 옛 성인의 도통을 이어받았고 도통의 큰 법도는 ‘지언’등의 장에 있다고 하였다. 즉 최좌해는 도통의 핵심을 「공

13) 『下廬集』, 「順菴先生行狀」, “先是西洋書, 自燕肆闖入東方, 大有害正之漸. 先生著天學考, 天學問答, 究源委証是非, 闢之廓如也. … 其言曰, 道家尊老君, 佛氏尊釋迦, 西士尊耶穌, 其義一也. 西學後出, 欲高於二氏, 托言於無上之天主, 使諸家莫敢誰何, 其意巧矣.”

14) 『孟子竊意』, 「滕文公」 第14章, “此又是孟子所以承孔聖底微密精義, 得以上承前古之聖, 無不會統爲功處也. 其實工大法, 則具在知言等章, 此不詳說也.”

손추상」 2장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과연 최좌해만의 독자적인 견해일까?

知言은 벽이단의 요체이다. 제4편의 호변장은 知言이 처음이자 끝이다. 그래서 ‘양묵을 물리치고 음란한 말을 막아 사특한 주장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마음에서 일어나 그 일에 해를 끼치고, 일에서 일어나 그 정사에 해를 끼치니 성인이 다시 일어나도 나의 말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라 하였으니 이 절의 말과 부합함을 볼 수 있다.¹⁵⁾

인용문은 이익의 『맹자질서』 「공손추상」 2장에 제시된 것으로, 이익은 ‘지언’이 벽이단의 요체이고, 이단사설의 배척을 설명하는 호변장의 요체 역시 ‘지언’에 있다고 하였다. 양주와 묵적의 말을 잘 알기에 그들의 사특한 주장이 일어나지 못하게 애초에 배척한다는 것이다. 『맹자질서』의 「등문공」 또는 「공손추」에 『맹자질서』가 직접 인용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최좌해가 이익의 저작을 접하고, 『맹자질서』를 참고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최좌해가 ‘지언’을 성현도통의 핵심으로 본 것은 『맹자질서』로부터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최좌해는 ‘지언’을 해설하며 어떻게 도통의식을 투영하고 있는가?

『주자어류』에서 말하기를, 말은 다만 도리와 같다.

〔竊意〕이 절은 반드시 마땅히 言字, 心字, 氣字의 명목과 분계를 먼저 변별해야 하고, 명확하게 발명한 연후에 고자의 고자됨을 알 수 있다. 고자를 알게 되면 바야흐로 맹자가 변별하여 보인 뜻이 지극히 정

15) 『孟子疾書』, 「公孫丑上」 第2章, “知言者即辨異端之要也. 第四篇好辯一章, 乃知言始末. 其言曰, 距楊墨放淫辭, 邪說者不得作. 作於其心, 害於其事, 作於其事, 害於其政, 聖人復起不易吾言矣. 與此節之言符合, 可以見矣.”

밀하고 순수함을 알게 된다. 말이라는 것은 다만 범범하게 도리를 지칭하는 것인데 도리를 어째서 말이라 하는가? 무릇 학자들이 강마하고 토론하는 것은 다만 의리이고, 이 말로 나아가면 장차 이것이 흡사 수준기처럼 (의리에 맞게) 얻기를 요하니 그러므로 반드시 그 감당하는 주지치를 논하여 마음(心)이라 하고, 또한 반드시 그 감당하는 골간치를 논하여 기(氣)라고 하였다. 무릇 군자가 감당하는 바의 주의와 골력이 매우 크고 어려운 것은, 바로 이 말한 바의 양을 다하여 남기는 것과 흠결이 없기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군자가 잡고 기르는 바는 반드시 이 주의를 귀하게 여김에 있으니 반드시 마땅히 이 골력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도는 반드시 삼가야 하니 말한 바의 의리상에서 정밀하게 택하는 것이 있어야 하고, 끝내 마땅히 이 주의를 이 도리에서 세우고, 이 골력을 이 도리에서 사용한 뒤에 우리 성문 가운데의 樣法과 致法이 거의 어긋남과 흠결이 없게 된다. 고자는 그렇지 않았으니 자못 이룬 바가 없어 부끄러워할 줄은 알았으나 의리가 밖에 있지 않음은 알지 못하여 그러므로 말한 바가 본디 반드시 양을 다하지 않았으니, 생각건대 어찌 반드시 말의 양을 다하기를 마음으로 삼았겠는가?16)

최좌해는 ‘말’에 대한 『주자어류』의 견해에 따라 논지를 전개해 나간다. 말은 곧 도리이고, 학자들이 토론하는 것은 의리일 뿐이므로 말이 반드시 의리에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최좌해는 성문의 법, 즉 동통의 법칙을 제시하였다. 말은 곧 도리 자체이므로 도리를 남김없이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자의 말은 도리를 전부 담고 있지 않

16) 『孟子竊意』, 「公孫丑(2)」第2章, “語類曰, 言, 只似道理也. 竊意, 此節必須先辨箇言字, 心字, 氣字名目分界, 清楚發出, 然後可以識得告子之爲告子. 識得告子, 方知孟子所爲辨示之旨至精純也. 夫言者, 只是泛指道理之稱, 道理何以謂之言也? 凡學者之講磨討論底, 只是義理. 而就斯言也, 要將承當此有以恰得如準, 故必論其承當底主持處而曰心, 又必論其承當底骨幹處而曰氣. 凡君子之所承當底主意骨力所以許大許難者, 正以其要盡此所言之量無遺無欠也. 故君子之所持養, 必貴在此箇主意, 而必須用此箇骨力爾. 道必慎之, 在所言底義理上精擇者, 爲終當立此主意於此箇道理, 而用此骨力於此箇道理, 然後吾聖門中樣法致法庶無差欠耳. 告子則不然, 頗知無所成之爲恥, 而不知義理之非外, 故謂所言底本有不盡之量, 顧何必盡言量爲心乎?”

때문에 도통에서 어긋나 맹자가 변별하였다는 것이다.

말로 도리를 전부 말하지 않는다면 이단이라는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知言 중 말(言)을 도통의식 속에서 해석하고, 이단으로 배척해야 하는가, 아닌가에 대한 하나의 기준점으로 삼고 있다.

『맹자절의』에 나타난 해석을 통해 보았을 때, 최좌해의 벽이단 의식을 형성한 요인에는 이익과 안정복이 있었다. 이익으로부터는 벽이단의 요체가 '지언'이라는 관점을, 안정복으로부터는 서학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흡수하였다.

2) 균형적 군신관계의 추구

『맹자』에 나타나는 쟁점 중 하나는 군신의 관계로, 군주는 신하를 함부로 대우해서는 안 되고, 만약 군주가 잘못되었다면 군주를 바꿔야 한다는 다소 급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 기저에 담긴 사상은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백성들이 가장 귀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좌해는 군신관계의 균형, 즉 군주를 바꾼다는 개혁적인 태도에 비해 군신간의 안정적 상하질서의 유지를 추구하면서도 그 목적은 백성들의 안정적 삶에 있다는 爲民論을 절충하였다.

① 군신관계의 안정성 중시

최좌해가 중시한 것은 군주와 신하, 백성으로 이루어진 상하질서의 유지이다. 이는 『맹자』 「진심하」 14장 '民爲貴'에 대한 견해에서 나타난다.

[竊意] 군주가 귀중한 까닭은 사직을 주재하기 때문이며, 사직이 중요한 이유는 백성을 기르기 때문이다. ... 그 순서와 가벼움의 이치를

말하여 바로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까닭을 밝힌 것이다. 이에 만약 맹자가 견해를 밝힌 것이 다만 군주가 마땅히 가벼워야 한다고 말한 것이라면 또한 실체를 잃을까 두렵다.

○ 혹자는 의심하기를, “백성이 귀하고 군주가 가볍다는 설은 신하가 군주를 업신여기는 마음을 계도하지 않는 것인가?”

[竊意] 맹자가 다만 군주된 자로 하여금 군주된 까닭을 알게 한 것으로, 그 직분을 다하게 한 것이니 어찌 일찍이 군주가 군주답지 못하면 신하된 자가 바꾸어 둘 수 있다고 한 것이겠는가? 그러므로 문장에서 다만 ‘제후가 사직을 위태롭게 하면 바꾸어 둔다’라 하였으니 천자만이 바꾸어 둘 수 있음을 명확히 말한 것이다. 다른 곳에서 ‘오직 법관만이 죽일 수 있다’라 하지 않았는가? 무릇 신하가 군주를 섬기는 의리를 말함이 어찌 이리도 엄절한가!¹⁷⁾

최좌해가 중시한 것은 군주와 사직으로 대표되는 통치질서 그 자체이다. 사직과 군주를 바꾸는 이유는 그들이 백성보다 가벼워서 함부로 대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다. 사직이 위태로우면 백성을 기를 수 없는 상황에서, 최좌해는 ‘군주의 교체’가 아니라 사직과 군주의 직분에 방점을 두었다. 民爲貴를 말한 목적은 군주다움을 알게 하려는 것으로 본 것이다.

신하가 군주를 교체한다는 ‘방벌장’에 대하여 최좌해는 경문의 해설에

17) 『孟子竊意』, 「盡心」第60章, “退錄曰, 爲斯民立社稷, 爲社稷立之君, 莫重乎君, 所爲以立之君者, 顧不重與? 莫貴乎社稷, 所爲以立社稷者, 顧不貴與? 故曰, 民爲貴, 民爲貴者, 天意然也. 故曰, 民爲貴, 民爲貴者, 天意然也. ○竊意, 原夫變置社稷底本意, 只緣於事神上, 或恐有未盡故耳. 今犧牲則成矣, 粢盛則潔矣, 祭祀則時矣, 而猶未蒙佑神保佑, 或者於壇壝封樹上, 有未協於神亘者矣. 所以變置者, 庶幾改圖, 以副神心耳, 則與變置諸侯之意均乎, 不是輕忽, 可改而改也, 爲所重者君位, 則或恐使非人忝所重之位也, 爲所重者神, 則亦恐使非物瀆社稷之神也, 夫變置社稷, 本不爲罪其神而然, 亦如變置諸侯之本, 不爲忽君位而然也, 則何必疑到變其所祭之神乎? 變置正所以重之也, 則今乃以可變置明其次輕之禮者, 何也? 竊意, 君之所以重者, 以其主社稷耳, 社稷之所以重者, 以其養民人耳. 言其次輕之理者, 正以明此二者所以重之故也. 因此若謂孟子發意竟, 只在君所當輕云爾, 則恐亦失實. ○或疑, 民貴君輕之說, 得不啓人臣慢君之心乎? 竊意, 孟子只使爲君者, 知所以爲君之故, 而盡其職焉耳, 何嘗云君不君, 則爲臣者可以變置乎? 故文只言諸侯危社稷, 則變置者, 明其有天子可以變置云爾. 他處其不曰, 惟士師, 可以殺之乎? 凡言臣事君之義, 何許嚴切!”

그칠 뿐 별다른 견해를 제시하지 않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최좌해는 신하는 신하답게, 군주는 군주답게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백성을 위한 길이라 보았고, 그 전제는 군신간 균형의 유지이다.

이는 안정복의 군신관과도 일맥상통한다. 안정복은 군주를 천리로, 신하를 인육으로 비유하며 그 층위를 엄격하게 구분하였다. 아무리 인육이 방사하고, 제후들이 전횡하더라도 천자가 존재한다면 바로잡을 수 있다고 하였으니, 그가 중시한 것은 천자의 존재 자체이며 신하가 감히 쫓아낼 수 없는 것이다.¹⁸⁾

한편 『맹자질서』에는 방벌장에 대하여 천하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친척도 배신했기 때문에 ‘한 사내’라 하였고, 이미 천하에 군주노릇을 할 수 없는 ‘한 사내’인 주를 무왕이 천명으로써 토벌했다고 하였다. 이는 윗 장에서 형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 신하들이 이반하는 것을 논하였고, 여기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환난을 심히 말하여 경각심을 주려는 의도로 표현했다고 하였다.¹⁹⁾

이는 다소 과격해 보일 수 있는 맹자의 발언의 위험성을 완화시키면서도 그 주장 자체는 그대로 견지하려는 의도이다.²⁰⁾ 그러나 최좌해는 방벌 자체에 대한 어떠한 견해도 남기지 않았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그의 견해는 안정복에 가까우면서도, 군주와 신하를 천리와 인육으로 구분한 안정복의 엄격성에서 다소 완화되어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을 다하는 직분의식으로 풀어냈다.

18) 『順菴集』, 「經書疑義孟子」, “君譬之天理也, 臣譬之人欲也。人欲雖肆, 一分之天理未泯, 則當因其未泯者而接續之。諸侯雖橫, 一日之天子猶存, 則當因其猶存者而匡扶之。奈何因天下陷溺之見, 遂波而同之乎。又古人以君喻父, 以臣喻子, 父雖愚駘, 子不可以遽逐而代其家也。”

19) 『孟子疾書』, 「離婁下」第3章, “故曰一夫, 一夫則無親戚, 臣庶, 既不能君主於天下, 而武王實承天命, 行天討。故曰聞誅一夫紂矣, 未聞弑君也。然孟子此言, 亦有爲而發也。上章既論刑殺之不中, 而臣庶之離畔。此又甚言一夫無助之患, 以警覺之。”

20) 함영대, 『성호학파의 맹자학』, 태학사, 2011, p.237.

② 『孟子疾書』 爲民論의 수용

최좌해는 안정적인 군신관계의 유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백성을 위하는 것이 그 목적임을 분명히 하였다.

[竊意] ‘은택이 백성에게 내려짐(膏澤下於民)’ 한 구는 ‘상복으로 갈아입는(反服)’ 의리와 무슨 관계인가? 이에 필시 그것을 말함은 바로 군신이 일체로써 응당 옷을 입는 까닭을 알지 못한 것이다. 무릇 군주가 신하를 구함은 명령에 대비하고자 해서가 아니요, 장차 그와 더불어 백성을 윤택하게 하고자 해서이다. 신하가 군주를 섬기는 것은 녹위를 사치하고자 해서가 아니요, 장차 그를 보좌하여 백성을 윤택하게 하고자 해서이다. 백성에게 은택을 입히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이른바 간언이 행해지고 신하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혹 기미가 서로 함하여 창화하듯 하나 만약 일하는 바가 사사로이 친함, 공명과 이욕 등의 작위에 불과하다면 명색이 비록 군신이나 당일 뿐이다. 이 때문에 ‘은택이 백성에게 내려짐’ 한 구는 곧 군신의 실제로, 간언이 행해지고 신하의 말을 들어줘서 그것을 얻게 된다. 무릇 정사는 도리의 대업을 공적으로 한 것이요, 군신은 이 정사의 큰 인륜을 함께 하는 것이다.²¹⁾

해당 단락을 보면 군주가 신하를 구하는 것은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신하가 군주를 섬기는 것은 작위와 봉록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백성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지닌다. 군주와 신하가 합이 잘 맞더라도 사적인 일과 공명·이욕에 매몰된다면 그것은 당파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21) 『孟子竊意』, 『離婁』 第31章, “竊意, 膏澤下於民一句, 何關於反服之義? 而於此必言之也, 不知此正所以君臣一體應服之故也. 夫君之求臣, 非欲備使令也, 將欲與之澤斯民耳, 臣之事君, 非欲侈祿位也, 將欲輔之澤斯民耳. 故不言膏澤, 則所謂諫行言聽者何事? 其或氣味相合, 如倡如和, 而若所事不過私媿功利等作爲, 則名雖君臣, 而黨焉已矣. 是知膏澤下於民一句即君臣之實, 而諫行言聽之得之也. 夫政事者, 所以公人道底大業, 君臣者, 所以共此政底大倫.”

이에 백성들에게 은택을 내려주는 것이 군신관계의 실제이며, 군주가 신하의 간언을 행하고 조언을 잘 들을 때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정사는 사람의 마땅한 도리를 공적으로 펼친 것이고, 군주와 신하는 백성에게 은택을 입히는 큰 인륜의 실천주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최좌해 본인의 견해가 아니라 이익의 견해를 수용한 것이다. 『맹자질서』를 인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별도의 인용표시 없이 몇 글자만 바꾸고 뒤에 본인의 견해를 덧붙여 ‘절의’에 포함시킨 것이다.²²⁾

한편으로 앞서 언급하였듯 최좌해에게 군신 상하질서 유지의 목적은 백성을 위함에 있었다. 이는 백성에게 은택이 내려가야 한다는 견해와 일맥상통한 것으로 『맹자질서』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하겠다.

최좌해의 군신관은 군신관계의 안정적 유지를 통해 백성의 삶을 위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 속에서 신하에 의한 군주의 교체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그러면서도 『맹자질서』의 위민론을 수용하여 목적이 민생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다소 보수적이고 경직적일 수 있는 안정복의 엄격한 군신 상하관계를 완화시키면서도, 균형 속에서 민생을 꾀한 절충론이라 하겠다.

3) 仁義禮智의 실천적 해석

맹자는 인간의 선한 마음을 ‘남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不忍人之心)’으로 표현하였고, 이를 구체적으로 측은, 수오, 사양, 시비의 사단을 통해 설명하였다. 또한 이를 각각 인, 의, 예, 지의 단서로 설정하였

22) 『孟子疾書』, 「離婁下」第3章, “膏澤下民一句, 於反服之義, 是甚緊要。君臣有服, 爲君臣故也, 奚爲而有此君臣? 君之用臣, 非欲備使令也, 將使之治民也, 臣之事君, 非欲貪祿位也, 將輔之治民也。不言膏澤, 則所謂諫行言聽何事? 其或君臣氣味相得, 諫行言聽而所事不過一切功利之私, 則名雖君臣, 而黨而已矣。是以膏澤下民即君臣之實也, 諫行言聽之律令也。”

다.²³⁾

여기에서 ‘端’자의 의미를 두고 해석의 분기가 발생한다. 주자의 경우, 端을 실마리(緒)로 해석하여 사단은 인의예지의 단서이므로, 인의예지는 본성(性)이고, 사단은 이것이 발현된 감정(情)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사단과 인의예지는 모두 인간의 마음에 존재한다는 심통성정(心統性情)을 주장하였다.²⁴⁾

그러나 최좌해는 인의예지를 보다 실천적 관점으로 보고자 하였다.

만약 사람이 때때로 반드시 이 네 개의 마음이 있다면 그 본성을 볼 수 있다. 사람의 본성에 반드시 인의예지의 덕이 있음을 아는 것은 그 기량이 이와 같기 때문이다. 그 기량과 동작이 인이니 이는 곧 그 본성이 인한 것이다. 그렇다면 본성은 다만 마땅히 그 동작의 성질을 논할 뿐이다. 도리어 만약 발하기 이전을 추설하여 스스로 동작 외에 본성의체가 있고, 다시 이 단서가 겨우 발한 즈음에 보인다고 말한다면 나는 강설이 허무함으로 빠질까 염려된다. ... 그렇다면 본성은 틀림없이 인한테 반드시 다시 端을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답하기를, “인의 도는 지극히 크니 어찌 날 때부터 다하기를 요구할 수 있겠는가? 다만 묘맥에서 근본을 넓힐 뿐이다. 비유하면 활활 타오르는 불이 태우지 않는 것이 없는 기세요, 아주 깊은 샘이 흘러나오지 않음이 없는 형세와 같으니 이를 일러 본성이 선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²⁵⁾

23) 『孟子』, 「公孫丑上」 6章, “孟子曰, 人皆有不忍人之心。先王有不忍人之心, 斯有不忍人之政矣, 以不忍人之心, 行不忍人之政, … 由是觀之, 無惻隱之心, 非人也。無羞惡之心, 非人也。無辭讓之心, 非人也。無是非之心, 非人也。惻隱之心, 仁之端也, 羞惡之心, 義之端也, 辭讓之心, 禮之端也, 是非之心, 知之端也。人之有是四端也, 猶其有四體也, 有是四端而自謂不能者, 自賊者也, 謂其君不能者, 賊其君者也。”

24) 『孟子集註』, 「公孫丑上」 6章, “惻隱, 羞惡, 辭讓, 是非情也, 仁, 義, 禮, 知性也, 心統性情者也, 端, 緒也, 因其情之發, 而性之本然, 可得而見, 猶有物在中而緒見於外也。”

25) 『孟子竊意』, 「公孫丑(2)」 第6章, “竊意, 若是人時必有此四者之心, 則其爲性可見, 知人之爲性必其有仁義禮智之德者, 以其所伎倆之如此也, 其爲伎倆動作也仁矣, 則此便是其性仁矣, 然則性只當就論其動作底性味耳, 反若推說其未發之前, 謂自有性體於動作之外, 而更說此底端緒纔見臨發用之際云爾, 則吾恐講說涉虛, … 然則性固是仁矣, 必復言端, 何也? 曰, 仁道至大, 其何能責盡於生初乎? 只有苗脉張本而已, 譬若星星之火, 有

최좌해는 사람의 본성에 인의예지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기량과 동작에서라고 하였다. 인간의 기량과 행실이 인하기 때문에 인을 본성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이에 최좌해는 본성이란 동작, 즉 실천하는 행위에서의 성질이라고 보았다.

『맹자』의 경문에서 端을 언급한 이유 역시 이와 일맥상통한다. 인으로 대표되는 본성은 그 도리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인간이 태어나서 이를 다할 수 없으므로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최좌해에게 인의예지는 행위 자체의 성질이고, 사단은 그 성질을 넓혀나가는 근본이다.

최좌해가 생각하는 인의예지와 사단의 관계는 다음 인용문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

『퇴록』에 말하였다. “인의예지는 선이 이루어진 이름이다. 네가지의 마음은 본성의 기량이다. 이와 같은 기량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네가지의 덕성을 이룰 수 있어 대단히 무궁한 것이다.” 또 말하였다. “측은, 수오, 공경, 시비의 마음은 발단처를 말한 것이다. 인의예지는 그 성취처를 극언한 것이다. 측은, 수오, 공경, 시비의 마음은 비유하자면 샘물의 발원이고, 인, 의, 예, 지는 장강과 회수의 광활함이다. 사람들은 다만 장강과 회수의 광활함만 알 뿐, 그것이 샘물에서 발원함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맹자는 이에 샘물을 가리켜 장강과 회수가 실제로 여기에서 발원함을 말한 것이다.²⁶⁾

최좌해는 사단을 실천의 발단, 인의예지를 성취된 결과로 보았다. 측

無不熱之勢，源源之泉，有無不漸之形，此之謂性可以爲善也。”

26) 『孟子竊意』, 「告子」第6章, “退錄曰, 仁義禮智, 善之成號也, 四者之心, 性之伎倆也. 以其有若是伎倆, 故因此可以成四者之德, 大無窮矣. 又曰, 惻隱, 羞惡, 恭敬, 是非之心, 就其發端處言也, 仁也, 義也, 禮也, 智也, 極其成就處言也. 惻隱, 羞惡, 恭敬, 是非之心, 比則涓泉之發源也, 仁義禮智, 比則江淮之汪洋也. 人只知江淮之汪洋, 而不知其發源於涓泉, 故孟子於此指其涓泉, 而言江淮之實發源於此云爾.”

은, 수오, 공경, 시비는 처음 실천이 시작되는 곳으로, 이는 샘물의 발원지에서 물이 졸졸 흘러나오듯 미미하다. 그러나 샘물이 흘러나오다 보면 장강과 회수처럼 거대한 강물을 이룬다. 이에 사단으로부터 실천을 시작하여, 이를 확충시켜 나가다 보면 인의예지라는 광활한 성취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최좌해는 사단과 인의예지를 모두 실천 속에서 논하고 있다. 이는 사단을 감정, 인의예지를 본성에 분속시키는 주희의 형이상학적 견해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최좌해의 견해는 일본 고학파의 이토 진사이, 성호학파의 다산 정약용과 일치한다. 이토 진사이와 정약용, 최좌해는 공통적으로 端을 '시작'의 의미로 해석하였다.²⁷⁾ 최좌해는 『雜識』에 이토 진사이의 『語孟字義』를 초서해둔 바 있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최좌해가 제출한 인의예지에 대한 견해에서 『어맹자의』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생물연대를 비교하자면 이토 진사이(1627~1705), 최좌해(1738~1799), 정약용(1762~1836) 순이기도 하다.

한편 정약용이 이러한 해석을 남길 수 있었던 배경에는 권철신이 있다. 『녹암권철신묘지명』을 보면 권철신이 사단을 논함에 조기의 설을 따라 첫머리로, 인의예지를 행함이 이루어진 명칭이라 한 언급이 있다.²⁸⁾ 즉 권철신과 정약용은 본 장에 대한 동일한 견해를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다.²⁹⁾ 최좌해 역시 조기의 주석을 근거로 端을 首, 즉 첫머리로 보았

27) 『語孟字義』「四端之心」, “四端之端, 古註疏曰, 端, 本也. 謂仁義禮智之端本, 起於此也. 按字書又訓始訓緒, 總皆一意. … 緒者當與本始字同其義.”; 『孟子竊意』「公孫丑」, “左錄曰, 端者, 始也.”; 『孟子要義』, “人皆有不忍人之心章”, “端之爲始, 亦既明矣.”

28) 『與猶堂全書』卷15, 「鹿菴權哲身墓誌銘」, “其論四端, 以端爲首如趙岐之說, 而仁義禮智爲行事之成名.”

29) 정약용은 사단에 대한 견해를 사우에게서 들었다고 하였다. 『孟子要義』「人皆有不忍人之心章」, “且此四端, 可曰心, 不可曰性, 可曰心, 不可曰理, 可曰心, 不可曰德, 名不可不正也. 此係進德修業者, 不可不明辨處. 余昔聞之於師友.”

다.³⁰⁾

최좌해가 정약용과 직접 교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생몰년상 좌좌해는 정약용보다 한 세대 앞서 있기도 하고, 정약용이 춘천을 방문한 시기가 있었지만 그마저도 해배 후인 1820년으로 좌좌해 사후 21년이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견해는 『퇴록』에 기록된 것이므로 좌좌해 본인의 견해이지 문인들의 견해는 아니다.

따라서 좌좌해가 이들과 동일한 해석을 남겼다는 것은 권철신³¹⁾ 등 당대 성호학파의 문인들, 특히 서학에 수용적인 이들과도 교류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이토 진사이의 견해가 성호학파의 문인들 사이에 유통되었고, 인의예지를 실천적으로 해석하는 조류가 존재하였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조선 맹자학사에서 인의예지를 실천의 결과로 해석한 문인은 정약용이 유일하였고, 이러한 견해는 이토 진사이를 포함하여 동아시아에서 희귀한 것이었다. 그러나 좌좌해는 생몰연대상 정약용보다 빠르고, 정약용의 그러한 해석에 영향을 미친 인물군 중 한 명으로 좌좌해가 추가될 수 있다고 본다.

3. 결론

이상으로 내암 좌좌해의 『맹자절의』에 나타난 『맹자』 해석을 고찰하였다.

좌좌해는 기본적으로 경문의 본의를 스스로 탐구하는自得적 자세를

30) 『孟子竊意』 「公孫丑」, “左錄曰, 端者, 始也. 趙注曰, 端者, 首也.”

31) 권철신의 생몰연도는 1736년~1801년으로, 좌좌해와 동시기를 살아간 인물이다. 문헌적 증거는 없으나 권철신과 교류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본다.

지니고 있었으며, 이는 『맹자절의』에서 벽이단 의식, 군신관계의 균형 추구, 仁義禮智의 실천적 해석으로 나타났다. 벽이단 의식에서는 안정복의 서학 배척 의식이 나타나면서도 ‘知言’을 도통의 핵심으로 지목하는 등 『맹자절서』의 견해와 일치되기도 하였다.

군신관계의 경우 최좌해는 군주와 신하가 각자의 직분을 다해야 한다는 균형을 주장하면서도, 그 목적은 백성의 삶에 있었다. 이는 군주와 신하의 층차를 엄격히 구분하는 안정복의 견해와, 爲民論을 제시한 이익의 견해를 절충한 결과로 보였다. 이상으로 보면 최좌해 『맹자』 해석의 한 축은 이익과 안정복의 절충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四端을 근본으로, 仁義禮智를 실천의 결과로 해석하였는데, 이는 동아시아에서 이토 진사이, 정약용에 보이는 최소한 사례였다. 인의 예지가 마음이 아닌 실천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성호학과 내부에 존재하였으며, 최좌해는 권철신 외에 정약용의 해석에 영향을 미친 인물이 될 수 있겠다.

최좌해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면이 많다. 최좌해 및 그의 문인들이 남긴 방대한 경학 관련 기록을 면밀하게 대조하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문인들의 면면을 조명하고 구체적으로 18세기 강원도에서 어느 정도의 학문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후속 연구를 통해 지속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원전

『乃齋遺稿』,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청구기호: 대학원 D1 A106 2).

『五書諸注竊意』,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청구기호: 古1320-7-1-16).

『五書古今註疏講義合纂附竊意-論語』, 『韓國經學資料集成』 33, 34,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0.

『退錄』,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청구기호: 古1360-35-v.1-9).

『龍巖書齋講義退錄』,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청구기호: 古1320-4-v.1-11).

李逸, 『淵正先生遺事』,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청구기호: 육당 B12 A61).

崔左海, 『雜錄』,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청구기호: 古 1320-6-v.1-6).

崔左海, 『雜識』,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청구기호: 古 1320-5-v.1-2).

黃德吉, 『下廬集』, 한국문집총간 260, 한국고전번역원, 1988.

安鼎福, 『順菴集』, 한국문집총간 229~230, 한국고전번역원, 2001.

李翼, 『孟子疾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청구기호: 韓貴古朝01-4)

丁若鏞, 『與猶堂全書』, 韓國文集叢刊 281-286, 한국고전번역원, 2002.

伊藤仁齋, 『語孟字義』.

2. 단행본

함영대, 『성호학파의 맹자학』, 태학사, 2011.

3. 논문

강세구, 「성재 허전의 성호학통 계승」, 『실학사상연구』 13, 역사실학회, 1999.

김효동, 「내암 최좌해의 논어 해석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나중선, 「내암 최좌해와 그의 경학」, 『동방한문학』 33, 동방한문학회, 2007.

이군선, 「노론의 한문 학습 차제와 체계에 대한 연구 -독서체계와 강학의 측면에서-」, 『동방한문학』 83, 동방한문학회, 2020.

이동학, 「내암 최좌해의 맹자학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3.

4. 데이터베이스

한국학중앙연구원 제공 한국학자료포털(<https://kostma.aks.ac.kr/>)

A Study of Naeam Choi Jahae's 『Mengzijeolyi孟子竊意』

Lee, Dong Hak*

This paper noticed Naeam Choi Jahae's 『Mengzijeolyi孟子竊意』 regarding relations between Seogho School's interpretation of 『Mengzi』.

His stance of understanding Confucian Classics appears clearly in 『Mengzijeolyi』. Excluding heresy, equilibrium in the relations of sovereign and subject, and practical interpretation of benevolence, righteousness, propriety, and wisdom. Especially the last subject is rare example in East Asian Confucian Classics, and has probability to influence Dasan Jung Yak-Yong's interpretation.

The point of this paper is to examine meaningful interpretation of 『Mengzi』 in 『Mengzijeolyi』, so there was the scholar Choi Jahae in 18th century Gangwon province.

Key Words

Choi Jahae, Seogho School, Mengzi, Mengzijeolyi孟子竊意, Gangwon province

논문접수일: 2023. 5. 14, 심사완료일: 2023. 6. 7, 게재확정일: 2023. 6. 30.

* Ph.d student, Korea University, Korea Language and Literature / E-mail: lee98dhk@naver.com

『詩經』·「螽斯」의 활용양상에 대해서

－ 史料와 문집을 중심으로

이상봉*

-
1. 들어가는 말
 2. 자손의 번성을 비유: 각 문체에서의 활용양상
 3. 왕실의 후계 문제와 折受 문제에서 활용
 4. 나오는 말
-

■ 국문요약

이 논문은 『詩經』 「周南」의 다섯 번째 작품인 「螽斯」를 우리 문인들이 어떻게 활용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사」는 주희로부터 “后妃가妬忌하지 않아 자손이 많았으므로 여러 훗들이 螽斯가 한 곳에 떼를 지어 살면서 조화롭게 모여 자손이 많은 것을 가지고 비유해서 이러한 德이 있으면 이러한 福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한 것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우리 문인들은 주희의 이 같은 평가를 수용해서 주로 ‘자손의 번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사」를 활용했다. 문체별로 보면 상소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冊文이나 敎書類·碑誌類·詩類 등의 순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사」는 ‘자손의 번성’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실의 후계 문제와 折受 문제와 같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 논의할 때 활용되기도 했다. 그래서 명종·경종·영조·정조 연간에 「중사」를 활용해서 후계 문제를 논의한 여

*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강사 / E-mail: krishrama@daum.net

러 예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왕실의 왕자와 공주들이 私宮을 짓고 나가서 살 때에 俸祿으로 土地 등을 때어 주는 일인 折受는 그로 인해 民田을 침탈하는 일이 잦았으므로 숙종 때부터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숙종과 영조 연간에는 이와 관련해서 「중사」가 활용된 예들이 있었다.

주제어 : 시경, 중사, 주남, 활용양상, 경학

1. 들어가는 말

이 논문은 『詩經』 「周南」의 다섯 번째 작품인 「螽斯」를 우리 문인들이 어떻게 활용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필자는 『시경』의 개별 작품들이 우리 문인들에게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정리하고 있는데 이 논문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시경』과 관련해서는 학위논문만 82건 이상이고, 천 건이 넘는 소논문들이 발표되었다. 이들 중 최근의 연구 주제들만 살펴보면, 박사논문으로는 「『本草綱目』의 『詩經』 引用에 관한 研究」¹⁾와 「『詩經』 愛情詩 研究」²⁾가 발표되었고 소논문으로는 「계곡 장유 시론 연구 -『시경』의 영향을 중심으로-」³⁾ · 「『東文選』 漢詩對『詩經』 意象의 借用與創新」⁴⁾ · 「柳僖 詩經論에 반영된 해석과 접근의 재구조화」⁵⁾ · 「미수 허목의 시경관 연구」⁶⁾ · 「『詩經』 「卷耳」의 활용양상에 대해서 -史料와 문집을 중심으로

1) 김민정(2021) 참조.

2) 박재희(2021) 참조.

3) 정향훈(2022) 참조.

4) 진교초 · 윤윤진(2022) 참조.

5) 김수경(2022a) 참조.

6) 차영익(2022) 참조.

로-」7) · 「『시경』 「칠월」의 서술 구조와 교술적 속성」8) · 「『詩經』 속 女性의 地位에 관한 小考」9) · 「『詩經』 「樛木」의 활용양상과 몇 가지 논의에 대해서-史料와 문집을 중심으로-」10) · 「瓶窩 李衡祥 詩經 독법의 확장성과 다층성」11) · 「中庸 미학에서 生生 미학으로 -『시경』을 중심으로-」12) · 「혜강 현언시에 나타난 飛鳥 意象 표현의 化用 고찰—『시경』과 『초사』의 화용을 중심으로」13) 등이 발표되었다.

『시경』과 관련해서 2021년에는 10편의 소논문이 생산되었고, 2022년에는 11월 현재에도 11편의 논문이 생산되었다. 『시경』은 한시의 바깥인 만큼 지금도 다양한 주제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시경』의 활용과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먼저 「한국에서 시경을 받아들인 역사를 살핌: 서지학의 방법을 중심으로」를 거론할 수 있다.14) 이 논문은 『시경』과 관련된 내용들을 『삼국사기』 · 『고려사』 · 『조선왕조실록』 및 근현대의 서적까지 연대순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 선조들이 『시경』을 삼국시대부터 공부했고,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도 『시경』을 관리의 등용 · 과거제도 · 경연 등에서 활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정원호는 박사학위논문인 「『朝鮮王朝實錄』의 『詩經』活用例 연구」15)에서 『시경』을 100회 이상 인용한 군주들을 정리하고 『조선왕조실

7) 이상봉 · 유영옥(2022a) 참조.

8) 이육진(2022) 참조.

9) 송하나(2022) 참조.

10) 이상봉 · 유영옥(2022b) 참조.

11) 김수경(2022b) 참조.

12) 신정근(2022) 참조.

13) 김진희(2022) 참조.

14) 이상봉(1999) 참조.

15) 정원호(2013) 참조.

록』에서 50회 이상 인용된 『시경』의 작품들도 정리해서 그 양상을 살펴볼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시경』의 작품들을 政事·行事·學問·生活·祭禮·科擧·妃嬪·人物의 주제로 나누어서 각각 얼마나 인용되었는지 정리했다.

이 논문은 『시경』의 작품들이 활용되고 있는 양상을 주제에 따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시경』의 개별 작품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그래서 필자는 『시경』의 개별 작품들이 활용된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다. 먼저 『시경』 國風의 첫 작품인 「關雎」를 대상으로 연구를 시작했다. 「관저」와 관련된 실록과 문집의 기록들을 조사해본 결과, 우리 문인들은 「관저」의 내용을 ‘후비의 덕’이나 ‘왕실의 교화’로 인식하면서 敎命文·表文·箋文·상소문 등에서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우리 문인들의 「관저」에 대한 논의 중 두드러진 것은 ‘關雎, 樂而不淫, 哀而不傷’의 해석문제와 「관저」의 화자가 누구인지의 문제였다. 이에 대해 丁若鏞(1762~1836)은 ‘荇菜流芼’가 제사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哀而不傷’은 바로 이 점을 가리킨다고 주장했고, 李瀾(1681~1763)은 ‘樂而不淫’을 방안에서 연주하는 琴瑟을 이용해서 성욕으로부터 몸과 마음을 절제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보았다. 대부분의 문인과 왕들이 「관저」의 화자에 대해서는 궁인을 지목했다. 더러는 문왕을 지목하기도 했는데, 安鼎福(1712~1791)은 이에 대해 알기 어렵다고 했다.¹⁶⁾

다음으로 小雅의 첫 작품인 「鹿鳴」의 활용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녹명」은 산문 문체 중 表箋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인용양상은 주로 ‘이번 연회는 「녹명」과 같이 아름다운

16) 이상봉(2020a) 참조.

잔치'라는 점을 강조할 때 사용되고 있었다. 또는 자신은 「녹명」시와 같은 아름다운 잔치의 손님이나 신하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겸사로 사용되기도 했다. 그 외에 序跋에서는 대체로 「녹명」을 가지고 대과나 鄉試에 급제한 것을 비유한 내용들이 많았다.¹⁷⁾

이어 필자는 周南의 「卷耳」에 대한 우리 문인들의 활용양상을 분류해 보았다. 『詩集傳』 등에서 「권이」는 「關雎」·「葛覃」과 마찬가지로 후비의 덕을 노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권이」도 「關雎」·「葛覃」처럼 왕후를 대상으로 한 시책문 등에서 왕비의 덕을 칭송하는 데 주로 사용되었다.

이외에 「권이」를 情人에 대한 그리움과 이별의 아픔을 노래한 것으로 보는 관점도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李睟光(1563~1628)·黃景源(1709~1787) 등은 「권이」의 시어를 사용해서 임금에 대한 그리움·돌아가신 분에 대한 아픔 등을 표현했다. 또한 「권이」의 화자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이에 대해 林泳(1649~1696)과 정조(1752~1800)는 「권이」의 내용을 모두 탁언으로 보았다. 이익도 「권이」가 탁언이라는 의견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그는 「권이」의 화자를 후비가 아닌 '家人'으로 보았다.¹⁸⁾

우리 문인들은 「樛木」도 '후비의 덕'을 칭송했다는 관점에서 주로 활용했다. 주희는 「關雎」·「葛覃」·「卷耳」·「樛木」·「螽斯」 모두 '후비의 덕'을 칭송한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었다.¹⁹⁾ 따라서 주희의 학설을 따르던 당시 우리 문인들은 그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17) 이상봉(2020b) 참조.

18) 이상봉·유영옥(2022a) 참조.

19) 朱熹 著, 紀昀 等纂, 『詩傳大全』 卷1, “按此篇首五詩, 皆言后妃之德, 關雎舉其全體而言也, 葛覃卷耳言其志行之在己, 樛木螽斯美其德惠之及人, 皆指其一事而言也.” 문연각 사고전서 전자판 참고.

그래서 왕비의 덕성을 찬양하거나 왕비가 문왕의 후비처럼 덕스러워 지기를 바랄 때 우리 문인들은 「규목」의 내용을 활용했다. 왕비에 대한 찬양이나 왕비의 덕성에 대한 기원을 담기에는 冊文·敎文·表箋·挽詞·誌文 등이 적당했다. 따라서 일반적인 시와 산문보다는 왕비를 책봉하는 옥책문이나 교문·표전, 돌아가신 왕비를 추모하는 애책문이나 만사·지문 등에서 「규목」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었다.²⁰⁾

이제 우리 문인들이 「종사」를 활용한 양상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종사」의 내용부터 상기해보자.

螽斯羽 誦誦兮 종사²¹⁾의 날개가, 쓰룩쓰룩 수없이 나는 소리
宜爾子孫 振振兮 그대 자손 화목해서, 대대로 번성하리라.

螽斯羽 薨薨兮 종사의 날개가, 때 지어 붕붕거리는 소리
宜爾子孫 繩繩兮 그대 자손이, 끊임없이 이어지리라.

螽斯羽 揖揖兮 종사의 날개가, 무수히 모여드는 소리
宜爾子孫 蟄蟄兮 그대 자손이 화락하게 모이리라.²²⁾

주희(1130~1200)는 「종사」의 내용에 대해 “后妃가 妬忌하지 않아 자손이 많았으므로 여러 妾들이 螽斯가 한 곳에 떼를 지어 살면서 조화롭게 모여 자손이 많은 것을 가지고 비유해서 이러한 德이 있으면 이러한 福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한 것이다.”²³⁾라고 풀이했다.

2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우리 문인들은 주희의 이런 견해를 그

20) 이상봉·유영옥(2022b) 참조.

21) 螽斯는 보통 ‘메뚜기’ 또는 ‘여치’로 번역된다.

22) 번역은 정상홍(2019), 110~111면을 참고했다.

23) 朱熹 著, 紀昀 等纂, 『詩傳大全』 卷1, “后妃不妬忌, 而子孫衆多, 故衆妾, 以螽斯之群處, 和集而子孫衆多, 比之言其有是德, 而宜有是福也” 문연각 사고전서 전자판 참고.

대로 수용해서 여러 문체에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주목할 만한 것은 왕실의 후계 문제와 折受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중사」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왕실의 후계 문제와 왕족들을 위한 折受 문제는 다소 민감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말을 꺼내면서 자손의 번성을 의미하는 「중사」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 용례를 3장에서 살펴보겠다.

2. 자손의 번성을 비유: 각 문체에서의 활용양상

『고려사』 열전의 「인종 후비 공예태후 임씨」조에 “「중사」처럼 아들이 많이 낳았으니, 이 또한 그대의 현명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다.〔螽斯多子, 亦由爾賢〕”라는 구절이 있다.²⁴⁾ 이는 「중사」에 대한 주희의 해설과 같이 공예태후 임씨(1109~1183)가 현명했기 때문에 인종에게 아들이 많았다는 말이다. 이처럼 우리 문인들은 「중사」를 활용해서 ‘자손의 번성’을 비유한 경우가 많았는데, 문체별로 그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자.

1) 상소문

「중사」가 가장 자주 보이는 문체는 상소문이다.²⁵⁾ 고려시대 승려 釋

24) 『고려사』 卷88, 「인종 후비 공예태후 임씨」 중 ‘임원후의 딸이 인종과 혼인하여 왕자를 낳고 왕비로 책봉되다.’ “八年, 生大寧侯璟, 王又遣使下詔曰, “汝以僂天之資, 居儷極之貴, 樂關雎之窈窕, 服卷耳之勤勞, 乃符帶韜之祥, 載見弄璋之慶, 歎嘉無已, 恩禮當優.” 仍賜禮物. 九年, 生明宗, 王又遣使下詔曰, “茲爾任氏, 典予內職, 正位中宮, 震索得男, 既主其器, 螽斯多子, 亦由爾賢. 謂茲擢熊之祥, 協彼燕媾之后, 宜膺寵數, 永保洪休.” ”고려시대 史料 DATABASE(<https://db.history.go.kr/>) 참조.

25) 螽斯에 대해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를 검색하면 총 720건이 검색된다. 이 중 번역이 되어있는 고전번역서 전체 80건, 조선왕조실록 전체 60건, 신역 조선왕조실록 전체 1건, 승정원일기 전체 25건, 일성록 전체 3건, 각주정보

息影庵이 원자의 탄생을 축원하며 올린 상소문을 보자.

일천 세계[千刹]에는 부처께서 못물 속에 있는 달[潭月]의 광명을 나누시므로, 일만 기류에 감응이 통하며, 兩宮께서 渚虹의 경사를 모으니, 온 나라가 모두 기뻐합니다. 삼가 생각하니, 주상께서는 백대의 龍孫으로서 만승천자의 부마가 되셨으니, 하늘의 마음과 통함이 있어서 곧 꿈의 꿈[熊夢]인 상서를 이루었고, 조상의 덕[世德]에 잘못됨이 없어서, 조금 전에 燕禩의 보답을 보았으니, 金枝가 더욱 뻗어나고 木運이 길이 연장되겠습니다. 엿드려 생각하니, 문명한 시대에 나서, 직책이 나라를 복되게 하는 데 있으므로, 항상 일백 아들을 두시도록 소원을 세워서 어린 정성을 다 바쳤더니, 일천 성현의 돌보임을 입어서 총명한 후사를 탄생하셨다 하니, 멀리서 길한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을 어이 다 하리까. 이에 좋은 날을 받아서 장수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엿드려 원합니다. 왕비께서 덕을 같이 하시고, 태자께서 아름다운 복을 계승하소서. 龍顏의 화목한 빛은 천추를 白日같이 빛내고, 螽斯의 誥誥한 아름다움[螽斯誥誥之美]은 마침내 만세토록 淸風에 전하여지이다.²⁶⁾

승려 釋息影庵은 원자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원자의 장수를 축원하는 상소문을 올렸다. 그는 渚虹·燕禩 등 왕의 탄생을 의미하는 여러 전고들을 쓰면서 원자의 장수를 축원했다. 그리고 상소문의 끝부분에서 “螽斯의 誥誥한 아름다움[螽斯誥誥之美]”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는 「중사」가 지닌 자손의 번성이라는 의미와 첩들에 대해 질투하지 않는 후비

112건을 주된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상소문은 이 중 23건으로 집계되었다.
26) 徐居正 外, 『東文選』 卷111, 「誕生元子祝上疏」, “千刹分潭月之輝, 萬機交感, 兩宮集渚虹之慶, 一國舉欣, 恭惟主上, 以百代龍孫, 爲萬乘駙馬, 天心有賚, 肇臻熊夢之祥, 世德無愆, 俄見燕禩之報, 會金枝之寔衍, 宜木運之遐延, 伏念生遇文明, 職存福利, 常抱百男之願, 傾倒愚衷, 頃蒙千聖之恩, 挺生哲嗣, 遙承吉語, 曷極權情, 故茲涓日之良, 予以祝年之永, 伏願坤儀配德, 震位承休, 龍顏穆穆之光, 並照於千秋白日, 螽斯誥誥之美, 終傳於萬歲淸風.”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참조.

의 덕성을 함께 찬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조선 태종 14년(1414)에는 의정부에서 왕손의 직급을 정하는 상소를 올리면서 “이제 우리 주상 전하가 큰 대통을 이어받으니, 「螽斯」의 번성과 「麟趾」의 慶事가 마땅히 周나라 왕실과 더불어 나란히 빛날 것입니다.”라며 왕실의 자손이 번성하기를 축원하기도 했고,²⁷⁾ 영조 5년(1729)에는 司諫 李世璣(1669~1749)이 직임을 체차해 줄 것을 청하는 상소를 올리면서 “새해에 바라는 바는 오직 「麟趾」와 「螽斯」의 경사가 나서 자손이 많이 태어나는 것입니다.”라며 영조의 후사가 번성하기를 소망하기도 했다.²⁸⁾

또 정조 4년(1780)에는 校理 徐鼎修(?~1804)가 선정을 베풀기 위한 8가지 조목을 상소하면서 그 두 번째 항목에서 “춘추가 점점 많아지는데 오히려 「중사」의 경사를 늦추십니다.”라며 정조의 후사를 염려하기도 했고,²⁹⁾ 고종 12년(1875)에는 左參贊 朴齊寅(1818~1884)이 資級을 회수해 주기를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이 글에서 그는 최근 태어난 대군의 출생을 축원하면서 “대소 群情이 모두 기뻐하며 축원 드리는 것은 대개 「중사」와 「인지」의 노래가 오늘날 다시 일어나게 된 때문이니, 아, 거룩합니다.”라고 했다.³⁰⁾

27) 태종 14년 갑오(1414) 1월 16일(신묘), 의정부에서 건의한 대군·군·원윤·정윤·부원윤·부정윤을 봉하는 법식을 승인하다. “今我主上殿下繼承丕緒，螽斯之盛·麟趾之慶，當與周室而並美矣.” 조선왕조실록(<https://sillok.history.go.kr/>) 참조. 이후 따로 표시하지 않은 각주의 실록자료는 여기서 가져왔다.

28) 영조 5년 기유(1729) 1월 1일(병오), 백성을 구제하는 방도를 강구하도록 묘당에 신칙하고 자질 부족으로 직임을 체차해 줄 것을 청하는 사간 이세진의 상소. “新年所祝，惟是麟趾螽斯之慶，振振而兢兢也.” 승정원일기(<https://sjw.history.go.kr/>) 참조.

29) 정조 4년 경자(1780) 3월 8일(정해), 서정수가 선정을 베풀기 위한 8가지 조목을 상소하다. “春秋漸晚，尙遲螽斯之慶.”

30) 고종 12년 을해(1875) 4월 16일(임오), 자질이 부족하므로 자급을 회수해 주기를 청하는 좌참찬 박제인의 상소. “大小群情，莫不拊祝，皆以爲螽斯麟趾之詠，復作於今日也，猗歟盛哉.” 승정원일기(<https://sjw.history.go.kr/>) 참조.

2) 冊文이나 敎書類

「중사」가 상소문 다음으로 많이 활용된 문체는 竹冊文·哀冊文·謚冊文 등의 책문들과 敎書·敎命·傳敎 등의 문체였다.³¹⁾ 이들 문체들은 모두 임금의 뜻을 드러내는 글들이다. 이런 문체들에서 「중사」가 활용된 양상을 살펴보자.

왕은 이르노라. 짐은 천명을 받아 왕위를 이어 지킨다. (중략) 某는 본디 甲族으로서, 나면서부터 賢才가 있었다. 鳳凰의 날이여, 진정 哲人의 배필이며, 螽斯의 날개여, 마땅히 여러 아들이 남이로다. 이에 과연 沙麓의 상서에 부합되어, 關雎의 淑德을 낳았다. 여러 번 玉衣의 이상한 꿈이 나타나더니, 마침내 金屋의 화려한 데 올랐었다. 자애로운 은혜를 받아서 외람히 보위에 오른 것을 생각하니, 國母로서의 봉양이 생전에 미치지 못한 것이 한스러우며, 渭陽의 생각은 오히려 돌아간 뒤에도 잊기 어렵다. 하물며 晉人의 의논에는 杜褒를 태상황에 건주었으며, 魏志에는 明帝가 그 외조모를 중히 여겼다고 전하는 데이겠는가. 옛적에도 이리하였거니와 지금인들 어찌 가볍게 하겠는가. 감히 풍성한 의식을 갖추어서 후한 뜻을 표시한다. 내 마음이 특히 극진한 것이 아니라, 公義가 그래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아, 덕에는 반드시 깊음이 있으므로 매양 은전을 더하는 것이다. 가득해도 넘지 말아서 마땅히 길 이 榮名을 누리라. 조심해서 나의 기대에 부응하라. 운운.³²⁾

31) 한국고전종합DB에서 螽斯로 검색해서 竹冊文·哀冊文·謚冊文 등의 용례 9건을 발견했고, 敎書·敎命·傳敎 등의 용례 7건을 찾았다.

32) 徐居正 外, 『東文選』, 卷29, 「竹冊文」, “王若曰. (中略) 某本惟甲族, 生有賢才. 鳳凰于飛, 允矣哲人之配, 螽斯之羽, 宜其衆子之興. 果符沙麓之嘉祥, 誕育河洲之淑德. 屢顯玉衣之異, 終升金屋之華. 念受慈恩, 獲叨寶位, 天下之養, 恨不逮於生前, 渭陽之思, 顧難忘於沒後. 況晉人立議杜褒, 比於大上皇, 魏志所傳明帝, 重其外祖母. 在昔如此, 于今可輕. 敢備縹儀, 以將厚意. 非予心之特至, 爲公義之攸宜. 於戲, 德必有酬, 故每加於恩典. 滿而不溢, 宜長享於榮名. 厥惟敬哉, 副我眷注云云.”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참조.

고려시대 鄭義가 왕을 위해 지은 죽책문이다. 고려 원종(1219~1274)이 세자빈을 책봉한 글로 추정되는 이 글은 「卷阿」·「螽斯」·「關雎」·「渭陽」 등 『시경』의 여러 작품들을 능숙하게 활용하고 있다. 이 글은 沙麓·玉衣·金屋 등 왕비의 출생이나 왕의 배필에 관한 고사 등을 이용해서 새로 맞이하는 세자빈의 앞날을 당부하고 있다. 이 중 “螽斯의 날개여, 마땅히 여러 아들이 남이로다.[螽斯之羽, 宜其衆子之興]”에서 「중사」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통해 세자빈에게 많은 후사가 있기를 기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세종은 1429년에 휘빈 김씨의 廢嬪에 대해 하교하면서 “「중사」의 祥瑞를 불러들일 것을 바랄 수 있겠는가.”라고 했고,³³⁾ 李敏敍(1633~1688)는 인경왕후(1661~1680)를 추모하는 哀冊文에서 “「중사」의 경사 인색함이 애통하니[痛螽斯之嗇慶]”라며 자손도 없이 20세에 요절한 인경왕후를 안타까워하기도 했다.³⁴⁾

宋相琦(1657~1723)는 「王世子嬪諡冊文」에서 “嬪하고 殮하는데 친히 임하지 못하니 더욱 아픈 마음을 억누르기 어렵다. 더구나 자손 변경의 경사도 얻지 못했으니 세자가 슬픔을 어떻게 감당하겠는가.”라며³⁵⁾ 경종(1688~1724)의 세자시절 빈이었던 端懿嬪의 죽음을 애도하기도 했고, 고종은 1865년에 “이로부터 「麟趾」와 「螽斯」의 詩가 유독 周나라에서만 아름다움이 아닐 것이다.”라고 하며 종친부의 번영을 기원하기도 했다.³⁶⁾

33) 세종 11년 기유(1429) 7월 20일(갑자), 근정전에서 임금이 휘빈 김씨의 폐빈에 대해 하교하다. “今金氏爲世子嬪, 曾未數年, 而其運謀, 敢爲妖邪, 已至如是, 尙何望其無妬忌之心, 著肅雍之德, 成「鷄鳴」至三之告, 召「螽斯」, 則百之祥乎?”

34) 李敏敍, 『西河集』 卷10, 「仁敬王妃哀冊文」, 한국문집총간 144, 民族文化推進會, 1995, 181면.

35) 宋相琦, 『玉吾齋集』 卷12, 「王世子嬪諡冊文」, 한국문집총간 171, 民族文化推進會, 1996, 447면. “殯殮莫親, 益覺病懷之難抑. 矧惟螽斯之嗇慶, 曷堪鶴禁之纏悲.”

36) 고종 2년 을축(1865) 2월 20일(병술), 종친부의 편액을 친히 써서 내리겠다는 전

3) 碑誌類

비지류에서의 용례는 앞서 정리한 애책문이나 시책문과 내용상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예들을 거론할 수 있다. 徐居正(1420~1488)은 西原府院君의 묘지명에서 그의 딸을 칭찬하며 “「중사」의 祥瑞에 이미 들어맞아, 자손들이 있었고”라고 했고,³⁷⁾ 李承召(1422~1484)는 세종(1397~1450)의 묘지명에서 “능히 「관저」의 교화와 「중사」의 경사를 이루어 本孫과 支孫이 백대토록 전해지고”라고 했다.³⁸⁾

黃俊良(1517~1563)은 가전체소설인 「蜂王臺銘」에서 “기쁨이 「중사」에 넘치고, 경사는 「湛露」보다 깊네.”라며³⁹⁾ 소설 속 왕실의 자손이 번성하고 왕실의 연회가 성대함을 찬양했고, 李廷龜(1564~1635)는 「宗室湖川君神道碑銘」에서 “이 도리 지켜 후손에게 물려주었으니, 그대 자손 화목해서 대대로 번성하리라.”고 했다.⁴⁰⁾

柳夢寅(1559~1623)은 「資憲大夫漢城府判尹崔公墓碣銘」에서 “참으로 螽斯처럼 많은 자손을 길렀고”라고 했고⁴¹⁾ 金壽恒(1629~1689)은 「義昌君神道碑銘并序」에서 “칭송 드높고 자손 번성했으니, 많고 많은 여러 支孫들이여.”라고 했으며⁴²⁾ 李觀命(1661~1733)은 「右議政趙公墓

교. “從此麟趾螽斯之詩, 不獨專美於周家.” 승정원일기(<https://sjw.history.go.kr/>) 참조.

37) 徐居正, 『四佳文集補遺』 卷1, 「左議政西原府院君謚襄節韓公墓誌銘并序」, 한국문집총간 11, 民族文化推進會, 1988, 283면. “已叶螽斯之祥, 又有子有孫.”

38) 李承召, 『三灘集』 卷14, 「世宗莊憲大王遷陵誌石文」, 한국문집총간 11, 民族文化推進會, 1988, 510면. “故以能致關雎之化, 螽斯之慶, 本支百世.”

39) 黃俊良, 『錦溪集外集』 卷8, 「蜂王臺銘」, 한국문집총간 37, 民族文化推進會, 1988, 189면. “喜溢螽斯, 慶深湛露.”

40) 李廷龜, 『月沙集』 卷6, 「宗室湖川君神道碑銘并序」, 한국문집총간 70, 民族文化推進會, 1991, 555면. “持是道以遺後, 宜爾子孫振振兮.”

41) 柳夢寅, 『於于集』 卷5, 「資憲大夫漢城府判尹崔公(俊海)墓碣銘(并序)」, 한국문집총간 63, 民族文化推進會, 1991, 567면. “信螽羽之齊毓”

42) 金壽恒, 『文谷集』 卷18, 「義昌君神道碑銘并序」, 한국문집총간 133, 民族文化推進會,

誌銘에서 “「중사」의 경사가 더더, 한가로울 때도 깊이 염려하더니”라며⁴³⁾ 경종(1688~1724)에게 후사가 없어 고뇌하던 우의정 조태채(1660~1722)의 모습을 묘사하기도 했다.

4) 詩類

「중사」가 가진 ‘자손의 번성’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중사」는 상소문이나 책문·교문·비지류 등에서 자주 활용되었다. 하지만 왕실에 경사가 있거나 왕실과 관련해서 시를 지을 때에도 우리 문인들은 「중사」를 인용하곤 했다.

少日聰明記問多	젊은 날엔 총명하고 기문지학 많아서
叩之流出似懸河	묻기만 하면 강물 쏟듯 줄줄 나왔었는데
自憐衰病心無力	가련해라. 늙고 병들어 마음도 힘이 없고
欲辨形聲字盡訛	형성을 분별할래도 글자 모두 잘못되네.
細嚼盤飧堆玉食	밥상 그득한 좋은 음식 자갈하게 씹어 먹고
再傾宮醞灑金波	넘실대는 宮中の 술 다시 기울이니
半酣身世眞如夢	반쯤 거나한 이 신세가 진정 꿈만 같아서
願繼螽斯樛木歌	「중사」·「규목」의 노래를 이어 부르고 싶네. ⁴⁴⁾

李穡(1328~1396)이 고려 우왕(1365~1389)의 비였던 謹妃 李氏의 생신을 맞아 지은 시 중 두 번째 작품이다. 시의 내용을 보면 근비의 생신을 맞아 궁중의 음식과 술로 배를 채웠으면서도 예전처럼 일필휘지로 시를 짓지 못하는 자신의 노쇠함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하지만 마지

1994, 340면. “頌螽斯羽, 振振諸支.”

43) 李觀命, 『屏山集』 卷14, 「右議政趙公墓誌銘」, 한국문집총간 177, 民族文化推進會, 1996, 289면. “螽斯慶遲, 燕居深念.”

44) 李穡, 『牧隱集』 卷21, 「明日又吟」, 한국문집총간 4, 民族文化推進會, 1989, 272면.

막 구절에서는 자손의 번성을 상징하는 「중사」와 후비와 첩들의 화합을 상징하는 「규목」을 언급하며 근비의 덕성을 찬양하고 있다.

이 외에도 徐居正(1420~1488)은 中宮胎室證考使兼安胎의 명을 받고 醴泉 주변을 여러 날을 巡歷하다가 “옛날 왕비가 잉태되고 탄생한 상서가 있어, 태실을 봉안하니 상서가 더욱 길어지리. 「麟趾」·「중사」의 경사가 바야흐로 일어나니, 이 고을이 마침내 제왕의 고을이 되었도다.”라는 시를 짓기도 했다.⁴⁵⁾

李承召(1422~1484)는 어느 날 임금의 병풍에 넣을 시를 짓게 되었다. 그 중 「周文王后妃」라는 주제로 시를 지으면서 “「중사」 경사 도타워서 낳은 아들 백 명이네.”라고 했다.⁴⁶⁾ 이는 조선의 왕실에도 주문왕의 왕실처럼 자손이 번성하기를 바라는 이승소의 기원을 담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김종직(1431~1492)은 임금의 명을 받아 「癸卯元日迎祥詩」를 지으면서 “「규목」의 은혜는 항상 널리 미치고, 「중사」의 복은 다시 훌륭하다.”라고 했다.⁴⁷⁾ 이 시의 주석에 “이상은 중궁에 올린 시다.”라고 되어 있다. 김종직은 어명을 받아 중궁에 올릴 시를 지으면서 중궁이 「규목」의 내용처럼 여러 후궁들과 잘 화합하고 「중사」의 내용처럼 많은 자손을 생산하기를 염원한 것이다.

지금까지 「중사」가 여러 문체에서 활용된 용례를 살펴보았다. 인용한

45) 徐居正, 『四佳詩集補遺』卷3, 「戊戌秋九月, 居正受中宮胎室證考使兼安胎之命, 卜地于醴泉之龍門洞. 未幾, 仍命臣居正, 爲本道巡察使, 歷諸州, 五旬之間, 四到醴泉, 今又宿多仁縣. 太守陳公(克忠), 少年執友, 鄉人孫公(次綱), 戊午生員同年也, 相與話懷, 仍成數絕, 非以爲詩, 聊志歲月云耳.」, 한국문집총간 11, 民族文化推進會, 1988, 189면. “當年載夙倪天祥, 胎室仍安瑞更長. 麟趾螽斯方有慶, 此鄉終作帝王鄉.”

46) 李承召, 『三灘集』卷6, 「又題御屏詩」, 한국문집총간 11, 民族文化推進會, 1988, 436면. “慶篤螽斯則百男”

47) 金宗直, 『佔畢齋集』卷17, 「癸卯元日迎祥詩」, 한국문집총간 12, 民族文化推進會, 1988, 340면. “穆木恩常逮, 螽斯福更嘉.”

용례 이외에 挽詞·序跋에서도 「종사」를 활용한 경우가 보이고, 上梁文·祭文·筭子·制書·詔書·咨文·箋文 등에서도 「종사」를 활용해서 ‘자손의 번성’을 비유한 경우를 몇 건 정도 찾을 수 있다.

3. 왕실의 후계 문제와 折受 문제에서 활용

지금까지 여러 문체들을 통해 살펴본 것과 같이 「종사」는 대부분 ‘자손의 번성’이라는 의미로 활용되었다. 그런데 조선시대 상소문과 실록류 기록을 보면 「종사」가 가진 ‘자손의 번성’이라는 의미를 완곡하게 사용해서 왕실의 후계 문제나 折受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경우가 많았다. 먼저 후계 문제와 관련해서 「종사」를 이용한 경우부터 살펴보자.

삼가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춘추가 한창이시니 틀림없이 「종사」의 경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자 세우기(建儲)를 미리 하지 않는 것은 어지러움의 근본입니다. 지난 가을에 옥체가 和氣를 잃자 인심이 허둥지둥하였으니 聖念이 여기에 미치시면 어찌 한심스럽지 않겠습니까. 삼가 들으니 대신이 주청하여도 머물러 두고 어렵게 여기면서 결단하지 않으신다고 하니 어떻게 漢成帝와 宋高宗은 그것을 잘했는데, 전하께서는 잘 하지 못하십니까? 이것은 반드시 聖慮가 深遠하시어 뒷날 처치하는 데 방해가 있을까 여겨서일 뿐입니다. 그러나 元良이 탄생하면 天命과 인심은 저절로 귀속할 곳이 있게 되며 미리 길렀던 사람은 스스로 물러날 것인데 무슨 방해가 있겠습니까?48)

48) 명종 21년 병인(1566) 4월 17일(무인) 2번째 기사. 풍덕 군수 이민각이 흥년에 백성을 구휼하는 방법을 상소하다. “恭惟殿下, 春秋鼎盛, 必有螽斯之慶. 然建儲不豫, 亂之本也. 去年秋玉體愆和, 人心遑遑, 聖念及此, 豈不寒心? 伏聞, 大臣有請, 而留難不斷, 夫豈漢成帝·宋高宗能之, 而殿下不能哉? 此必聖慮深遠, 爲後日處置有妨耳. 然元良誕降, 則天命人心, 自有所屬, 預養之人, 自當退處, 有何妨礙哉?”

명종 21년(1566) 4월, 풍덕 군수 李民覺(1535~?)은 흉년에 백성을 구휼하는 방법을 상소하면서 당시까지 세자를 정하지 않고 있던 명종(1534~1567)에게 建儲를 권하고 있다. 명종은 인순왕후와의 사이에서 순회세자를 낳았다. 하지만 순회세자가 1563년에 13세의 나이로 요절했는데도 세자의 공백을 그대로 두고 있었다. 이에 이민각이 위와 같은 상소문을 올린 것이었다.

이후로도 영의정 李浚慶(1499~1572)은 그해 윤10월에 “어찌 한창 나이에 끝내 「종사」의 경사가 없을까봐 이런 급급한 계획을 했었겠습니까?”라며 세자를 세울 것을 청했고,⁴⁹⁾ 배천의 생원 金澤도 “하물며 螽斯가 誦誦하고 麟趾가 振振한 상서가 없다면 더욱 서두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라며 후사의 문제를 상소했다.⁵⁰⁾

나라에서 儲嗣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데, 時任 대신으로 한강 밖에 있었던 사람마저 까마득히 알지 못했고 原任 卿宰로 처음에 불러서 나가지 않은 사람은 재차 부르지도 않고서 졸급하고 바쁘게 굴면서 조금도 國體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었으니, 신은 이것이 무슨 舉措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생각건대 우리 전하께서는 중전(中壺)을 재차 맞이하고 약을 드시며 걱정하시고 계속 상중(諒闇)에 계시니 後嗣의 있고 없음을 아직 논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전하의 寶算이 한창 젊으시고 중전께서도 나이 겨우 笄年을 넘으셨으니 日後에 「종사」의 경사가 있기만을 온 나라 신민들은 크게 바라고 있는 중입니다. 후자는 兩宮께서 병환이 있어 誕育에 지장이 있다고 말합니다만, 그렇다면 보호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마땅히 醫藥에 정성을 다하여 최대한 힘을 쓰지 않을 수 없는데도 이에 생각이 미친 자가 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으며, 결국은 즉위(卽祚)하신 원년에 갑자기 이러한 거조가 있게 되었으

49) 명종 21년 병인(1566) 윤 10월 15일(임인) 3번째 기사. 영의정 이준경이 상소하여, 후사를 세울 것 등을 청하다. “豈以方盛之年, 終無螽斯之慶, 而爲此急急之計耶?”

50) 명종 21년 병인(1566) 11월 16일(임신) 2번째 기사. 배천 생원 김택이 상소하여 후사의 문제를 아뢰다. “況螽斯無誦誦之祥, 麟趾無振振之瑞, 則尤不可以不汲汲也.”

니 이것이 어찌된 까닭입니까?⁵¹⁾

경종 1년(1721)에 柳鳳輝(1659~1727)가 올린 상소문이다. 후사가 없던 경종(1688~1724)은 즉위년에 이복동생인 연잉군(훗날 영조, 1694~1776)을 世弟로 책봉했다. 이에 대해 유봉휘는 경종과 중전의 젊은 나이를 거론하며 “「중사」의 경사가 있기만을 온 나라 신민들은 크게 바라고 있는 중”이라고 말한다. 젊은 왕이 즉위년에 동생을 세제로 책봉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었다.

뒷날 영조 5년(1729) 2월, 黃燾라는 인물이 “전하께서 嗣服하신 초기에 正壺에 「중사」의 경사를 바람이 없지 않으셨건만 즉위하신 지 얼마 안 되어 群下의 건의를 允從하셨던 것도 또한 이에서 나온 것입니다.”라며 세자를 세울 것을 상소했다.⁵²⁾ 즉위 초부터 후사를 세우라는 건의를 받았다는 점에서 상황은 경종 초와 비슷했다. 하지만 영조는 경종과는 달리 상소를 올린 황소와 이 상소와 관련된 인물들을 物故하고 定配했다.

정조(1752~1800)도 「중사」를 통해 후사에 관한 걱정의 말을 더러 들었다. 정조 2년(1778) 5월에 왕대비는 “아! 4백 년이 된 宗社의 의탁이 오직 主上의 몸 하나에 달려있는데, 춘추가 거의 30에 가까워졌는데도 지금까지 오히려 「중사」의 慶事가 늦어지고 있습니다.”라며 嬪御를 간택하라고 명했다.⁵³⁾

51) 경종 1년 신축(1721) 8월 23일(신사) 3번째 기사. 왕세제의 책정이 사리에 합당하지 않음을 아뢰는 행 사직 유봉휘의 상소. “國有建儲, 何等重大, 而時任大臣之在江外者, 漠然不知, 原任卿宰之初招不進者, 亦不更招, 猝遽忙急, 略無顧念國體之意, 臣未知此何舉措也. 惟我殿下, 再聘中壺, 嘗藥憂遑, 仍居諒闇, 嗣續有無, 姑無可論, 而殿下寶算方盛, 中壺年纔踰笄, 日後螽斯之慶, 此固舉國臣民之所翹望. 或者兩宮有疾患, 妨於誕育, 則保護之地, 固當竭誠醫藥, 靡不用極, 而未聞有念及此者. 乃於卽昨元年, 猝然有此舉, 此其故何哉?”

52) 영조 5년 기유(1729) 2월 28일(계묘) 6번째 기사. 인경문에 나아가 황소를 친국하다. 저사를 세울 것에 대한 황소의 상소문. “殿下嗣服之初, 非無有望於正壺螽斯之慶, 而卽昨未幾, 允從群下之所建議者, 亦出此也.”

정조 4년(1780) 2월에는 이조판서 金鍾秀(1728~1799)가 “아! 진하게서 춘추가 한창이신데도 아직 「중사」의 경사가 없으므로 온 나라의 모든 신민이 근심하고 답답하게 여기는 것은 모두가 같은 심정”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상황이 이런데도 名門에서 후궁을 간택하는 일을 반대한 洪國榮(1748~1781)을 귀양 보내라고 청했다.⁵⁴⁾

이어서 「중사」를 折受 문제에 활용했던 사례들을 살펴보자.

折受의 규정은 옛날의 것이 아니고, 임진란 후로 땅은 넓고 백성은 적은데 왕자와 공주가 서로 잇따라 出閣하기 때문에, 故 相臣 韓應寅이 호조 판서가 되어 난리 전에 百官에게 宣飯할 것과, 倭人을 接待할 것에 魚鹽·柴炭이 나오는 땅으로써 分割하여 주기를 청한 것인데, 그대로 그릇된 규정을 이루었습니다. 顯廟朝에 이르러 다섯 公主가 出閣하자, 折受가 점차 넓어졌는데, 三司에서 論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았고, (중략) 當宁 경신년에는 廟堂에서 禁畝를 펴고 임자년 이후에 절수한 것은 모두 혁파할 것을 청하였으나, 또 다시 정지되고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사람이 불어나는 것이 임자년에 비교할 수 없고 절수가 많아진 것이 날로 심해졌습니다. 요즘 백성의 호소나 臺閣의 논쟁으로 인해 혹은 還給한 것이 없지 않으나, 그 형세는 民田에 침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다음에 「중사」의 경사가 있고 新宮이 많이 나가게 되면, 모르긴 해도, 어느 곳을 절수해서 民田을 侵奪하는 근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臣은 절수를 혁파했으면 합니다.⁵⁵⁾

53) 정조 2년 무술(1778) 5월 2일(신유) 3번째 기사. 빈어를 간택하라고 명하다. “嗚呼! 四百年宗社之托, 惟在主上一身, 而春秋幾近三十, 螽斯之慶, 尙今晚晚.”

54) 정조 4년 경자(1780) 2월 26일(을해) 1번째 기사. 이조 판서 김중수가 홍국영을 귀양보낼 것을 청하다. “嗚呼! 殿下春秋鼎盛, 而尙未有螽斯之慶, 舉國臣民之憂悶鬱, 小大同情. (中略) 伏乞聖上, 勿復遲疑, 夫奮乾剛, 亟命有司, 施以流竄之典, 以洩輿人之憤.”

55) 숙종 14년 무진(1688) 4월 23일(을축) 1번째 기사. 절수에 관한 상소와 교서. “折受之規, 非古也. 壬辰亂後, 地曠民少, 而王子公主, 相繼出閣, 故故相臣韓應寅爲戶判, 請以亂前, 百官宣飯, 倭人接待魚鹽柴炭所出之地, 割而與之, 仍成謬例. 及至顯廟朝, 五公主出而折受漸廣, 三司論之, 不得. (中略) 當宁庚申, 廟堂請申禁令, 悉罷壬子以後折受, 而又復格而不行, 目今人物繁殖, 非比壬子, 折受夥多, 日以益甚, 近因民人之呼

숙종 14년(1688), 영의정 南九萬(1629~1711)은 왕실의 왕자와 공주들이 私宮을 짓고 나가서 살 때에 俸祿으로 土地 등을 떼어 주는 일 즉, 折受를 혁파할 것을 상소했다. 땅은 넓고 왕자와 공주가 적을 때 정해진 법칙이 당시까지 규정처럼 행해지면서 折受를 위해 民田을 침탈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 상소에서 남구만은 “이 다음에 「종사」의 경사가 있고”라며 「종사」를 이용해서 왕실의 왕자와 공주가 늘어나는 것을 비유했다. 하지만 이전까지의 淸宮와는 달리 여기서 활용한 「종사」의 경사는 國庫를 낭비하고 民田을 침탈하는 계기가 되는 일로 풀이될 수 있다.

이 외에 숙종 26년(1700)에는 영의정 徐文重(1634~1709)이 “宣廟朝에서는 「종사」의 경사가 많았으나, 出閣하기 전에는 일찍이 미리 第宅을 세우는 일이 없었고, 또 왕자나 공주가 없는 후궁은 원래 제택을 설치한 일이 없었으며, 仁祖朝에서도 또한 그렇게 하였습니다마는, 근래의 처분은 先朝 때와는 아주 다릅니다.”라며 왕자나 駙馬 등이 새로 궁실을 짓는 일을 반대하기도 했다.⁵⁶⁾

을해년 무렵에 신이 史官으로서 入侍할 적에 그 때의 대신이 宮家의 折受에 관한 폐단을 갖춰 진달하고, 이어 ‘이 뒤로는 영구히 질수하는 규정을 혁파하고 호조에서 銀貨를 일정한 격식대로 갈라 보내어 田畝를 買受하는 자본으로 삼도록 할 것’을 청하여 즉시 운허를 받았는데, 그 뒤에 삼가 듣건대, 여러 宮家들이 이미 호조의 은화를 받고도, 그 질수한 것을 그전대로 폐하지 않아서 민간의 폐해가 예전대로라고 했

訴, 臺閣之爭論, 或不無還給者, 而其勢不得不侵及民田. 今後齋斯有慶, 新宮多出, 則未知何處折受, 而得無侵奪民田之患乎? 臣謂折受可罷也.”

56) 숙종 26년 경진(1700) 10월 22일(신사) 2번째 기사. 궁궐 신축·수령 임명·과옥죄인 처벌 등에 관한 대신들의 논의. “宣廟朝齋斯之慶說說, 而未出閣前, 未嘗預建第宅, 且後宮之無王子·翁主者, 元無設置第宅之事, 至仁祖朝, 亦然矣, 近來處分, 與先朝大異.”

으니, 진실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이번에 새로 後宮을 封爵하셨으니 앞으로 分媯하신 다음에는 왕자나 옹주 사이에도 또한 마땅히 궁가가 있게 될 것입니다. 신이 오래 시골에 있을 적에 매양 外方 백성을 만날 적이면 국가에 「중사」의 경사가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니다. 비록 어리석은 백성이라 하더라도 어찌 국가의 자손이 번성하는 것이 경사가 되는 줄을 알지 못하겠습니까마는 오히려 이리했으니, 대개 평소에 小民들이 절수에 있어 시달림이 이처럼 극도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어찌 민망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뒤로는 한결같이 先王朝에 정해진 격식을 준행하여 영구히 절수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家舍에 있어서도 신이 듣건대 宣祖朝에는 왕자나 駙馬들의 宮家가 모두 閭閻의 사대부의 집 모양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궁가들이 지금도 많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 만일에 따로 中使를 내보내어 그 모양대로 지어 주도록 한다면, 사치스럽고 크게 할 염려도 없게 되고 또한 福을 기르는 방도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⁵⁷⁾

영조 2년(1726)에 영중추부사 閔鎭遠(1664~1736)은 영조가 새로 후궁을 봉작하자 宣祖朝의 격식을 준행해서 절수를 금하자고 했다. 그는 “매양 外方 백성을 만날 적이면 국가에 「중사」의 경사가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니다.”라며 절수에 대한 백성들을 반감을 전했다. 숙종조부터 문제가 되었던 왕실의 절수 문제가 영조 초기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다. 여기서도 「중사」는 ‘자손의 번영’이란 의미에서 파생되어 ‘折受의 원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57) 영조 2년 병오(1726) 11월 21일(기유) 1번째 기사. 주장에서 민진원이 색육에 대한 경계와 궁가의 절수 폐단에 대해 아뢰다. “乙亥年間, 臣以史官入侍. 其時大臣, 備陳宮家折受之弊, 仍請此後永罷折受之規, 自戶曹以銀貨定式割送, 以爲田畝買取之資, 卽蒙允可, 而其後伏聞諸宮, 旣受戶曹之銀貨, 而折受則依前不廢, 民弊依舊云, 誠爲慨然. 卽今新封後宮, 前頭分媯後, 王子翁主之間, 亦當有宮矣. 臣久在鄉曲, 每見外方之民, 不願國家有龔斯之慶. 雖是愚氓, 豈不知國家子姓蕃衍之爲慶幸, 而猶尙如此, 蓋可見常時小民之困於折受, 至於此極矣. 豈不可悶乎? 此後則一遵先朝定式, 永勿折受宜矣. 至於家舍, 臣聞宣廟朝王子、駙馬之宮, 皆如閭閻士夫家制樣. 其時宮家, 至今多有存者. 若別遣中使, 依其樣造給, 則可無侈大之患, 而亦可爲養福之道矣.”

4. 나오는 말

『시경』·『주남』의 다섯 번째 작품인 「중사」는 주희로부터 “后妃가 妬忌하지 않아 자손이 많았으므로 여러 妾들이 螽斯가 한 곳에 떼를 지어 살면서 조화롭게 모여 자손이 많은 것을 가지고 비유해서 이러한 德이 있으면 이러한 福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한 것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우리 문인들은 주희의 이 같은 평가를 수용해서 주로 ‘자손의 번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사」를 활용했다. 문체별로 보면 상소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冊文이나 敎書類·碑誌類·詩類 등의 순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사」는 ‘자손의 번성’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실의 후계 문제와 折受 문제와 같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 논의할 때 활용되기도 했다. 그래서 명종·경종·영조·정조 연간에 「중사」를 활용해서 후계 문제를 논의한 여러 예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왕실의 왕자와 공주들이 私宮을 짓고 나가서 살 때에 俸祿으로 土地 등을 떼어 주는 일인 折受는 이 때문에 民田을 침탈하는 일이 잦았으므로 숙종 때부터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숙종과 영조 연간에는 이와 관련하여 「중사」가 활용된 예들이 있었다.

필자는 지난 몇 년간 『시경』의 개별 작품들이 우리 문인들에게 활용된 용례를 살펴보고 있다. 현재까지 「관저」·「녹명」·「청묘」·「갈담」·「권이」·「규목」·「중사」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했는데, 이 중 「관저」·「녹명」·「권이」·「규목」은 한 편의 소논문으로 완성되었고 「청묘」와 「갈담」은 한 편의 논문이 되기에는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 자료만 정리한

상태로 남겨놓았다.

『시경』의 개별 작품을 정리하는 작업 중 많은 작품들이 한 편의 논문이 되기에는 부족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논문으로 게재된 작품들과 자료만으로 정리된 작품들을 모두 모아 일정 분량이 되면 우리 문인들이 『시경』을 활용한 용례를 담은 한 권의 책으로 발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문인들이 『시경』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누구나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고려시대 史料 DATABASE(<https://db.history.go.kr/>)

문연각 사고전서 전자판

승정원일기(<https://sjw.history.go.kr/>)

조선왕조실록(<https://sillok.history.go.kr/>)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金壽恒, 『文谷集』, 한국문집총간 133, 民族文化推進會, 1994.

金宗直, 『佔畢齋集』, 한국문집총간 12, 民族文化推進會, 1988.

柳夢寅, 『於于集』, 한국문집총간 63, 民族文化推進會, 1991.

李觀命, 『屏山集』, 한국문집총간 177, 民族文化推進會, 1996.

李敏敘, 『西河集』, 한국문집총간 144, 民族文化推進會, 1995.

李穡, 『牧隱集』, 한국문집총간 4, 民族文化推進會, 1989.

李承召, 『三灘集』, 한국문집총간 11, 民族文化推進會, 1988.

李廷龜, 『月沙集』, 한국문집총간 70, 民族文化推進會, 1991.

徐居正, 『四佳文集補遺』, 한국문집총간 11, 民族文化推進會, 1988.

宋相琦, 『玉吾齋集』, 한국문집총간 171, 民族文化推進會, 1996.

黃俊良, 『錦溪集外集』, 한국문집총간 37, 民族文化推進會, 1988.

- 김민정(2021), 「『本草綱目』의 『詩經』 引用에 관한 研究」,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수경(2022a), 「柳喜 詩經論에 반영된 해석과 접근의 재구조화」, 『韓國漢文學研究』 85집, 한국한문학회, 385~429면.
- 김수경(2022b), 「瓶窩 李衡祥 詩經 독법의 확장성과 다층성」, 『漢文學論集』 62집, 근역한문학회, 113~144면.
- 김진희(2022), 「해강 현언시에 나타난 飛鳥 意象 표현의 化用 고찰 — 『시경』과 『초사』의 화용을 중심으로」, 『中國語文論叢』 108집, 중국어문연구회, 129~153면.
- 박재희(2021), 「『詩經』 愛情詩 研究」,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하나(2022), 「『詩經』 속 女性의 地位에 관한 小考」, 『中國語文論譯叢刊』 51집, 중국어문논역학회, 23~47면.
- 신정근(2022), 「中庸 미학에서 生生 미학으로 -『시경』을 중심으로-」, 『東洋哲學研究』 110집, 동양철학연구회, 7~34면.
- 이상보(1999), 「한국에서 시경을 받아들인 역사를 살핌: 서지학의 방법을 중심으로」, 『시경연구』 1권, 한국시경학회, 15~23면.
- 이상봉(2020a), 「『關雎』의 수용 양상과 주요 논의에 관하여-조선시대 문집과 실록을 중심으로-」, 『한문학논집』 56집, 근역한문학회, 2020, 199~224면
- 이상봉(2020b), 「『시경』 〈鹿鳴〉의 수용 양상에 대하여 : 조선시대 한문산문과 실록류를 중심으로」, 『동방학』 43집,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43집, 2020, 153~178면
- 이상봉·유영옥(2022a), 「『詩經』 「卷耳」의 활용양상에 대해서 -史料와 문집을 중심으로-」, 『한문학논집』 63집, 근역한문학회, 2022, 55~75면.
- 이상봉·유영옥(2022b), 「『詩經』 「樛木」의 활용양상과 몇 가지 논의에 대해서 -史料와 문집을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 63집, 동양한문학회, 2022, 155~181면.
- 이욱진(2022), 「『시경』 「蟋蟀」의 서술 구조와 교술적 속성」, 『외국문학연구』 86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93~117면.
- 정상홍 옮김, 『시경』, 을유문화사, 2019.
- 정원호(2013), 「『朝鮮王朝實錄』의 『詩經』活用例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향춘(2022), 「계곡 장유 시론 연구 -『시경』의 영향을 중심으로-」, 『東方漢文學』 90집, 동방한문학회, 141~178면.
- 진교초·윤윤진(2022), 「『東文選』漢詩對『詩經』意象的借用與創新」, 『어문논총』 92집, 한국문학언어학회, 173~191면.
- 차영익(2022), 「미수 허목의 시경관 연구」, 『泰東古典研究』 48집,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9~35면.

About the Acceptance Pattern of 『The Book of Odes(詩經)』’s
「Locust(螽斯)」:
Focusing on Historical Sources and Literary Works

Lee, Sang-Bong*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how Korean writers accepted 「Locust(螽斯)」, the fifth work of 『The Book of Odes(詩經)』’s 「Junam(周南)」. Ju hi(朱熹) said about 「Locust(螽斯)」, “Several royal concubines compared Locusts to living in a herd and having many offspring in harmony and they said that it is natural to have this kind of blessing if you have this kind of virtue.” Our writers accepted Ju hi(朱熹)’s evaluation like this and used 「Locust(螽斯)」 mainly in terms of ‘Prosperity of descendants’.

By style, it was found that it was most frequently used in appeals(上疏文), and that it was used in the order of Chaegmun(冊文-A letter given by the king when installing the crown prince, concubine, etc.), Gyoseo(教書-Order issued by the feudal lord), Biji(碑誌-Inscription on stone), and poems.

Since 「Locust(螽斯)」 had an image of ‘prosperity of descendants’, it was also used when discussing sensitive issues such as the issue of the succession of the royal family and the issue of Jeolsu(折受-Received rice fields or tax from the state).

So, in the years of King Myeongjong, King Gyeongjong, Yeongjo, and King Jeongjo, several examples were found in which succession issues were discussed using 「Locust(螽斯)」.

Jeolsu(折受) often invaded the people’s fields, so it became a problem from the time of King Sukjong. Therefore, in the years of King Sukjong and King

* Lecturer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 E-mail: krishrama@daum.net

Yeongjo, there were examples in which 「Locust(螽斯)」 was used in this regard.

Key Words

The Book of Odes(詩經), Locust(螽斯), Junam(周南), acceptance pattern, Confucian Classics

논문접수일: 2023. 5. 12, 심사완료일: 2023. 6. 9, 게재확정일: 2023. 6. 30.

『논어필해』 역주 (1)

김주옥 *

1. 서론

- 1) 『논어필해』 역주의 필요성
- 2) 『논어필해』의 판본 정리
- 3) 『논어필해』 역주의 구성 및 설명

2. 『논어필해』 해제

- 1) 『論語筆解』序(許勃序)
- 2) 『論語筆解』小序(鄭鄭序)
- 3) 『論語筆解』提要(『四庫全書』總目提要)

3. 『논어필해』 역주

- 1) 學而第一
 - 2) 爲政第二
 - 3) 八佾第三
-

■ 국문요약

『논어필해』는 형식적인 면에서 한유와 이고가 서로 번갈아 대화하며 경문을 풀이하여, 경문 내용을 의심하고 고주를 반박하는 과정으로 『논어』를 풀어주는 주석서이다. 내용적인 면에서 『논어필해』는 ‘성(性)’과 ‘도(道)’에 관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어 이는 경학사적 맥락에서 송대 신유학의 서막을 여는 저서로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한유와 이고가 『논어』를 풀이하면서 『맹자』와 『중용』을 인용하여 사서(四書) 내면의 뜻이 서로 융통하는 부분을 밝히는 경향도

*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과정생 / E-mail: kimjuock@snu.ac.kr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논어필해』는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기에 역주나 관련 연구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

필자는 본고에서 『논어필해』의 역주를 통해 이 책의 주석상 특징과 경학사 흐름에서 『논어필해』의 지위를 살펴보고, 향후 논어학 연구에 기초자료로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한유와 이고의 경학 사상의 면모를 분석하는 데에 유용하고 또 한유의 사상세계 파악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논어』, 『논어필해』, 한유, 이고, 역주

1. 서론1)

1) 『논어필해』 역주의 필요성

당대에 이르러 통치자의 지원을 받으며 유학(儒學)이 매우 성행하게 되었다.²⁾ 그러나 중당 이후, 도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존중하는 정책이 실시되자 유가 경학의 지위는 흔들리게 된다.³⁾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경학의 학풍 역시 경문의 내용 자체에 대한 이해보다는 학자 자신의 견해로 풀이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변화였다. 한유와 이고는 바로 이 시기에 활동하였으며, 한유와 이고의 『논어필해』 역시 이러한 시대적 산

1) 본 장의 내용은 필자가 본인의 석사학위논문 『『논어필해(論語筆解)』 연구』에서 요약한 것이다.

2) 당 태종(唐太宗)은 정관(貞觀) 14년의 조서(詔書)에서 “국자제주(國子祭酒) 아래부터 학생들까지 성적이 우수하고 근면한 자에게는 한 등급 높여주고, 각기 다른 비단을 하사하라”고 하였다. 경진 한 권 혹은 여러 경전에 능통한 학생들은 “모두 관직을 얻었고”, 성적이 좋지 못한 학생들에게 가볍게 공비(公費)를 받지 못하게 하거나 심하게는 퇴학 조치를 취하였으니, 이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유가 경전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3) 唐明貴(2009), 『論語學史』, 240쪽.

물이라 할 수 있다.

『논어필해』에서 한유와 이고가 서로 번갈아 대화하며 『논어』에 대한 앞선 학자들의 해석의 잘못된 점을 과감하게 지적하는가 하면 경문 내용을 의심하고 고주를 반박하는 과정으로 『논어』를 풀어주고 있다.

내용적인 면에서 『논어필해』는 ‘성(性)’과 ‘도(道)’의 개념으로 경문을 풀이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이는 한대의 경문을 해석하는 방식과 다르며, 경학사적 맥락에서 송대 신유학의 서막을 여는 저서로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한유와 이고가 『논어』를 풀이하면서 『맹자』와 『중용』을 인용하여 사서(四書) 내면의 뜻이 서로 융통하는 부분을 밝히는 경향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전에 대한 연구라는 경학의 역사에서, 『논어필해』는 한학에서 송학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변화 양태를 보이는 중요한 저서로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해 현재 국내에서 『논어필해』는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기에⁴⁾ 역주나 관련 연구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논어필해』에 대한 전문적 저서로 나온 것은 없고, 단지 경학사와 논어학 역사를 기술하는 저서에서 일부를 할애하여 다루고 있을 뿐이다. 중국에서는 『논어필해』에 대한 여러 편의 소논문이 있으나⁵⁾, 대체로 전통적으로 이 책의 특색으로 평가되는 몇 가지 특징만 반

4) 이기윤(1996)의 『『논어필해』의 해석학적 이해』는 국내 처음으로 『논어필해』에 대한 연구이다. 여기서 이기윤은 해석학(Hermeneutics)이라는 서구식 텍스트 분석 방법으로 『논어필해』를 분석하였다. 우선 해석학에 관한 이론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논어필해』에 적용한다. 그는 『논어필해』가 최초로 ‘해석학적 순환’의 방법을 통해 『논어』를 주석하였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방법론을 통해 『논어필해』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였지만 주로 해석방식에만 초점을 두었다.

5) 당지텐(唐繼添, 2010)은 한유와 이고가 “소불파주(疏不破注)”라는 전통적인 경문을 해석하는 방식을 넘어서, 주소의 내용을 버리고 경문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식[舍傳求經]을 채택한 것이 『논어필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색이라고 설명하였다. 당지텐(唐繼添, 2012)은 『논어필해』가 직관적인 말과 날카로운 언사를 『논어필해』가 나타나는 언어적인 특징으로 논하였다. 황아이핑(黃愛平, 2008)은 한유와

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한편 한유는 당대 대표적인 유학자로서 일찍이 유가 도통설(道統說)을 제창하여 맹자의 지위를 높이고 불교와 도교를 배척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새로운 사상 내용은 후대 이학가(理學家)들이 수용하고 발전시켰다.⁶⁾ 그럼에도 그동안 학계에서는 한유의 시문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해왔지만, 경학적 사상이나 이고와 함께 『논어필해』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논어필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개척 상태로 남아있음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 시도하는 『논어필해』 역주는 『논어필해』의 해석을 통해 이 책의 내용과 경학사 흐름에서 『논어필해』의 지위를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아울러 향후 논어학 연구에 기초자료로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한유와 이고의 경학사상의 면모를 분석하는 데에 유용하고 또 한유의 사상세계 파악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논어필해』의 판본 정리

당대 이후의 여러 서목(書目)에서 수록한 『논어필해』와 관련된 내용을 다음 <표1-1>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이고가 마음으로 경문을 해석하는 방식(以心解經)을 사용하여 이전 학자들과 다르게 『논어』 경문을 주해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논어필해』가 한유와 이고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담아내기보다는 경문의 해석에서 자연적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설명한다.

6) 唐明貴(2009), 『論語學史』, 255쪽.

시대	서목	저자	수록상황	판본
宋	『新唐書·藝文誌』	歐陽修 等	韓愈註論語十卷	
	『田氏書目』 ⁷⁾	田鎬	韓愈論語十卷; 筆解兩卷	
	『郡齋讀書志』	晁公武	韓李論語筆解十卷, 右唐韓愈退之李翱習之撰	許勃序本
	『通志二十略·藝文略』	鄭樵	論語十卷, 韓愈; 論語筆解二卷, 韓愈	
	『玉海』	王應麟	書目二十卷, 韓愈撰	許勃序本
	『遂初堂書目』	尤袤	韓文公論語筆解	
	『直齋書錄解題』	陳振孫	論語筆解二卷, 唐韓愈退之, 李翱習之撰	王存序本(得於錢塘汪允)
元	『文獻通考』	馬端臨	韓李論語筆解十卷	收錄許勃序, 王存序
	『宋史·藝文誌』	脫脫 等	韓愈筆解二卷	
明	『唐宋叢書』	鐘人傑, 張淦辰	論語筆解, 唐韓愈著	
清	『讀書敏求記』	錢曾	論語筆解十卷	許勃序本
	『四庫全書·經部』	紀昀 等	論語筆解二卷	明范欽從許勃序本 傳刻
	『韶宋樓藏書志』	陸心源	論語筆解二卷	許勃序, 明刊本
現	『中國古籍善本書目』	王重民	① 論語筆解二卷, 唐韓愈, 李翱撰	清乾隆四十二年吳氏古歡堂抄本, 清吳翊鳳跋
			② 論語筆解二卷, 唐韓愈, 李翱撰	清抄本

〈표 1-1〉

볼 수 있듯이 『논어필해』라는 이름은 처음으로 『전씨서목(田氏書目)』에서 보이며 책 제목에 있어서 10권으로 된 『논어주』⁸⁾와 2권으로

7) “앞에 비서승 허발이 서문에서 말하였다. 한유와 이고가 서로 강론하면서 이 책을 완성하였다. 당나라 사람이 경을 통하는 자가 드물어 오직 두 사람이 이름을 붙였다. 그러나 『四庫』와 『邯鄲書目』에 모두 없고, 오직 『田氏書目』에만 한유의 『논어』 10권과 『필해』 2권이 있다. 이 책의 제목이 『필해』로 되어있지만 10권본과 다르다. (前有秘書丞許勃序云韓李相與講論, 共成此書. 按唐人通經者寡, 獨兩公名冠一代, 蓋以此. 然『四庫』『邯鄲書目』皆無之, 獨『田氏書目』有韓愈『論語』十卷, 『筆解』兩卷. 此書題曰『筆解』, 而十卷亦不同.)” 『郡齋讀書志卷四·論語類經解類·小學類』

8) “韓愈註論語”는 한유가 주해한 『논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만 여기서 이를 『논어필해』와 구별하기 위해 『논어주』로 부른다.

된 『논어필해』 두 가지로 전하고 있다. 또한 『전씨서목』과 『통지(通志)』에서는 10권본과 2권본 두 가지 판본으로 기록하고 있고, 송나라 사람 송함(宋咸)이 이를 두 가지 책으로 논하고 있으니⁹⁾, 필자는 『논어주』와 『논어필해』를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책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또 『사고전서(四庫全書)』에 수록한 『논어필해제요(論語筆解提要)』에 의하면¹⁰⁾ 한유가 일찍이 『논어』를 주해하였는데, 이는 10권으로 된 『논어주』이며, 한유와 이고가 서로 『논어』에 대해 토론한 적이 있었는데, 토론 내용은 2권으로 된 『논어필해』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논어주』와 『논어필해』가 각각의 두 가지 책이라면 왜 『논어필해』의 분량이 다양하게 기록이 되어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된다. 이 의문점을 해결하고자 먼저 지금 현존한 『논어필해』의 판본을 살펴보도록 한다.

시대	서목	저자	수록상황	판본
宋	『新刊經進詳註昌黎先生遺文卷第二』	文謙註, 王儔補註	論語筆解上 昌黎韓愈, 趙郡李翱	
明	『范氏二十一種奇書·論語筆解』	范欽	論語筆解上 昌黎韓愈, 趙郡李翱著, 四明范欽訂	秘書丞許勃序
	『百陵學山』	王文祿	論語筆解一卷,	

9) 송함(宋咸)은 『증주논어(增註論語)』 서문에서 “한유가 『논어』를 주해하고, 『필해』를 썼는데 대부분 선유의 뜻을 절취하고 문사를 옮겼다. 그래서 그 중의 한 권을 택해 고주에 넣을지 말지 아직 논증하여 정하지 못했다.”라고 하였다.(宋咸『增註論語』十卷序云: “韓愈註論語與筆解, 大概多竊先儒義而遷易其辭, 因擇一書是否並舊註未安辯正焉.”) 『玉海藝文校証』, 309쪽.

10) 의심컨대 한유가 『논어』를 주해하였을 때 아마도 먼저 책 위에 기록한 바가 있었고, 이고가 또한 그 사이에 토론한 내용을 책 사이에 붙였다. 책이 완성한 뒤 후대 사람이 그의 초고를 얻어 한유가 주해한 『논어』에 수록되지 않은 부분을 채택하여 두 권으로 별도 기록하여 전하였다.(疑愈註論語時, 或先於簡端有所記錄, 翱亦間相討論, 附書其間. 迨書成之後, 後人得其稿本, 採註中所未載者別錄爲二卷行之.)

시대	서목	저자	수록상황	판본
			昌黎韓愈, 趙郡李翱	
	『說郛』	陶宗儀		
清	『四庫全書·經部』	紀昀 等	論語筆解二卷	明范欽從許勃序本傳刻
	『藝海珠塵·絲集』	吳省蘭 輯, 秦承業 等校		
	『墨海金壺·經部』	張海鵬 校訂	唐韓愈李翱撰	
	『古經解彙函』	鐘謙鈞 輯	唐 韓愈 李翱 同註	南匯吳氏藝海珠塵本, 論語筆解小序(鄭颺)
民國	『無求備齋論語集成』	伊東龜年 撰; 嚴靈峰 編輯	論語筆解考	
日本	『韓文公論語筆解』	伊東龜年 校刻	論語筆解二卷 唐 南陽 韓愈著, 日本東都東龜年 校正	東都東龜年序跋

〈표1-2〉

지금 현존한 판본과 서목을 정리해서 보면 『논어필해』의 판본은 주로 허발서문본(許勃序文本)과 왕존서문본(王存序文本)이다.

허발이 그의 서문에서 “한유가 『논어필해』 10권을 썼다. …… 내가 여러 판본들을 대조하고 정리하여 그 중 제일 좋은 것으로 얻었다”¹¹⁾라고 하였다. 또 그 뒤로 서목에서 기록한 바에 의하면 허발서문본은 주로 10권본인 『논어필해』이다. 이로 인해 필자가 『논어필해』 10권본은 아마도 허발이 『논어필해』와 『논어주』를 정리하면서 10권본인 『논어필해』로 편찬한 것으로 추론한다.

그 뒤로 명대(明代) 사람 범흠(范欽)이 허발서문본에 의해 원래 10권으로 된 『논어필해』를 상하로 나뉜 2권으로 정(訂)하였다. 이는 아마도 처음으로 교정한 『논어필해』의 판본일 수 있다. 지금 전한 『사고전서(四庫全書)』본도 범흠본에 의해 판각한 것이다.¹²⁾ 위의 판본 중에서 허발

11) “昌黎文公著筆解論語一十卷……予繕校舊本數家，得其純粹。”

12) “이 판본은 명대 범흠이 허발 서문본을 따른 판본을 판각한 판본이다. 此本爲明范欽

서문본 계통에 속한 것을 정리하면 『范氏二十一種奇書』, 『四庫全書·經部』, 『墨海金壺·經部』, 『藝海珠塵·絲部』, 『說郛』, 『古經解彙函』, 『百陵學山』이 있다.

허발서문본 외에 또 왕존(王存)이 서문을 단 판본이 있다. 이는 처음에는 전진손(陳振孫)이 편찬한 『직재서록해제(直齋書錄解題)』에서 보이며 권수는 2권이다. 왕존서문본에 대해서는 왕무(王楙)의 『야객총서(野客叢書)』에서도 다음과 같이 유사한 내용이 보인다.

최근에 전당(錢塘) 왕충(汪充)의 집에 이 책이 있는 것을 보았다. 왕존(王存)이 회계(會稽)에서 판각하였고 『군재(郡齋)』의 서목에는 『한문공논어필해』로 기록되어 있었다. 「학이」 편부터 「요왈」 편까지의 20편은 한문공이 이고와 함께 경문의 뜻을 밝혀서 공안국의 주(註)를 깨뜨렸다.¹³⁾

그렇다면 이 당시에 왕존서문본도 문인 사이에 유통했었음을 알 수 있겠다.

또한 시기를 고려하여 분석해보면 허발은 1022~1063년 때에 활동한 학자이고, 왕존은 1085~1100년에 활동한 학자이다. 왕존서문본이 허발서문본보다 후에 출간하였고, 또 분량도 2권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볼 때, 이는 허발서문본과는 다른 계통인 『논어필해』로 볼 수 있다.

또한 1권으로 된 『논어필해』는 『논어필해』의 전체 내용이 아니라 일부를 발췌하여 모은 것으로 명대부터 출현하였다. 명대 학자들은 책의 일부 내용을 선정하여 총서로 만드는 풍조가 있었는데, 『논어필해』 1권본은 이 학풍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¹⁴⁾

從許勃本傳刻。”『四庫全書』

13) “近時錢塘汪充家有是本，王公存刊於會稽，郡齋目曰韓文公論語筆解。自學而至堯曰二十篇，文公與李翱指擿大義，以破孔氏之註……”

한편 출간 시간으로 봤을 때 베이징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된 『신간경진상주창려선생문집(新刊經進詳註昌黎先生文集)』에 『논어필해』 2권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아마도 현재 전하는 가장 이른 『논어필해』 판본일 것이다.¹⁵⁾ 『신간경진상주창려선생문집』 서문을 보면 이는 남송(南宋) 효종(孝宗) 건도(乾道) 2년 즉, 1166년에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 사천(四川)지역에서 판각한 것이기 때문에¹⁶⁾ 이하에서는 이 판본을 송촉각본(宋蜀刻本)으로 부르도록 한다.

그 외에 일본에서도 유통한 판본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이토 구넨(伊東龜年)이 교각(校刻)하고 서문을 단 판본¹⁷⁾이다. 일본에서 전한 판본이기에 아래에선 화각본(和刻本)으로 부르도록 한다. 이 판본의 유래에 대해 이토 구넨이 쓴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알 수 있다.

나의 벗 임이녕(林以寧)의 집에 조선 활자본이 있었는데 제목이 『한문공논어필해(韓文公論語筆解)』로 되어있다. 지금 볼 수 있는 여러 판본들보다 더 잘 갖추어져 있다. 또한 문집에 경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적합한 부분이 많으니 어찌 진짜 판본이 아니겠는가? 내가 일찍이 필사하고 보관하였다. 그 후 임이녕 집에 재난을 당해 그 책이 잃어버려 진귀한 것으로 되어 정말로 슬프도다!¹⁸⁾

위의 서문을 보면 이토 구넨이 일찍이 임이녕¹⁹⁾에서 조선 활자본을 얻어 필사한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임이녕 집안의 재난으로 원본을 잃

14) 金培懿(2010), 164-165쪽 참조.

15) 陽國安(2017), 86쪽.

16) 陳杏珍(1992), 164쪽.

17) 唐韓愈 著, 日本伊東龜年 校正, 『韓文公論語筆解』, 日本昭和八年刻本.

18) “吾友林以寧家有朝鮮活版本, 題曰韓文公論語筆解, 方見行諸本尤爲備, 且與集中說經合者尙多, 有豈非眞本邪, 余嘗寫而藏之, 已而以寧罹災失其書, 尋爲異物, 悲夫.”

19) “임이녕은 1655년에 태어나 1679년에 아버지 임륜(林綸)이 투옥되면서 그의 오라버니인 림이외(林以畏)의 사망으로 조난을 당한 처지이다.” 李藝(2018), 14쪽.

어버리게 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토 구넨이 쓴 서문의 낙관을 보면 보력 11년(寶曆十一年) 즉, 1762년에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화각본 서문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이 책은 마땅히 한유가 이고와 서로 토론하고 강습하면서 말하는 내용을 그 사이에 적어 둔 것이다. 그러나 습지(習之)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어 한유와 이고가 같이 편찬하였다고 잘못 이해하였다. 사실은 한유가 혼자 편찬한 것이다.²⁰⁾

이에 알 수 있듯이 이토 구넨이 처음 임이녕 집에서 본 판본은 한유와 이고의 말이 같이 들어가 있는 판본인데, 이토 구넨이 이 책은 한유가 혼자 편찬한 것으로 보아 이토 구넨이 『논어필해』를 필사하는 과정에서 이고의 말을 필사하지 않고 오직 한유의 말만 필사하였다. 그래서 지금 전한 화각본에서는 한유가 주해한 내용만 남아있다. 그러나 화각본은 한유의 말만 수록하였지만 ‘韓曰’에서 ‘習之深乎哉’라는 말은 여전히 같이 수록되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논어필해』의 판본 계통을 정리해 보면 다음 세 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 ① 허발서문본(許勃序本)
- ② 왕존서문본(王存序本)
- ③ 화각본(和刻本)

또 이 세 가지 계통에 속한 지금까지 전한 판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 “茲書者，是文公當與習之輩商論講習間，言而涉筆者也。但以其有稱習之者，謬爲韓李撰，實獨公所著。”

許物序本	『范氏二十一種奇書』, 『四庫全書·經部』, 『墨海金壺·經部』, 『藝海珠塵·絲部』, 『說郛』, 『古經解集函』, 『百陵學山』
王存序本	전한 판본 없음
和刻本	『韓文公論語筆解』

〈표1-3〉

3) 『논어필해』 역주의 구성 및 설명

상술한 바와 같이 『논어필해』는 역대로 여러 판본이 있는데, 본고는 1991년 중화서국(中華書局)에서 출판된 총서집성초편(叢書集成初編)의 『논어필해』를 저본으로 삼되, 앞서 언급한 화각본과 『신간경진상주 창려선생문집』을 참고하여 이체자(異體字)가 있는 부분을 필자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문자를 채택하여 교감하였다.

『논어필해』원본의 구성을 살펴보면, 먼저 한유와 이고가 해석하고자 하는 경문을 선정하고, 그 다음은 고주의 내용을 인용한다. 이어서 한유가 경문에 대해 자기의 해석을 하고, 그 다음은 이고가 상세한 증거를 논하거나 혹은 더 세밀한 분석을 통해 한유의 견해를 논증하는 방식으로 경문의 해석을 풀이한다. 한유와 이고의 말은 ‘韓曰’, ‘李曰’로 되어있다.

이로 인하여 본고에서 필자는 먼저 『논어필해』의 원문과 고주를 나열하고, 우리말로 된 해설을 다음으로 둔다. 『논어』 경문에 대한 번역은 한유와 이고의 견해에 근거하여 번역하였다. 그 다음은 한유와 이고의 해석이며, 마지막으로 필자의 이 구절에 대한 해설이다. ‘해설’ 부분에는 먼저 구절에 대해 설명을 하고, 다음에 구절 전체의 특징을 설명한다.

2. 『논어필해』 개요

1) 『論語筆解』序(許勃序)

▷昌黎文公著筆解論語一十卷，其間鞞曰者蓋李習之同與切磨，世所傳習，率多誤舛，始愈筆大義則示鞞，鞞從而交相明辨，非獨韓制此書也。

한유가 『논어필해』 10권을 저술하였다. 책 사이에 ‘鞞曰’로 되어있는 것은 대개 이고가 한유와 더불어 절차탁마한 것이다. 세상에 전하고 배우는데 틀린 것들이 많아 처음에 한유가 대의를 써서 이고에게 보여주었다. 이고는 그 뒤로 한유와 서로 번갈아 뜻을 명백히 판별하였기에 한유가 혼자서 이 책을 지은 것이 아니다.

▷噫，齊魯之門人所記善言既有同異，漢魏學者注集繁闕，罕造其精，今觀韓李二學，勤拳淵微，可謂窺聖人之堂奧矣，豈章句之技所可究極其旨哉，予繕校舊本數家，得其純粹，欲以廣博，故序以發之。

아! 제노(齊魯)의 문인이 기록한 좋은 말들은 이미 서로 차이가 나고, 한(漢)나라와 위(魏)나라 학자들이 주해한 문집은 많았으나 정묘함에 도달한 자가 드물다. 지금 한유와 이고의 학문을 살펴보건대 성실하고 진지하며 깊고 오묘하여 성인의 심오한 이치를 엿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으니, 어찌 장구의 기법으로 그의 뜻을 탐구할 수 있겠는가. 내가 여러 판본들을 대조하고 정리하여 그 중 가장 좋은 것으로 얻어 널리 알리고자 한다. 그래서 서문을 써서 이를 밝힌다.

2) 『論語筆解』小序(鄭昴序)

▷夫文之至者，必究觀乎其本，本苟不立，枝將安附，昌黎文起八代之

衰, 李習之一時齊名. 讀論語筆解, 始知其原, 聖人既往, 微言猶存, 參而究之, 若破堅壁, 亦何妨互有出入. 乃其得處, 已如見聖人之心於千百載之上矣. 予恥夫讀韓文者之不究其原也. 爲之點而傳之. 時天啓甲子七月之望, 峯陽鄭鄴敬題.

무릇 문장의 지극함은 반드시 그의 근본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에 있다. 근본이 만약 세우지 않으면 가지는 어디에 붙을 것인가. 한유는 문장으로 팔대의 쇠락한 문풍을 일으켰고, 이고는 그 당시에 한유와 이름이 나란히 했다. 『논어필해』를 읽고서야 비로소 그의 근원을 알았으니, 성인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의 심오한 말은 아직 남아있다. 그를 탐구하고 궁리하면 마치 견고한 벽을 부수는 것과 같아 내용에 차이가 있어도 또한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이 책의 내용을 얻는 것이 마치 천백 년 전의 성인의 마음을 만나는 것과 같다. 나는 한유의 글을 읽은 사람이 한유의 근본을 탐구하지 못한 것에 부끄러워 그들을 위해 표점을 찍어 전한다. 천계년간 갑자년 7월 15일, 밀양 정만이 삼가 적는다.

3) 『論語筆解』提要(『四庫全書』總目提要)

- ▷ 論語筆解二卷, 舊本題唐韓愈李翱同注, 中間所注以韓曰李曰爲別. 『논어필해』 2권, 옛 판본에서 당나라 한유와 이고가 같이 주석하였다고 적혀있다. 중간에 『논어』에 대한 주석은 ‘한왈’, ‘이왈’로 구별한다.
- ▷ 張籍集祭韓愈詩, 有論語未訖註, 手迹今微茫句. 邵博聞見後錄遂引爲論語注未成之證. 而李漢作韓愈集序, 則稱有論語注十卷, 與籍詩異. 王楙野客叢書又引爲已成之證. 晁公武讀書志稱四庫邯鄲書目皆無之, 獨田氏書目有韓氏論語十卷, 筆解兩卷. 是論語注外別出筆解矣. 新唐書藝文志載, 愈論語注十卷, 亦無筆解. 惟鄭樵通志著錄二卷, 與今本同. 意其書

出於北宋之末.

장적(張籍)의 「제한유시(祭韓愈詩)」에서 “『논어』에 대한 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아 지금 쓴 글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邵博이 『소씨 문견후록(邵氏聞見後錄)』에서 이 문장을 인용하여 『논어』주해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증거로 삼는다. 그러나 이한은 『한창려전집(韓昌黎全集)』 서문을 작성하면서 한유가 『논어』 10권을 주해하였다고 기록하였다. 이는 장적의 「제한유시」의 기록과 다르다. 왕무(王楙)가 『야객총서(野客叢書)』에서도 이한의 글을 인용하여 한유가 『논어』 주해를 완성하였다는 증거로 삼는다. 조공무(晁公武)가 그의 『독서지(讀書志)』에서 『사고전서(四庫全書)』와 『감단서목(邯鄲書目)』에 모두 안 보이고 오직 『전씨서목(田氏書目)』에서만 한유의 『논어』 10권과 『필해』 2권이 있다고 적혔다. 이는 한유가 『논어』를 주해하는 것 외에 따로 『필해』라는 책이 있다는 것이다. 『신당서(新唐書)』 「예문지(藝文志)」에서 “한유가 『논어』 10권을 주해하였다”라는 기록이 있고, 여기도 『필해』에 대한 기록이 없다. 오직 정초(鄭樵)가 『통지(通志)』에서 2권이 있다는 것을 수록하였으며 지금 판본과 같다. 이는 『논어필해』가 북송 말기에 나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 然唐李匡乂宣宗大中時人也，所作資暇集一條云，論語宰予晝寢，梁武讀爲寢室之寢，晝作胡卦反，且云當爲晝字，言其繪晝寢室。今人罕知其由，咸以爲韓文公所訓解。又一條云傷人乎不問馬，今亦謂韓文公讀不爲否。然則大中之前已有此本，未可謂爲宋人僞撰。且晝寢一條今本有之，廐焚一條今本不載。使作僞者剽掇此文，不應兩條相連摭其一而遺其一，又未可謂因此依託也。

그러나 당대 이광예(李匡乂)는 선종(宣宗) 대중(大中) 시기 사람인데, 그가 지은 『자가집(資暇集)』에서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논

어』의 ‘宰予晝寢’장에 대해 양 오제(梁武帝)가 ‘침(寢)’을 ‘침실’의 ‘침’으로 읽었고, ‘주(晝)’를 ‘호괘(胡卦)’의 반절로 읽었으며, 또 마땅히 ‘화(晝)’자로 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니 침실을 꾸민다고 말한 것이다. 지금 사람은 그의 이유를 아는 자가 드물고 모두 한유가 주해하였다고 여긴다. 또 ‘상인호불문마(傷人乎不問馬)’ 대목에 있어서 한유는 ‘不’를 ‘否’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대중 시기부터 이미 이 책이 있었으니, 송대 사람의 위작했다고 말할 수 없다. 또 ‘주침(晝寢)’ 장(章)은 지금 전하고 있는 판본에 있지만, ‘구분(廐焚)’ 장은 지금 전하고 있는 판본에 실려 있지 않다. 위조하는 사람이 이 문장을 적어놓을 때 두 조목이 이어져 하나만 택하고 나머지 하나를 택하지 않을 리가 없으니, 또 이로써 증거라고 할 수 없다.

▷ 以意推之，疑愈注論語時，或先於簡端有所記錄，輒亦間相討論附書其間，迨書成之後，後人得其稿本，採注中所未載者，別錄爲二卷行之。

이 뜻으로 유추해보건대 아마도 한유가 『논어』를 주해하였을 때 어찌면 먼저 책 위에 기록한 바가 있었고, 이고가 또한 그 사이에 토론한 내용을 책 사이에 붙였다가 책이 완성한 뒤 후대 사람이 그의 초고를 얻어 한유가 주해한 가운데 수록되지 않은 부분을 가려 두 권으로 별도 기록하여 간행한 듯하다.

▷ 如程子有易傳，而遺書之中又別有論易諸條，朱子有詩傳，而朱鑑又爲詩傳遺說之例。題曰筆解，明非所自編也。

예컨대 정자(程子)가 『역(易)』을 저술하였지만 그의 유작 중에 『역(易)』에 대해 따로 논하는 대목들이 있고, 주자(朱子)가 『시(詩)』를 저술하였지만 주감(朱鑑)이 또한 『시』의 유설을 전한 예가 있다. 제목이 ‘필해’로 되어있는 것은 그가 스스로 편찬한 것이 아님이 명확하다.

▷ 其今本或有或無者，則由王存以前世無刊本，傳寫或有異同。邵博所

稱三月字作音一條，王楙所見本亦無之，則諸本互異之明證矣。王存本今未見，魏仲舉刻韓文五百家注，以此書附末，今傳本亦稀。

지금 전하고 있는 판본에 혹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은 왕존(王存) 이전에 간행본이 없거나 필사할 때 혹 다른 점이 있어서이다. 소박(邵博)이 말한 ‘삼월자작음(三月字作音)’ 대목은 왕무가 보는 판본에는 없으니, 여러 판본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 분명하다. 왕존본은 지금 보이지 않고 위중거(魏仲舉)가 『한문오백가주(韓文五百家注)』를 판각하여 『논어필해』를 그 뒤로 수록하였으나 지금 전한 판본에 또한 보기 드물다.

▷ 此本爲明范欽從許勅本傳刻，前載勅序，仍稱筆解論語一十卷，疑字誤也。又趙希升讀書附志曰，其間翱曰者，李習之也。

이 판본은 명나라 범흠(范欽)이 허발본(許勅本)을 따라 판각한 것으로 앞에 허발의 서문이 실려 있다. 서문에 여전히 『필해논어』 10권으로 되어있는데 글자가 틀린 것으로 의심한다. 또한 조희승(趙希升)이 그의 『독서부지(讀書附志)』에서 “중간에 쓰인 ‘고왈(翱曰)’은 이습지(李習之)이다”라고 적혔다.

▷ 明舊本愈不著名，而翱所說則題名以別之。此本改稱韓曰李曰，亦非其舊矣。

명나라 판본에서 한유의 이름을 쓰지 않았고, 이고가 말한 내용은 따로 이름을 써서 구별했다. 이 판본에서는 ‘한왈(韓曰)’, ‘이왈(李曰)’로 고쳐 놓았으며, 그 전의 판본이 아니다.

▶ [해설] 제요 부분에서 『논어필해』의 유통과정과 진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제요의 내용을 보면 『논어주』와 『논어필해』는 각기 다른 두 종류의 책이다. 한유가 일찍이 『논어』를 주해한 적이 있었고, 주해한 책은 『논

어주』로 불렸다. 나중에 이고 혹은 후대 사람들이 한유와 이고가 서로 토론한 내용을 『논어필해』로 편찬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논어필해』 역주

1) 學而第一

○ 有子曰, 信近於義, 言可復也.

유자가 말하였다. 약속이 올바른 도리에 가까워야 그 약속한 말을 따져볼 수 있다.

[1] 馬曰[2]其言可反覆, 故曰近義.

마용: 그 말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의에 가깝다고 한다.

[1] 『논어집해』에서 누군지 언급되어있지 않다.

[2] 『논어주소』에서 ‘以’자가 더 들어가 ‘以其言可反覆’로 되어있다.

韓曰, ①反本要終謂之復, 言行合宜, 終復乎信, 否則小信未②孚, 非反覆不定之謂.

한유: 근본으로 돌아가 결과를 따지는 것을 ‘복(復)’라고 한다. 말하는 것과 행위가 마땅히 하게 되면 결국 약속을 쫓아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작은 약속도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반복하여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李曰, ③尾生之信, 非義也. 若要終合宜, 必不抱橋④徒死, 馬云反覆, 失其旨矣.

이고: 미생의 약속은 올바른 도리가 아니다. 만약 결과를 따져 마땅하게 했다면 필히 다리 기둥을 안아서 헛되게 죽지 않았을 것이다. 마옹이 말한 ‘반복(反覆)’은 그 요지를 잃었다.

① 反本要終

‘반본(反本)’은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을 가리킨다. ‘요(要)’는 ‘구하다’이다. 여기서 ‘반본요종(反本要終)’은 근본으로 돌아가 결과를 따지는 것을 뜻한다.

② 孚

‘부(孚)’는 ‘믿게 하다’이다.

③ 尾聲之信

노나라 사람 미생은 정직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것으로 주변 사람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 미생에게 어느 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 그녀와 다리 밑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미생은 정한 시간에 약속한 장소로 갔는데,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미생이 그녀를 기다리는 동안 갑자기 큰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비가 계속 퍼부었다. 어느새 빗물이 미생의 다리까지 올라왔는데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비가 계속 내리자 결국 미생은 다리 기둥을 안고 있는 채로 익사하였다.

④ 徒死

‘도(徒)’는 ‘공연히’, ‘헛되이’이다. ‘도사(徒死)’는 헛되게 죽는 것이다.

○ 恭近於禮，遠恥辱也。

공손함이 예에 가까워야 치욕을 당하지 않게 된다.

[1] 馬曰，恭不合禮，非禮也。能遠恥辱，故近禮。

마옹: 공손이 예에 맞지 않으면 예가 아니다. 치욕을 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에 가깝다.

[1] 『논어집해』에서 ‘包曰’로 되어있다.

韓曰, 禮, 恭之本也. 知恭而不知禮, 止遠辱而已. 謂恭必以禮爲本.

한유: 예는 공손함의 근본이다. 공손함을 알고 예를 모르는 것은 치욕을 멀리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다. 공손함은 반드시 예를 근본으로 해야 한다는 것임을 말한다.

李曰, ①晉世子申生恭命而死. 君子謂之非禮. 若恭而不死, 則得禮矣.

이고: 진(晉)나라 세자 신생(申生)이 명을 받들다가 죽었다. 군자들은 이를 예가 아니라고 하였다. 만약 명을 받들면서도 죽지 않았다면 예를 얻은 것이다.

① 晉世子申生恭命而死

신생(申生)은 진헌공(晉獻公)의 맏아들이고 어머니가 제강(齊姜)부인이다. 헌공이 그 당시 여희(驪姬)를 총애하여 여희가 그의 아들인 해제(奚齊)를 왕위에 세우고자 그녀가 헌공 앞에서 신생을 무함하였다. 헌공은 여희의 말을 믿고 신생을 죽이려고 하였다. 공자(公子) 중이(重耳)가 이 일을 알고 신생에게 “당신은 어찌 아버지에게 모든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까?”라고 물었다. 신생은 “아버지가 지금 여희를 많이 좋아하여 모든 진실을 알게 되면, 상심이 클 것입니다.”라고 답하였다. 중이가 다시 “그럼 진나라를 떠나시오.”라고 간언을 하자, 신생은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를 시해하려 한다고 생각하는데, 천하에 아버지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가도 어디로 가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결국 신생

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었고, 후인들이 그를 ‘공세자(恭世子)’라고 칭하였다.

▶ [해설] 이 구절은 공(恭)과 예(禮)의 관계에 대해 논하고 있다. 고주에서는 공은 예에 맞지 않으면 예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한유는 예를 공의 근본으로 보고 공만 중시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즉 예를 근본으로 해야 공을 이룰 수 있고 또 공 하나만 알고 예를 소홀히 하면 오직 치욕을 멀리함에 그친다. 이고는 공세자(恭世子) 신생(申生)이 진헌공(晉獻公)의 명을 받들다가 죽는 고사로 이 구절을 설명하고 있다. 공세자가 공손을 지키다가 치욕으로 억울하게 죽었는데, 이고는 그의 죽음이 예가 아니라고 본다. 공세자가 목숨을 잃은 것은 공만 중요시하고, 예를 근본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고는 한유의 말을 동의하고 전고를 덧붙여 설명하고 있다.

주희는 『논어집주』에서 이 구절에 대해 “공손을 지극히 하면서 그 예절에 맞게 한다면 치욕을 멀리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주희는 치욕을 멀리하려면 공과 예 모두가 중요하다고 본다. 이는 한유와 이고의 공과 예 한 가지에만 치우치면 안 된다는 해설과 같은 맥락의 뜻으로 볼 수 있다.

○ 因不失其親，亦可宗也.

서로 관련이 있고 친근함을 잃지 않으면 또한 존경할 만하다.

孔曰，因，親也。所親不失其親，亦可宗敬。

공안국: ‘인(因)’은 친하게 여긴다는 뜻이다. 친한 사람에게 나의 친애함을 잃지 않으면 이 또한 존경한 것이다.

韓曰, 因訓親, 非也. 孔失其義. 觀有若上陳信義恭禮之本, 下言凡學必因上禮義二說. 不失①親師之道, 則可尊矣.

한유: ‘인(因)’을 ‘친(親)’으로 해석하는 것은 틀렸다. 공안국이 그 뜻을 잘못 안 것이다. 살펴보면대 유약이 위 구절에서 약속·의로움·공손함·예의의 근본에 대해 말하였으니, 아래 구절에는 무릇 배움에 있어 반드시 위의 예절·의로움 이 두 가지와 관련지어 말해야 할 것이다. 스승을 친애하는 도리를 잃지 않는다면 존경할 만하다.

李曰, 因之言相因也. 信義而復本, 禮因恭而遠嫌, 皆不可失, 斯迺可尊.

이교: ‘인(因)’이라는 것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이다. 약속과 의로움으로 근본을 따져볼 수 있고, 예와 공손함은 서로 관련지어 싫어함을 멀리한다. 약속과 의로움과 공손함 그리고 예의를 모두 잃지 않아야 비로소 존경할 수 있다.

① 親師之道

‘친사(親師)’는 스승을 친애하는 것을 뜻한다. ‘친사지도(親師之道)’는 스승을 친애하는 도이다.

▶ [해설] 공안국은 ‘인(因)’을 ‘친(親)’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한유는 공안국의 설을 부정하여 설명한다. 한유는 이 구절 앞부분에 신(信)·의(義)·공(恭)·예(禮)에 대한 내용을 논했기 때문에 아래 구절에서는 반드시 예와 의의 내용이 나와야 한다고 하였다. 이교는 한유의 설에 동의하며 ‘인(因)’을 ‘서로 관련이 있다’로 해석한다. 그는 앞서 얘기한 신의와 예와 공을 서로 연관하여 설명하였다.

이 장에서 한유와 이교가 공안국의 설을 부정하며, 고주와 다른 견해

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논어필해』가 경문을 해석하는 특징 중의 하나이다.

○ 子曰, 敏於事而慎於言. 就有道而正焉. 可謂好學也已.

공자: 일을 행하는 데는 민첩하게 하고, 말을 하는데 삼가고, 올바른 도에 대해 묻는다면, 이야말로 배우기를 좋아한다고 말할 만하다.

孔曰, 敏, 疾也. 有道, 有道德者, 正謂問事是非.

공안국: ‘민(敏)’은 빠르다는 뜻이다. ‘유도(有道)’는 덕을 갖추어 있는 사람이다. ‘정(正)’은 일의 시비를 묻는다는 것이다.

韓曰, 正謂問道, 非問事也. 上句言事, 下句言道. 孔不分釋之. 則事與道混而無別矣.

한유: ‘정(正)’은 도에 대해 묻는 것을 말한 것이지 일에 대해 묻는 말이 아니다. 위 구절에서 일에 대해 논술하고, 아래 구절에는 도에 대해 논술하는데 공안국이 구분하지 않고 해석하였다. 그래서 일과 도를 섞여 구별되지 않았다.

李曰, 凡人事政事, 皆謂之①事迹. 若道則聖賢德行, 非②記誦文辭之學而已. 孔子曰, 有顏回者好學, 不遷怒, 不貳過. 此稱為好學. 孔云問事是非, 蓋得其近者小者, 失其大端.

이고: 무릇 ‘인사’와 ‘정사’ 하는 것은 모두 일의 자취라고 한다. 도를 말하자면 성현의 덕행을 말하는 것이지 문장을 짓는 배움만은 아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안회는 배우기를 좋아하며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하지 않고 잘못을 거듭 범하지 않는다.” 이를 배움을 좋아한다고 부른다. 공안국이 “일의 시비를 묻는 것”으로 말하는 것은 그저 가깝고 세부적인 것을

얻었을 뿐 그 큰 단서를 잃은 것이다.

① 事迹

‘사적(事迹)’은 ‘일의 자취’이다.

② 記誦文辭

‘기송문사(記誦文辭)’는 문장을 외우는 것에만 힘쓰는 것이다.

▶ [해설] 공안국이 ‘정(正)’은 일의 시비를 묻는다는 것으로 보는데 한유는 “일이 아니라 도에 대해 묻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앞 문장에 나온 “敏於事而慎於言” 장에서 이미 일에 대해 민첩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다음 경문에 나온 “就有道而正焉”은 도에 대해 묻는 것으로 설명하며, 공안국이 일(事)과 도에 대해 구별하지 않고 해석하였다고 고주와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고는 한유의 말에 동의하며 도는 성인의 덕행을 가리킨 것이지 문장을 짓는 배움만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그래서 고주에 “시비에 대해 물어보는 것”은 그저 세부적인 것만 얻을 것일 뿐, 도가 아니라고 하여 공안국이 그 요점을 잃었다고 부정한다. 또한 이고는 안희의 예를 들어 ‘호학(好學)’에 대해 설명하였다. 안희처럼 사람에게 화풀이하지 않고 잘못을 거듭 범하지 않는 것이 성현의 덕행임을 강조하였다.

2) 爲政第二

○ 子曰, 詩三百, 一言以蔽之. 曰, 思無邪.

공자: 삼백여 편인 『시경』의 시를 한 마디로 단정한다면 “생각에 사악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

包曰, 蔽猶當也. [1]又曰, 歸於正也.

포함: ‘폐(蔽)’는 ‘해당하다’와 같다. 또한 (‘사무사(思無邪)’라는 것은) 정(正)으로 돌아옴이다.

[1] ‘又曰’은 포함이 설명하는 말을 가리킨다.

韓曰, 蔽猶斷也. 包以蔽爲當, 非也. 按思無邪, 是魯頌之辭, 仲尼言詩最深義, 而包釋之略矣.

한유: 폐(蔽)는 마치 단정하다는 뜻이다. 포함이 폐(蔽)를 해당하다(當)로 해석하였는데 틀렸다. 생각건대 ‘사무사(思無邪)’는 「노송(魯頌)」의 내용이다. 공자는 『시』의 가장 심오한 뜻을 말하고 있는데, 포함이 그것을 해석하는데 간략하다.

李曰, 詩三百篇, 斷在一言, 終於頌而已. 子夏曰, ①發乎情, 民之性也. 故詩始於風. ②止乎禮義, 先王之澤也. 故終無邪一言, 詩之斷也. 慮門人學詩, 徒誦三百之多, 而不知一言之斷, 故云然爾.

이고: 『시』가 삼백 편이나 되지만 한마디로 단정하면 결국 송(頌)에 그칠 뿐이다. 자하(子夏)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이다.”라 하였다. 그래서 『시』가 풍(風)에서 시작하였다. “예(禮)와 의(義)에 그치는 것은 선왕의 은택이다.” 그래서 ‘무사(無邪)’ 한마디로 끝내는 것은 『시』를 단정하는 것이다. 문인들이 『시』를 공부하는데 공연히 삼백여 편이나 암송하나, 한 마디로 단정하는 말을 모를 것을 염려하여 이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① 發乎情, 民之性也.

『모시(毛詩)』 서문의 구절이다.

② 止乎禮義, 先王之澤也.

『모시(毛詩)』 서문의 구절이다.

▶ [해설] 포함은 ‘폐’를 ‘해당하다’라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는데, 한유는 고주를 부정하여 ‘폐’를 ‘단정하다’라고 해석한다. 한유는 공자가 ‘사무사’로 『시』를 단정하였고, 또 공자가 『시』의 가장 심오한 뜻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유는 포함이 ‘폐’를 ‘해당하다’로 풀이하는 것이 간략하다고 생각한다.

이고는 한유의 해석에 동의하며 『시경』의 내용을 인용하여 설명한다. 그는 공자가 『시』를 공부하는 문인에게 삼백여 편이나 되는 『시』를 암송하는 데에 있어서 ‘사무사’ 한 마디로 단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였다고 해석한다.

주희는 『논어집주』에서 이 구절에 대해 ‘蔽猶蓋也’라고 적었으며, ‘폐’를 ‘덮음(蓋)’으로 해석한다. 주자는 “공자께서 『시』 3백 편을 오직 이 한마디 말이 충분히 그 뜻을 다 덮을 수 있다”라고 덧붙여 설명하였는데, 이는 한유와 이고가 『시경』의 시를 한 마디로 단정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뜻으로 볼 수 있다.

○ 子曰, 吾五十而知天命.

공자: 쉰 살이 되어서는 천명을 알게 되었다.

孔曰, 知天命之終始.

공안국: 천명의 끝과 시작을 아는 것이다.

韓曰, 天命深微①至赜, 非原始要終一端而已. 仲尼五十學易, ②窮理盡

性, 以至於命, 故曰知天命.

한유: 천명이 심오하고 오묘하여 사물 발전의 기원과 결과를 연구하는 측면에서 끝내는 것은 아니다. 공자가 된 살이 되어서 『역』을 배워 사물의 이치를 탐구여 명에 이르렀기에 '지천명'이라고 하였다.

李曰, ③天命之謂性, 易者, 理性之書也. 先儒失其傳, 惟孟軻得仲尼之蘊. 故盡心章云, 盡其心所以知性, 知性所以知天. 此天命極至之說. 諸子罕④造其微.

이고: 천명은 성이라고 한다. 『역』은 이치와 본성을 다루는 책이다. 선유들은 『역』을 전하는 것을 잃었으나 오직 맹자가 공자의 깊이 있는 업적을 이어받았기에 이에 『맹자』 「진심」 편에 “그의 마음을 다하는 사람은 그의 본성을 알 수 있고, 그의 본성을 아는 사람은 하늘에 대하여도 알 수 있게 된다.”라 하였다. 이는 천명이 지극하다는 설이다. 여러 학파 중에 그 심오함에 이르는 자가 드물다.

① 至蹟

‘지색(至蹟)’은 심오하고 오묘한 도리이다.

② 窮理盡性, 以至於命

이는 『주역』 「설괘전(說卦傳)」에서 나온 말이다.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여 명에 이르는 것을 가리킨다.

③ 天命之謂性

『중용』 첫 구절의 내용 즉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教.”를 인용하여 설명한 것이다.

④ 造

‘조(造)’는 ‘이르다’이다.

▶ [해설] 한유는 공자가 쉰 살이 되어서 『역』을 배워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여 명에 이르렀기 때문에 쉰 살이 되어서는 천명을 알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이고는 한유의 말에 동의하고 이어서 『맹자』 「진심」편의 내용을 인용하여 설명하였다. 즉 마음을 다하면 ‘성’을 알 수 있고, ‘성’을 알게 되면 하늘에 대하여도 알 수 있다. 여기서 ‘천명’과 ‘성’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성’에 대한 이해로 『논어』 경문을 풀어주는 경향이 보인다. 이장에서 『맹자』의 내용을 언급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이전 시기 주석에서는 많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다.

또 이 대목에서 한유와 이고는 ‘천명’을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 ‘성’을 주제로 해석하는 경향이 보인다. 이러한 해석 방식은 해석학에 있어서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후대에 이르러 주희가 이에 영향을 받아 『사서집주(四書集注)』에서 본격적으로 ‘성’에 대해 언급하고 경문을 풀이한다. 『집주』에서 정자의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보면, 그는 “知天命窮理盡性也”라고 해석하였다. 이는 『논어필해』가 후대에 영향을 준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성리학에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六十而耳順, 七十而從心所欲, 不踰矩.

예순 살이 되어서는 이와 같이 하늘의 뜻을 순응하고, 일흔에는 마음의 하고자 하는 대로 하더라도 법도에 어기지 않는다.

鄭曰, 耳聞其言, 知其微旨也. 馬曰, 矩, 法也. 從心所欲無非法.

정현: 귀로 그 말을 들으면 그 말의 은미한 뜻을 알 수 있다. 마용: ‘규(矩)’는 법도의 뜻이다.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가 아님이 없다.

韓曰, 耳當爲爾, 猶言如此也. 既知天命, 又如此順天也.

한유: ‘이(耳)’는 마땅히 ‘이(爾)’가 되어야 하며, ‘이와 같이’를 말하는 것과 같다. 천명을 알게 되었으니, 또한 이와 같이 하늘의 뜻을 순응한다는 말이다.

李曰, ①上聖既順天命, 豈待七十不踰矩法哉. 蓋孔子興言時已七十矣. 是②自衛反魯之時也. 刪修禮樂詩書, 皆本天命而作, 如其順.

이고: 덕행과 지혜가 지극히 높은 성인은 이미 천명을 순응하였으니, 어찌 일흔까지 기다려서야 법도를 어기지 않았겠는가? 아마도 공자가 그 말을 하는 시기가 이미 일흔이었을 것이며 이때가 위나라에서 노나라로 돌아가는 시기였을 것이다. 『예』·『악』·『시』·『서』를 산정하고 수정하는 것을 모두 천명을 근본하여 지은 것이 마치 천명을 따른 것과 같다.

① 上聖

덕행과 지혜가 지극히 높은 성인

② 自衛反魯之時

공자가 14년의 주유천하를 끝난 뒤 위나라에서 노나라로 돌아온 시기를 가리킨다.

▶ [해설] 한유는 ‘耳’자는 마땅히 ‘爾’자가 되어야 하며, ‘이와 같이’로 해석한다. 앞 문장에서 오십이 되면 천명을 알았으니, 이로써 하늘의 뜻에 순응해야 한다고 한다. 이고는 한유의 말을 동의하며 공자가 이 말을 한 시기는 그가 주유천하를 한 뒤 위나라에서 노나라로 돌아오는 시기라고 해석하며, 그 때 공자는 일흔이었을 것이라고 한다. 공자가 『예』·『악』·『시』·『서』를 산정하는 것은 모두 천명을 받아서 하늘의

명에 순응했기 때문이다.

또 여기에서도 한유가 경문의 글자를 고쳐서 해석하는 경향이 보인다. 이는 문헌학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도전이며, 이를 통해 『논어』의 색다른 견해들을 볼 수 있다.

○ 子曰，溫故而知新，可以爲師矣.

공자: 옛날의 도를 알려주고 자기의 새로운 뜻을 알아간다면, 타인의 스승이 될 수 있다.

孔曰，溫，尋也。尋〔1〕釋故者，又知新者，可以爲師矣.

공안국: ‘온(溫)’은 거듭이다. 예전에 배운 것을 거듭 연구해 뜻을 찾고 또 새로운 것을 알면 남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1] 『논어주소』에 “釋”자가 “釋”자로 되어있다.

韓曰，先儒皆謂尋釋①文翰。由故及新，此②記問之學，不足爲人師也。吾謂故者，古之道也。新謂己之新意可爲師法。

한유: 선유들이 모두 문장을 거듭 연구한다고 말하였다. 옛것을 말미암아 새로운 것에 미치는 것이니, 다만 책에서 나온 것을 기록하고 암기하는 학문은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되기에 부족하다. 내가 생각하기를 고(故)는 옛날의 도이며 신(新)은 자기의 새로운 뜻으로 사범이 될 만한 것이다.

李曰，仲尼稱子貢云，告諸往而知來者，此與溫故知新義同。孔謂尋釋文翰則非。

이고: 공자가 자공한테 칭찬하여 말하였다. “지나간 것을 알려주니 앞

으로 올 것까지 안다.” 이는 ‘온고지신(溫故知新)’과 같은 뜻이다. 공안국이 문장을 거듭 연구한 것으로 해석한 것은 잘 못 되었다.

① 文翰

‘문한(文翰)’은 문장이다.

② 記問之學

‘기문지학(記問之學)’은 문장을 외우는 것에만 힘쓰는 것이다.

▶ [해설] 이 대목에서 스승이 될 수 있는 요건에 대해 논하고 있는데, 공안국은 ‘溫故而知新’을 “거듭 연구하여 새로운 것을 알다”로 해석한다. 한유는 거듭 연구하는 것은 암기하는 학문에 불과하다고 고주를 부정하였다. 그는 고(故)는 옛날의 도이고, 신(新)은 자기의 새로운 뜻으로 풀이한다. 이고는 이어서 『논어』 「학이」편의 내용을 인용하여 설명하며 한유의 해석에 동의한다.

○ 子曰, 君子不器. 子貢問君子, 子曰, 先行其言, 而後從之.

공자: 군자는 한 용도로만 쓰이는 그릇 같은 존재가 아니다. 자공이 군자에 대해 묻자, 공자는 “자신이 말하려고 하는 것들을 먼저 실천하고 난 이후에야 그것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였다.

孔曰, 疾小人多言而行(1)不周.

공안국: 말만 많고 행동이 미치지 못하는 소인을 미워하는 것이다.

[1] 『논어집해』에서 ‘之’자가 더 들어가 ‘疾小人多言而行之不周’로 되어있다.

韓曰, 上文君子不器, 與下文子貢問君子, 是一段義. 孔失其旨. 反謂疾小人, 有戾於義.

한유: 앞 문장의 ‘군자불기(君子不器)’와 아래 문장의 ‘자공문군자(子貢問君子)’는 하나의 맥락을 갖고 있는 것인데 공안국이 그 요지를 잃었다. 반대로 “소인을 미워하다”를 말하는 것은 올바른 뜻에 어긋난다.

李曰, 子貢, 門人上科也. 自謂通才可以不器. 故聞仲尼此言而尋發問端. 仲尼謂但行汝言, 然後從而知不器在汝. 非謂小人明矣.

이고: 자공은 공자 문인 중에 훌륭한 제자이다. (자공) 스스로가 여러 가지 재능을 겸비한 사람이라 한 용도만 쓰이는 그릇이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에 공자의 이 말을 듣고 질문거리를 찾아서 물었다. 공자는 다만 당신의 말을 실천한 후에 이로부터 한 용도로만 쓰이는 그릇이 아닌 것임을 알게 된다고 말한 것이지, 소인을 말한 것이 아님이 명확하다.

▶ [해설] 공안국은 공자가 말한 ‘先行其言, 而後從之’는 행동이 올바르지 않은 소인을 미워서 꾸짖는 것으로 보는데, 한유는 이를 공자가 자공을 위해 말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한유는 두 장의 경문 즉 ‘子曰君子不器.’와 ‘子貢問君子, 子曰先行其言, 而後從之.’장을 하나로 묶어서 보고 있다. 위의 구절은 군자에 대해 논하고, 아래 문장은 자공이 군자에 대해 물어보는 내용이 있어 하나의 맥락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고는 한유의 말에 동의하며, 자공은 공자 문인 중에 훌륭한 제자로서 한 용도만 쓰이는 그릇이 아니기에 뒤에 자공이 군자에 대해 물어 볼 때 공자가 먼저 실천하고 난 뒤에야 따라야 된다고 하였다.

또한 이 대목을 보면 한유와 이고가 『논어필해』에서 대담하게 경문의 순서를 바꾸는 경향이 보인다. 이러한 의경(疑經) 정신은 송학 형성의

중요한 시작이며, 논어연구의 역사에서도 큰 가치를 갖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 子張問十世可知也。子曰，殷因於夏禮，所損益可知也。
周因於殷禮，所損益可知也。其或繼周者，雖百世可知也。

자장이 열 왕조 이후의 일을 알 수 있는지를 묻자, 공자가 말하였다. “은나라는 하나라의 예법을 따랐기에 그중에 더해진 것이나 감해진 부분으로 시대의 성쇠를 알 수 있다. 주나라는 은나라의 예법을 따랐기에 그중에 더해진 것이나 감해진 부분으로 시대의 성쇠를 알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나라의 뒤를 이어 나타나는 왕조가 있다면, 백 왕조 이후의 일이라도 알 수 있다.”

孔曰，文質禮變。馬曰，所因謂三綱五常，所損益謂文質三統。

공안국: 문(文)·질(質)·예(禮)가 변한 것이다. 마응: 인습하고자 한 것은 ‘삼강오상(三綱五常)’을 이르고, 덜고 더한 것은 ‘문질삼통(文質三統)’을 이른다.

韓曰，孔馬皆未詳仲尼從周之意，泛言文質三統，非也。

한유: 공안국과 마응은 모두 공자가 주나라를 따르고자 하는 뜻을 상세히 해석하지 못하였다. 문질삼통 즉 하·상·주의 정사로 개괄적으로 설명하였는데 틀렸다.

李曰，損益者，盛衰之始也。禮之損益，知時之盛衰。因者，謂時雖變而禮不革也。禮不革，則百世不衰可知焉。窮此深旨，其在周禮乎。

이교: 손익(損益)은 성쇠의 시작이니, 예의 손익으로 시대의 성쇠를 알 수 있다. 인(因)은 시대가 비록 변화하더라도 예를 변하지 않는 것을

이른다. 예가 변하지 않으면 백 왕조 쇠락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심오한 뜻을 탐구하자면 주나라의 예에 있지 않는가.

韓曰，後之繼周者，得周禮則盛，失周禮則衰，孰知因之之義，其深矣乎。

한유: 후대에 주나라를 계승한 자가 주나라의 예를 터득하면 성대해지고, 주나라의 예를 잃으면 쇠락한다. 누가 주나라의 예를 인습하고자 하는 그 깊은 뜻을 알겠는가.

▶ [해설] 고주에서 손익(損益)을 문질삼통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한유는 이 해석이 상세하지 않고 개관적이라고 하였다. 이고는 한유의 설에 이어 예의 더해진 것과 감해진 것으로 시대의 성쇠를 알 수 있으며, 아울러 왕조의 성쇠가 예에 있다고 해석한다. 또 이고는 그 심오한 뜻이 주나라의 예에 있다고 한다. 이어서 한유는 주나라 예에 대해 덧붙여 설명하고 있다. 한유는 주나라의 예를 터득하면 성대해지고, 주나라의 예를 잃으면 쇠락해진다고 설명한다.

이 대목은 한유와 이고가 고주가 깊게 설명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여 자기의 의견을 보충 설명한 예이다.

3) 八佾第三

○ 季氏旅於泰山。子謂冉有曰，女弗能救與？對曰，不能。子曰，嗚呼！曾謂泰山不如林放乎。

계씨가 여 제사를 태산에서 지냈다. 공자가 염유에게 말하였다. “너는 계씨를 말릴 수 없었는가?” 염유는 “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공자는 “아아! 태산을 위한 것은 오히려 임방이 예를 묻는 것보

다 못하는가?”라고 말하였다.

馬曰, 救, 止也. 包曰, 泰山之神, 反不如林放者乎.

마응: ‘구(救)’는 막음의 뜻이다. 포함: 태산의 신령이 임방 만도 못하다고 여긴 것이냐?

韓曰, 謂當作爲字. 言冉有爲泰山非禮, 反不如①林放問禮乎. 包言泰山之神, 非其義也.

한유: ‘謂’자는 마땅히 ‘爲’자이어야 한다. 염유가 태산을 위한 것은 예에 맞지 않으니, 오히려 임방이 예를 묻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을 말한다. 포함은 ‘태산의 신령’을 말했는데 그 뜻이 아니다.

① 林放問禮

임방이 앞서 예의 근본을 물어본 적이 있었다. 임방이 예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묻자, 공자는 “중요한 물음이다. 예는 사치스럽게 하기보다는 검소한 편이 낫고, 상례는 형식적으로 잘 갖추기보다는 슬픔을 잘 나타내는 것이 낫다.”라고 답하였다.(林放問禮之本, 子曰, 大哉問. 禮, 與其奢也寧儉. 喪, 與其易也寧戚.)

▶ [해설] 한유는 이 문장에서 ‘謂’자가 마땅히 ‘爲’이어야 한다고 경문의 글자를 고쳐서 풀이하고자 하는 경향이 보인다. 이와 같은 한유의 독창적인 견해는 당시의 『논어』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고는 이 문장에 대해 더 이상 주해를 추가하지 않았다.

○ 子曰, 吾不與祭, 如不祭.

공자: 내가 제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 제사 지내지 않은 것과 같다.

包曰, 不自親祭, 使攝者爲之, 不肅敬與不祭同.

포함: 몸소 제사 지낼 수 없어서 대리인을 시켜 제사를 지내면 공경을 다하지 못하여 제사 지내지 않은 것과 같다.

韓曰, 義連上文禘自既灌而往, 吾不欲觀之矣. 蓋①魯僖公亂昭穆, 祭神如神在, 不可躋而亂也. 故下文云, 吾不與祭, 蓋嘆不在其位, 不得以正此禮矣. 故云如不祭, 言魯逆祀與不祀同焉.

한유: 뜻은 앞 문장 “체 제사에 술을 땅에 부어 신을 내리는 의식 이후에 나는 보고 싶지 않았다”와 연결이 된다. 아마도 노(魯) 희공(僖公)이 부자지간의 차서를 어지럽혀서 제사 지낼 때 마치 신이 와 계시는 것처럼 해야 하며 신주의 차서를 위로 올려 어지럽히면 안 된다. 그래서 아래 문장에서 ‘오불여제(吾不如祭)’를 하는 것은 아마도 (제사를 지내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제사의 예를 바로잡지 못하는 것을 탄식한 것이다. 그래서 ‘여불제(如不祭)’를 하는 것은 노나라가 제사를 어긋나게 만들어 제사를 지내지 않은 것과 같은 뜻이다.

李曰, 包既失之, 孔又甚焉. 孔註, 祭神如神在, 謂祭百神, 尤於上下文乖舛.

이교: 포함이 그 요지를 잃었고, 공안국은 더 심하다. 공안국은 ‘제신 여신재(祭神如神在)’에서 ‘백 명의 신령에게 제사를 지낸다.’라고 주석하였는데 문장 앞뒤가 모순되다.

① 魯僖公亂昭穆

여기 소목(昭穆)은 차서를 말한 것이다. 『주례(周禮)』 「춘관종백대종백(春官宗伯大宗伯)」에서 정현은 “부(父)는 소(昭)이고, 자(子)는 목(穆)이다.”라고 해석하였다. 여기의 소목은 부자간의 차서를 가리킨다.

노 장공(魯莊公)이 두 아들이 있는데 희공(僖公)은 형이지만 서자(庶子)이고, 민공(閔公)은 동생이지만 적자(嫡子)이다. 노 장공이 죽은 뒤 민공이 군자 자리에 올랐고, 민공이 죽은 뒤 희공이 군주의 자리에 올랐다. 비록 희공이 민공보다 나이가 많지만 천자 자리에 오르는 것은 민공이 먼저였다. 그래서 위폐를 세울 때 민공은 희공 앞에 있다. 그러나 희공의 아들인 노 문공(魯文公) 재위 시 대신들이 노 문공의 환심을 얻기 위해 희공의 위폐를 민공 앞에 올렸다. 공자는 이것을 보고 노나라가 제사를 어긋났다고 꾸짖는다.

▶ [해설] 한유와 이고는 이 대목에서 포함과 공안국의 설을 모두 부정하여 설명한다. 고주에서는 공자가 직접 제사를 참여하지 않은 것은 공경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한유는 노희공이 제사할 때 위폐의 순서를 어지럽혀 노나라가 제사를 어긋나게 만들어 제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이고는 한유를 동의하며 포함이 그 요지를 잃었다고 한다.

○ 子貢欲去告朔之餼羊.

자공이 고삭에 희생인 양을 제물로 바치는 예를 없애고자 하였다.

鄭曰，禮，人君每月告朔於廟，有祭謂之[1]廟享.

정현: 예에 임금이 달마다 종묘에 양을 받쳐 제사를 지내니, 이를 묘향(廟享)이라 한다.

[1] 『논어주소』에서 ‘廟’자가 ‘朝’자로 되어있다.

韓曰, 人君謂天子也. 非諸侯通用一禮也. 魯自文公六年閏月不^①告朔, 猶朝於廟. 左氏曰, 不告朔, 非禮也. 吾謂魯祀周公以天子禮. 魯君每月朔不朝於周, 但朝周公之廟, 因而祭曰廟享. 其實以祭爲重爾. 文公旣不行告朔之享, 而空朝於廟, 是失禮也. 然子貢非不知魯禮之失, 特假^②餼羊之間, 誠欲質諸聖人以正其禮爾. 又曰天子云聽朝, 謂聽政於天下也. 諸侯云告朔, 謂以下之政告於上也. 每月頒朔於諸侯, 諸侯稟朔奉王命藏祖廟, 於是魯有廟享之文, 他國則亡此禮.

한유: 인군을 천자라고 이른다. 제후들이 통용한 하나의 예가 아니다. 노나라는 문공(文公) 6년부터 윤달에 고삭(告朔)을 하지 않았지만, 아직도 종묘에 참배를 한다. 『춘추좌전』에서 “고삭을 하지 않으면 예가 아니다.”로 되어있다. 나의 생각으로는 노나라가 주공에 제사를 지내는데 천자의 예로 지냈다. 노나라 임금이 매월 삭날에 주나라를 참배하지 않고 다만 주공의 종묘를 참배한다. 그래서 그 제사를 ‘묘향(廟享)’으로 이른다. 그 사실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시하는 것이다. 문공이 고삭의 묘향을 하지 않고 종묘에 헛되게 참배하지 않은 것은 예에 어긋난 것이다. 그러나 자공이 노나라가 예에 어긋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일부러 회양(餼羊)의 문제를 빌려 진실로 여러 성인들을 여쭙어서 그 예를 올바르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천자가 ‘청조(聽朝)’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정사를 듣는 것을 말한다. 제후들이 고삭을 하는 것은 아래에 있는 사람이 정사를 윗사람에게 아뢰는 것을 말한다. 매월 삭을 제후에게 나눠 주고, 제후들이 삭을 받아 왕명에 따라 사당에 보존한다. 그래서 노나라는 묘향의 기록이 있고, 다른 나라는 이 예가 없어졌다.

李曰, 襄二十九年春王正月公在楚. 左氏曰, 釋不朝正於廟, 吾謂魯禮正月歲首謂之朝正. 他月卽謂之告朔, 蓋二禮歟.

이고: 양공 29년 봄 정월에 임금이 초(楚)나라에 있다. 『춘추좌전』에서 이를 “임금이 종묘에 제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한다. 나의 생각으로는 노나라의 예에서 연초 정월을 ‘조정(朝正)’으로 부르고, 다른 달을 ‘고삭’으로 부른다. 그래서 두 가지 예일 것이다.

又曰, 案周禮, 正月之吉, 始和, 布治于邦國都鄙. 蓋當時諸侯皆有稟命告朔明文, 其所無者, 惟朝正不^③侔周公廟享爾.

또한 『주례』에 의하면 정월의 길함은 처음부터 조화로워 다스림이 서울과 시골에 퍼뜨렸다. 아마도 당시 제후들이 모두 고삭을 받은 명문이 있었을 것이다. 명문이 없는 것은 오직 조정이 주공을 참배한 제사인 묘향과 동등하지 않다는 것이다.

① 告朔

‘고삭(告朔)’은 천자가 매년 겨울에 다음 해의 책력을 제후에게 반포하는 것을 가리킨다.

② 餼羊

‘희양(餼羊)’은 제사 때 사용하는 양을 가리킨다.

③ 侔

‘모(侔)’는 동등하다이다.

▶ [해설] 이 대목에서 한유와 이고가 고삭(告朔)이라는 제사에 대한 설명하고 있고, 또 묘향(廟享)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한유는 이 대목에서 자공이 고삭에 희생인 양을 제물로 바치는 예를 없애고자 하는

것은 그가 예에 대해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희양(饑羊)의 문제를 빌려 예를 올바르게 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설명한다.

〈참고문헌〉

- (唐)韓愈 等 撰, 『論語筆解(及其他兩種)』, 北京: 中華書局, 1991.
- (唐)韓愈 著, (日)伊東龜年 校正, 『韓文公論語筆解』, 日本昭和八年刻本.
- (唐)韓愈 撰, (宋)文謙 註, 王儔 補註, 『新刊經進詳註昌黎先生文』,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4.
- 唐明貴, 『論語學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9.
- 李藝, 「清代女作家林以寧文學創作研究」, 西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8.
- 金培懿, 「從文獻傳播流變談今本『論語筆解』——以伊東龜年『按刻韓文公論語筆解』所作的考察」, 『中國文哲研究集刊』, 2010.
- 楊國安, 「蜀刻『新刊經進詳註昌黎先生文』考論」, 『河南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7.
- 陳杏珍, 「宋代蜀刻『經進詳註韓文』與『百家註柳文』」, 『文獻』, 1992.
- 唐繼添, 「『論語筆解』解經特色研究」, 『時代文學』, 2010.
- , 「『論語筆解』的成書背景與語言特色研究」, 『攀枝花學院學報』, 2012.
- 黃愛平, 「『論語筆解』“破注”細探——兼談『論語筆解』思想方法上的創新」, 『遠東通識學報』, 2008.
- 김주옥, 「『논어필해(論語筆解)』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 이기운, 「『論語筆解』의 解釋學的 理解」,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The Commentary on *The Analects with Explanatory Notes*
 論語筆解

Kim, Juock^{*}

Hanyu 韓愈 and Li'ao 李翱's *The Analects with Explanatory Notes* 論語筆解 is one of the *The Analects* of Confucius's commentaries that doubt the scriptures and refute it. In this book Hanyu and Li'ao alternately talk and interpret the scriptures. And they unravels *The Analects* in the process of doubting the contents of the scripture. Not only that they quote the content about xing 性 and dao 道 also this book that opened the beginning of the Song Dynasty Neo-Confucianism in the context of the history. However compared to its importance, there are not many studies in Korea.

In this paper, I attempt to know the status and impact of *The Analects with Explanatory Notes* through the commentary. And I hope to be able to use it as a basic data for future research and useful in analyzing the aspect of Hanyu and Li'ao.

Key Words

Hanyu, Li'ao, Lunyu Bijie, *The Analects with Explanatory Notes*

논문접수일: 2023. 5. 11, 심사완료일: 2023. 6. 7, 게재확정일: 2023. 6. 30.

^{*} PhD stud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 E-mail : kimjuock@snu.ac.kr

서평: 헤르메스를 위한 변명^{*}

— 『朱子大傳』과 『陽明大傳』 번역에 부쳐

김태완^{**}

-
1. 언어에 관한 단상斷想
 2. 번역, 다른 언어와 만남
 3. 헤르메스를 위한 변명
 4. 『주자평전』과 『왕양명평전』 번역 전말과 소회
 5. 驥尾千里
-

■ 국문요약

사람은 태어나면서 언어세계의 일원이 된다. 철학, 진화생물학, 인지과학 등 여러 학문분야에서 언어의 기원, 언어의 본질, 인간 언어능력의 생득성(이른바 언어본능) 등 언어에 관한 온갖 탐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다. 언어의 본질에 관한 연구는 언어학의 문제로 차치하고 현실에서는 모든 인간은 기성 언어의 세계의 일원으로 태어나서 살아간다. 태초의 언어가

* 이 글은 中國 浙江省 杭州 浙江大學 東景南 교수의 『朱子大傳』, 『陽明大傳』을 번역하고서 느낀 소회와 번역의 전말을 서술하기 위해 쓴다. 아울러 번역과 나아가 언어(모국어 및 외국어)에 관한 내 생각을 밝히려고 한다. 이 글은 2018년에 출간한 『나의 외국어 학습기』와 아이디어와 내용, 표현이 어느 정도 중복된다. 이 점을 미리 밝혀두어서 읽는 이의 양해를 구한다. 또한 이 글은 연구의 주제를 정하고 가설을 세우고 탐구하여서 논리적 결론을 이끌어내는 학술적인 논문이 아니라 그간 동양고전 및 학술서적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느낀 소회를 서술하여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他山之石으로 삼게 하려는 목적을 지향한다.

**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특별연구원 / E-mail: youngok0215@hanmail.net

어떤 언어였건 우리는 이미 언어가 작동하는 세계에서 태어나 살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이름이 알려진 대상사물은 이름과 지시체 사이의 관계를 받아들여 언중과 의사소통을 하며 새로운 사물을 접하게 되면 무어라고 명명을 함으로써 그 사물이 우리 의식에 존재하게 된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언어는 다르다. 그래서 아주 오랜 고대사회부터 다른 언어와 소통을 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이 소통의 역할을 번역(통역)이라 한다. 번역은 원칙적으로는 100% 정확하게 원본을 전달해야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의 선이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전달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정확한 전달과 자의적 왜곡 사이에는 해석이 개입한다. 그리고 한 문화가 다른 문화와 만나게 되면 반드시 번역의 과정을 통해 서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통해 양자의 문화가 발전한다.

고대 동아시아 사회는 번역을 통해 불교를 받아들였고 근대에는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마찬가지로 서양에서도 동서교역이 이루어지면서 불교와 유교, 도교와 같은 동양사상이 전파되었다. 번역은 이처럼 한 문화의 발전에 있어서 창작에 못지않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우리 근대사회는 번역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었다. 번역을 통역과 비슷한 역할로 생각하고 통역은 중인인 역관이 전담하는 일이라는 오랫동안 내려온 인습적 고정관념에서 비롯한 측면과 연구의 역량을 기르는 일환으로 번역을 받아들인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번역물은 원작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 번역은 원작의 존재와 함께 출발하는 것이다. 번역은 원작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만 번역되고 나면 이식된 곳에서 또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고 나아가 그 자체 텍스트가 된다.

주제어 : 언어의 세계, 이름과 지시체, 언어의 소통, 번역, 선이해, 해석, 역관

1. 언어에 관한 단상斷想

사람은 태어나면서 언어세계의 일원이 된다. 아득한 옛날부터 사람들

이 언어 현상에 관심을 가진 이래로 지금까지 철학, 진화생물학, 인지과학 등 여러 학문분야에서 언어의 기원, 언어의 본질, 인간 언어능력의 생득성(이른바 언어본능) 등 언어에 관한 온갖 탐구를 계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결론을 얻지 못한 채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다. 촘스키(A. N. Chomsky, 1928-)의 '변형문법'이 아주 오랫동안 언어학계를 지배하는 듯이 하더니 근래에는 인지과학, 진화생물학, 문화인류학 등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연구방법론에 힘입어서 문화와 언어의 상호작용, 언어의 진화적 측면으로 언어의 기원과 속성을 해명하는 이론이 촘스키의 공고한 아성을 무너뜨리면서 차츰 힘을 얻어가고 있다.

그러나 언어학, 그야말로 언어 그 자체를 연구하는 학문을 벗어난 우리 일상의 생활세계에서는 언어의 본질, 언어의 존재론적 기반, 언어의 상징과 의미에 관한 이해가 달라진다. 우리의 세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방식으로, 곧 자연과학이나 물리학적 세계로, 천문학적 시공의 숫자로 아무 말도 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세계는 우리가 구사하는 언어 안에 있는 것이다. 인간은 언어로써 생각하고 언어로써 세계를 구성한다.

『구약성서』에서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명령)으로써 천지를 창조하였다고 한다. 우주와 삼라만상이 모두 '그가 말씀하시매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매 견고히 섰던' 것이다.¹⁾ 창조주는 인류가 생존을 하고 문명을 일구어낼 모든 조건을 마련한 다음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한다. 그러고서 동식물을 사람 앞에 데리고 가서 보인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

1) 『성경전서』 「시편」 33: 9.

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 六畜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²⁾

‘아담의 이름 짓기’ 신화는 무엇을 말하는가! 사람은 어떻게든 대상사물을 무어라고 이름을 붙임으로써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 여러 해 전, 대안학교에서 일을 할 때 중등학생들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 ‘여기에 인형이 하나 있다면 맨 먼저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물었다. 남학생들은 뜬금없는 질문이라는 듯 특별히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혹은 어떻게 할 바를 잘 모르겠다는 듯이 반응을 하였다. 여학생들은 이러저러한 답을 했는데 그 가운데 대다수 여학생이 공감한 답 가운데 이런 말이 있었다. “맨 먼저 인형에게 이름을 지어준다.”

남학생은 어릴 때 인형을 자기 놀이의 세계 안에서 생각해본 적이 별로 없었을 것이다. 지금도 초등학교 남자 아이들의 생활세계를 들여다보면 주로 차나 총, 레고 같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속도와 힘을 추구하거나 구조를 쌓아가는 성질의 장난감을 선호하고 있다. 여학생은 어릴 때부터 인형을 늘 가까이 했기에 인형을 대하는 방식이 아주 익숙하다. 그래서 여학생은 인형이 하나 생기면 맨 먼저 이름을 지어준다고 대답하였던 것이다. 남학생과 여학생을 굳이 구별하지는 것이 아니라 낯선 대상사물을 대하는 원초적인 방식이 일반적으로 이름 짓기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말하려는 것이다.

태초에 하느님이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였으며, 태초의 인간 아담이 그의 눈앞에 나타나는 동물을 일컫는 말이 그대로 이름이 되었다 하는 신화는 인류 시원의 사람들이 세계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우주의 형성, 아니 지구의 탄생만 하더라도 45억 년 전의 일이며,

2) 『성경전서』 「창세기」 2: 19-20.

거칠게 말하자면 생물이 출현한 것은 30억 년쯤, 現生屢代의 출현은 5억 년쯤이다. 그리고 600만 년쯤에 와서야 아프리카 유인원에서 인류로 진화하는 갈래가 나타났으며, 호모 에렉투스가 150만 년쯤, 호모 사피엔스가 20만 년쯤 전에 출현했다고 알려져 있다. 수백 만 년, 수십 억 년 단위의 지질학적 연대는 물리적 세계의 구조와 존재를 설명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세계와 우주를 인식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천지창조나 아담의 命名 신화는 바로 우주나 세계의 형성은 인간의 언어적 지칭과 함께 생겨났다,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의 의식 내에 들어오으로써 비로소 우주와 세계가 존재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 곧 우리의 개념적 인식의 세계가 실제로 우리가 의식하고 지각하는 세계인 셈이다.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세계는 언어로 묶이는 세계, 언어가 표현할 수 있는 한에서의 세계인 것이다.³⁾

태초에 생물이 어떻게 생겨났건, 森羅萬象이 어떻게 이루어졌건, 우주와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건 우리는 모두 이미 어떻게든 구성되어 있고 존재하는 세계, 사회의 조직이 갖추어진 세계에서 태어났다. 또한 태초의 언어가 어떤 언어였건⁴⁾ 우리는 이미 언어가 작동하는, 곧 언어의 세계에서 태어나 살고 있다. 그런 점에서 기존의 이름이 알려진 대상

3) '언어의 한계는 세계의 한계'라는 비트겐슈타인(L. J. J. Wittgenstein)의 유명한 명제를 떠올릴 수 있다.

4) 태초의 단일한 언어는 어떤 언어였을까 하는 물음은 엉뚱한 면도 있지만 나름대로 매우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물음이기도 하다. 이런 물음 배후에는 모종의 음모나 기획이 숨어 있을 수도 있지만, 예컨대 자국 언어나 자기 문화체계를 이룬 언어의 우월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고대 이집트 프삼티크(Psammetichos) 1세(664-610 재위), 신성로마제국 프리드리히(Friedrich) 2세(1220-1250 재위), 스코틀랜드 제임스 4세(1488-1513 재위)는 모두 언어의 접촉을 제한한 상태에서 아동을 양육하여 어떤 언어를 말하는가를 통해 태초의 언어를 찾고자 하는 실험을 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모텐 H. 크리스티안센, 닉 채터/이혜경, 『진화하는 언어』, 웨일북, 2023, p. 398, 주) 7. 참조.

사물에 대해서는 그 사물의 이름과 지시체 사이의 관계를 받아들이면서 파악한다. 그러나 알려져 있지 않거나 命名되지 않은 사물을 접하게 되면 어떻게든 그 사물을 무어라고 命名하고 그 명칭을 공유하여 서로 소통함으로써 그 사물은 우리 의식에 하나의 존재로서 자리하게 된다. 이름이 사물을 단순히 지칭하는 指示體에서 개념화하고 문법적 機能所를 얻어서 의사소통의 역할을 하기까지는 또 언어적 발전의 과정을 지나야 할 것이다. 곧 단순히 사물을 지칭하던 이름이 언중에 서로 쓰이면서 내용과 의미를 담은 말이 되고, 지시적 기능을 가진 말에 서술적 기능을 가진 말이 더하여서 문법적 체계를 가지면서 언어로 발전했을 것이다.⁵⁾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⁶⁾

5) 사실 원초적 언어가 동사적(서술적) 구조였을까, 명사적(지시적) 구조였을까 하는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도 존재하는 원시적 언어 가운데에는 품사가 명사와 동사로만 되어 있는 언어도 있다고 한다. 『진화하는 언어』, p. 22 참조.

6) 김춘수, 「꽃」.

이 시의 주체의식이나 미학, 문학사상이 무엇이든 시의 표면에 나타나는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상과 나 사이에 이름을 통해 관계를 맺는다는, 그리고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그의 존재를 승인하고 나의 의식에 자리매김을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命名과 개념규정으로서 언어의 기원과 본질에 관한 哲學的 懷疑는 그 역사가 아주 오래되었고 또 언어의 한계에 관한 원초적인 반론은 언어에 관한 성찰에서는 늘 요청된다. 『老子』의 제1장은 언어의 규정적 한계를 인상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道는 道라고 할 수는 있지만 한결같은(그 자체, 본질적인) 道는 아니다.

이름은 (대상을) 이름붙일 수는 있지만 한결같은(그 자체, 본질적인) 이름은 아니다.⁷⁾

너무나도 유명한 이 언설은 그 자체로 수많은 주석을 남기고 있고 또한 노자 사상의 핵심이자 상징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이러한 노자의 이름(언어)의 한계에 관한 본질적 성찰은 유가의 正名 사상과 일종의 에난티오드로미아(enantiodromia)를 형성한다. 孔子는 春秋시대 혼란상의 한 원인을 名分の 붕괴에서 찾는다. “명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리에 맞지 않고 말이 순리에 맞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약이 일어나지 않고 예약이 일어나지 않으면 형벌이 적중하지 않고 형벌이 적중하지 않으면 인민은 손발을 들 곳이 없다.”⁸⁾ 孔子는 人間事가 정치의 영역을 벗어날 수 없고 정치에서 가장 우선할 것은

7) 『老子』 1章. 道可道, 非常道, 名可名, 非常名.

8) 『論語』 「子路」. 名不正則言不順, 言不順則事不成, 事不成則禮樂不興, 禮樂不興則刑罰不中, 刑罰不中則民無所措手足.

권력기구, 행정과 법령, 정치이념 등의 명분을 바로세우고 여기에 맞추어서 정치를 이끌어가야 사회의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⁹⁾

그러나 명분과 실제의 불일치는 人間世에서 피할 수 없는 모순이며 부조리이다. “글은 말을 다 나타내지 못하고, 말은 뜻을 다 나타내지 못한다.”¹⁰⁾ 하는 관념 또한 일찍부터 형성되어서 지시적 기능과 의사소통의 기능으로서 언어의 본질적 한계에 관한 성찰이 동양문화의 텍스트에서는 아주 일찍부터 나타났으며 언어의 표현을 넘어선, 또는 언어 이외의 방법으로도 의미를 지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언어에 관한 이해를 피상적으로 이해하면 언어를 한갓 뜻을 전달하는 수단이나 방편으로만 보게 한다.

장자는 언어의 수단으로서 가진 속성을 우의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통발은 물고기를 잡기 위한 도구이니 물고기를 잡은 뒤에는 통발은 잊어버린다. 올무는 토끼를 잡기 위한 도구이니 토끼를 잡은 뒤에는 올무는 잊어버린다. 언어는 뜻을 전달하기 위한 도구이니 뜻을 얻으면 말은 잊어버린다. 내 어찌 말을 잊은 사람을 얻어서 그와 함께 말을 해볼까!¹¹⁾

그러나 장자의 술회에서 마지막 구절은 언어의 본질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언어에 의존해야 하는 인간의 의사소통의 현실을 아이러니하게

9) 孟子和荀子 역시 기본적으로 孔子의 正名 사상에 입각하여 언어의 정확한 의사 전달의 기능을 긍정하고 명확한 이해를 추구하였다. 孟子는 知言을 언급하여 언어의 정확한 파악을 주장하였고, 荀子は 正名을 통해 언어의 사회적 기능을 분석하였다. 『孟子』 「公孫丑·上」과 『荀子』 「正名」에서 상세하게 논증하였다.

10) 『周易』 「繫辭·上」 12章. 子曰, 書不盡言, 言不盡意.

11) 『莊子』 「外物」. 筌者所以在魚, 得魚而忘筌. 蹄者所以在兔, 得兔而忘蹄. 言者所以在意, 得意而忘言. 吾安得夫忘言之人而與之言哉!

보여주고 있다. 인간은 언어로 의사를 완벽하게 소통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언어(또는 언어적 수단)가 없이는 의사소통 자체가 불가능하다.¹²⁾

고대 중국인들이 특히 언어의 한계에 일찍부터 민감했던 것은 어쩌면 일정부분 고전중국어(文言漢文)의 문자와 언어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고대중국어는 한 음절이 句를 이룰 수도 있으며 문자인 한자는 한 글자가 수많은 뜻을 가진 데다 同音異議語가 아주 많고 품사의 轉成이 쉽다는 등의 특성이 있어서 의사소통 과정에서 문자와 언어가 갖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고 하겠다. 덧붙이자면, 이런 특성은 언어적 한계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특성이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그만큼 의미의 폭이 유동적이고 유연하여서 해석의 여지가 많으며 言外의 의미를 포착하게 만드는 知的 動因이 되기도 한다.

아무튼 인류의 문화가 형성된 이래 모든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고 언어는 소통을 지향하게 되어 있다. 언어가 순전히 나와 어떤 구체적 대상물 사이의 지시적 행위에만 국한된다 하더라도 역시 소통의 측면을 띠고 있다. 내가 어떤 대상을 무어라고 이름을 붙이거나 부르는 것은 그 대상과 내가 소통을 하는 것이며 내 의식에 존재하게 하는 것이며 나아가 그 지시어가 유통되어서 한 사회에 자리매김하면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나는 그 대상을 무어라고 命名함으로써 그 대상과 관계를 맺는다. 우리는 언어가 없는 세계는 상상도 할 수 없다. 물고기가 물에서 살면서 물을 의식하지 않듯이, 우리는 날마다 한순간도 쉽

12) 手語나 몸짓, 손발짓도 언어의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언어가 순전히 제스처 제임에서 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양자 사이에 의사를 전달하지 못한다면 의미 없는 몸짓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양식을 따르더라도 전달하려는 의미는 서로 간에 통해야만 한다. 개는 사람의 손짓이나 음성의 미세한 차이에서 의미를 추출하여 의사를 알아듣고 반응하지만 문제는 이를 체계화하거나 추상화하지는 못한다. 아직까지는 의미전달로서 언어현상은 인간에게만 고유한 능력으로 여겨야 한다.

이 숨을 쉬면서 살지만 공기를 의식하지 않듯이 언어의 바다에서 헤엄치며 언어의 공기를 마시고 내뿜으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2. 번역, 다른 언어와 만남¹³⁾

翻譯은 翻과 譯이 합한 말이다. 翻¹⁴⁾은 원래 글자 뜻이 ‘날다’는 뜻이고, 여기서 뜻이 확장되어서 ‘나부끼다, 뒤치다, 뒤집다’와 같은 뜻이 생기고 또 더 발전하여서 ‘번역하다’ 하는 뜻이 되었다. 譯은 훨씬 이전부터 다른 언어를 자기 언어로 옮기는 일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예기』 「왕제」에, 중국을 중심으로 사방 민족과 언어가 소통하지 않아서 의사소통을 하려면 번역이 필요하며, 사방의 말을 통역하는 사람을 각각 동방은 寄, 남방은 象, 서방은 狄鞮, 북방은 譯이라 한다고 하였다.¹⁵⁾ 司馬遷(145-85. B.C.)의 『史記』에도 한이 건국되고 체제를 갖추어서 강대국이 되자 풍속과 문화가 다른 사방 이민족이 여러 단계의 통역(重譯)을

13) 이 단락의 내용은 2018년에 출간한 줄거 『나의 외국어 학습기』, 메멘토의 머리말 부분을 부분 수정하여 다시 실었다.

14) 翻은 翻의 이체자이다. 장영진, 『漢字字源辭典』, 심산, 2018, p. 572. 중국에서는 번역이라고 할 때 주로 翻譯(간체자로는 翻译)이라고 하며, 우리가 언어로 번역을 하는 행위를 通譯이라고 따로 구별하는 것과 달리 書面이든 口頭이든 두 언어를 매개하는 행위를 모두 翻譯이라 한다. 『禮記』 「王制」의 해당 구절의 주석에 각각 傳寄, 放象, 相知, 陳說이라고 하였는데, 그 의미는 두 언어 사이를 매개하면서 일어나는 통역의 여러 양상을 하나씩 추출하여서 말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동방의 언어를 통역할 때는 오로지 傳寄의 역할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 여러 이민족과 중국이 의사소통을 할 때 이들 통역의 여러 양상이 다 일어나지만 이민족의 방향에 따라 번역의 양상을 하나씩 대별하여 개념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통역하는 과정에서 이런 여러 기능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15) 『禮記』 「王制」, 五方之民, 言語不通, 嗜欲不同. 達其志, 通其欲, 東方曰寄, 南方曰象, 西方曰狄鞮, 北方曰譯. 『예기』의 기록을 따르면 고대 중국세계에서는 번역 또는 통역을 서로 다른 언어 사이의 소통이라는 일반적 행위로 보지 않고 해당 언어 상호간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식한 듯하다. 그러니까 翻은 자국어(를) 다른 언어로 옮기는 일이고 譯은 외국어를 자국어로 옮기는 일이 되는 셈이다.

거쳐서 중국과 교류를 청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¹⁶⁾

굳이 말할 것도 없이 사람은 말을 하는 동물이다. 아기가 갓 태어나서는 밤낮을 구별 못하고 오로지 울음으로만 배고픔과 엄마 뱃속에서 내던져진 불안과 오줌똥을 지리고서 몸의 불편함을 표현하다가 차츰 눈을 뜨고 사물을 보게 되면서 웅알이를 시작으로 손짓, 발짓, 몸짓을 더하여서 자기 생각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인다. 아기가 울음, 몸짓, 웅알이로 자기의 감정과 의사를 전달하다가 말을 배워서 말을 하듯이 인류는 거의 울음이나 웅알이, 몸짓의 수준으로 의사소통을 하다가 말이라는 추상적 매개를 만들어 내서 사용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을 보냈는지는 알 수 없다. 어쨌든 인류의 생물학적 진화의 어느 순간에 말을 하는 기능이 생겨나고 말을 하게 되면서부터는 문명과 문화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다. 언어의 탄생과 관련하여 인류의 생물학적 진화와 문화적 진화의 과정이 어떠한 지今の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바로 그 순간부터 어떤 말을 하는 집단의 일원이 된다. 그리고 내가 태어남을 선택할 수 없듯이 내가 엄마말(mother tongue)을 선택할 수는 없다.

생물학적으로 사람은 단일한 종인데 왜 말이 서로 다를까? 같은 나라, 같은 지방 사람들이라도 지역에 따라 심지어 같은 마을이라도 동네에 따라 다른 말을 쓰기도 한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

16) 『史記』「太史公自序」. 漢興以來, 至明天子, 獲符瑞, 封禪, 改正朔, 易服色, 受命於穆清, 澤流罔極, 海外殊俗, 重譯款塞, 請來獻見者, 不可勝道.

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더라.¹⁷⁾

바벨탑 설화가 알려주듯이 사람은 원래 애초에는 같은 말을 쓰다가 차츰 인류가 분화하고 흩어지면서 말도 달라졌으리라.¹⁸⁾ 원시공통어가 유일한 하나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적어도 소수의 언어가 갈라져서 오늘날 지구상의 수 천 수 만 언어로 분화했으리라. 언어는 어법 또는 문법의 유형이나 사용하는 민족의 계통에 따라 갈래를 지을 수 있으며, 유사한 갈래의 언어라면 어느 정도 의사소통도 가능하다.¹⁹⁾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아무도 외국어 학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필

17) 『성경전서』 「창세기」 11: 1-9

18) 현생인류가 아프리카의 소수 여성에게서 기원했다는 지금까지 알려진 인류 진화의 패턴을 따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진화설에 비판을 제기하는 진화인류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인류의 기원이 한 곳이라 여러 곳이라 하더라도 인종이나 종족의 기원과 언어의 분화는 같은 궤적을 그린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역시 태초의 언어는 하나 또는 소수였을 것이다.

19) 현재 알려진 지구상의 어떤 언어와도 친연성이 없는 언어 역시 발견되어서 학계에 보고되고 있다. 다른 어떤 언어의 문법 체계와도 관련을 지을 수 없고 그 자체 고정된 문법체계도 없고 제3의 언어로 번역도 불가능한 언어가 실제로 있다고 한다. 이런 특수한 언어세계의 사례를 眞眞하게 보여주는 현장연구의 성과가 있다. 아마존 원주민의 언어, 그 가운데 특히 피다한(Pirahã)의 언어세계에서 30년간 문화인류학적 연구와 선교를 진행하시고서 얻어낸 성과를 책으로 펴낸, 다니엘 에버렛/윤영삼, 『잠들면 안 돼, 거기 뱀이 있어』, 꾸리에, 2013를 참조하라. 이 책은 인간의 언어가 문화와 종족에 따라 얼마나 특수한 양식을 띠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그러나 이런 아주 특수하고 특이한 언어의 경우를 들어서 현대 문명화한 세계의 언어와 번역의 논의에 반론을 제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아주 고대사회부터 이민족끼리 교섭하면서 그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저절로 생겨나고 발전해온 언어의 융합, 번역과 통역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요에 의해서든 사회적 부과에 의해서든 초중등 학교에서부터 영어를 비롯하여 제2, 제3 외국어를 공부해야만 한다. 태어나면서부터 이중언어나 다중언어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모국어 체계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외국어를 접해야 하며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학습하는 외국어 언어체계는 기존 한국어 언어체계와 불가피하게 충돌을 한다. 그리하여 외국어 학습은 대부분의 학습자에게는 커다란 스트레스가 되고 중등학습 과정에서 험난한 장벽이 된다. 뿐만 아니라 취업을 하고 평생 생애의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외국어, 특히 영어의 압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외국어(특히 영어)를 잘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는 생존에 유리한 조건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누구나 영어를 배워야 하기 때문에 여간해서는 변별이 될 만큼 탁월한 실력을 쌓기도 쉽지 않다.

우리는 주위에서 가끔 아무개는 몇 개 국어에 능통하다 하는 말을 듣는다.²⁰⁾ 한 나라 외국어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보통사람들 처지에서는 몇 개 국어에 능통하다는 말을 들으면 기가 죽기 마련이다. 그러나 외국어 공부,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접근해본 사람이라면, 외국어를 남보다 잘 할 줄 안다고 해서 능통하다는 말을 쉽게 할 수가 없다. 사실 외국어를 잘 하고 못 하고는 객관적인 기준도 없다. 외국어 공부의 준칙은

20) 예를 들어, 인도유럽어족에 속하는 언어세계의 言衆은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가 인도유럽어 언어를 배우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여러 언어를 학습할 수 있다. 특히 같은 어군에 속하는 언어는 더 쉽게 익힐 수 있다. 로망스어군에 속하는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에스파냐어라든가, 게르만어군에 속하는 영어, 독일어, 스웨덴어, 네덜란드어 등 같은 어군에 속하는 언어는 서로 문법체계나 어휘에 친연성이 커서 애써 공부를 하지 않아도 조금만 익히면 웬만한 의사소통은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동아시아 나라들은 그렇지 않아서 한국, 중국, 일본은 서로 국경을 맞대고 유사 이래 빈번하게 교류를 해왔고 역사적 운명의 부침을 같이 겪었지만 체계적으로 학습을 하거나 상당 기간 체류하지 않으면 거의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 중국어는 아예 語族이 한국어와 다르니 차치하고라도, 일본어와는, 아직도 논란은 있지만, 같은 만주-통구스어계에 속하지만 상대적으로 의사소통이 쉽지 않다.

자기 감양에 맞게, 자기 목표나 목적에 맞게 공부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외국어 학습 과정에서 그 언어문화를 원하는 만큼 큰 불편 없이 향유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언어는 남과 의사소통을 하는 수단이며, 자기를 표현하고 세계를 이해하는 창문이다. 외국어를 공부하는 목적은 외국의 문화와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며 외국어 세계를 이해하려는 것이지 아주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외국어 자체를 위해 외국어를 학습하지는 않는다.

외국어 공부는 일반적으로 교양을 갖춘 시민으로서 거쳐야 할 학습과정이라면 번역은 바로 이 외국어와 자국어 사이에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는 일이다. 그리하여 번역은 다른 두 언어의 소통으로서 그 자체 목표가 아니라 과정인 것이다. 아무나 쉽사리 읽을 수 없는 외국어 텍스트를 자국어로 뒤집어서 옮겨줌으로써 언중이 그 텍스트를 읽고 그 세계에 들어가게 길잡이 역할을 하고 架橋 역할을 하는 것이다.

3. 헤르메스를 위한 변명

헤르메스는 번역(통역)의 신이기도 하다. 원래 올림포스의 신들과 지상의 인간들에게 주신主神 제우스의 뜻을 전달하는 傳令神인 헤르메스는 인간의 꿈에 나타나 한 인간에게 가해질 운명에 관한 제우스와 신들의 의지를 전한다. 전령의 사명은 원칙적으로는 전해야 할 명령의 내용을 100% 그대로 전달해야 한다. 전해야 할 명령의 내용에 조금이라도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그 명령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다는 말이다. 자기 해석을 명령에 집어넣게 되면 명령은 불가피하게 왜곡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전령은 명령을 정

확하게 전달할 사명이 있다. 전달받은 명령을 해석하는 일은 전령을 통해 명령을 전해 받은 사람의 몫이다. 그러나 이는 전령의 이상일 뿐 실제로 명령을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필연적인 왜곡이 일어나게 된다. 왜냐하면 명령자와 전달자는 같은 언어로 말을 한다 하더라도 저마다 자기의 말로 말을 하며 양자의 말이 만들어 낸 언어의 세계는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이 딜레마를 헤르메스는 제우스에게 이렇게 말한다. “아버지 제우스시여! 저는 아버지의 뜻을 최대한 그대로 전달하겠지만 온전히 그대로 전달한다고 자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우스의 명령을 헤르메스는 자기의 이해력 안에서 들을 터이고 자기가 알아들은 대로 전달할 터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왜곡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철학의 한 분야인 解釋學(hermeneutics)은 바로 이 원래의 텍스트와 텍스트를 해석하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오해/왜곡을 밝혀내는 학문이다. 사람은 의사소통을 하는 능력을 갖고서, 물론 동식물도, 심지어 원생생물조차도 아주 원초적인 수준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한다. 의사소통은 언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입으로 發話하고 귀로 聽取하는 음성 언어 이외에도 손짓, 발짓은 물론 소통 당시의 모든 상황이 총체적으로 작용을 한다. 또한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상대방의 의사를 상대방의 관점에서 100%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관점에서, 자기가 이전에 지니고 있던 경험과 의식을 바탕으로 한 先理解(Pre-understanding)를 가지고서 받아들인다. 先理解는 先入見이나 偏見과 비슷하게 작용을 하기는 하지만 결코 先入見, 偏見과 같은 것이 아니다. 이전에 지니고 있던 체계화한 이해, 의식, 지식과 자기의 경험, 체험의 복합적 작용 같은 것이다. 이런 선이해의 구조가 모든 사람에게는 내재

해 있어서 어떤 말을 들을 때 작용을 하여 자기 나름대로 상대방의 의사를 해석하고 수용하는 것이다. 번역은 그런 점에서 번역자가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先理解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²¹⁾

번역은 외국어 공부를 하여서 상당한 정도의 수준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더 높은 수준의 외국어 학습을 위해서건, 생계를 위해서건, 연구역량의 토대를 쌓기 위해서건 한번쯤은 시도를 해보았을 것이다. 생계를 위한 전업 번역가가 아니라면 연구하는 학자들이라도 연구에 병행하여 번역을 꾸준히 또는 틈틈이 실행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번역실태(?)가 오랫동안 우리 번역문화를 지배하면서 번역에 관한 경시의 풍조가 최근까지 학계와 문학계를 지배하였다. 특히 학술서적 번역의 경우에는 학문연구의 길에 이제 막 들어선 석, 박사 과정 대학원생이 연구역량을 익히는 차원에서 하는 학습의 일환, 또는 아직 전임 자리를 얻지 못한 강사가 생계를 위한 아르바이트 차원에서나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리하여 번역을 그 자체 학문의 연구업적이나 또 하나의 창작으로 여기지 않고 상대적으로 저평가하여 왔다. 대학이나 연구재단에서 교수 및 학자의 업적평가를 할 때에도 수개월에서 수년 걸려 펴낸 번역서나 한두 달 만에 쓴 논문 한 편이나 같은 값을 받는다.²²⁾

또 한편으로 우리 사회에서 번역을 경시한 풍조가 생기게 된 데에는 번역을 통역과 비슷한 역할로 생각하고 통역은 중인인 역관이 전담하는 일이라는 오랫동안 내려온 인습적 고정관념에서 비롯한 측면도 있다.²³⁾

21) 물론 翻譯의 기본 지향은 저자의 뜻을 독자에게 가능한 한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전달하려는 것이다.

22) 그래도 지금은 여러 분야에서 학자들이 많이 배출되었고 또 이들 학자들이 생계를 위해서건 학자적 양심에 의해서건 저마다 자기 분야에서 중요한 텍스트를 원서에서 곧바로 번역해냄으로써 학문세계의 지면도 넓히고 학문의 질도 많이 높여 놓았다. 80년대에 처음 학문의 세계에 들어섰을 때 희랍어로 된 원전을 영어나 불어로 번역한 것을 다시 일본어로 번역한 것을 우리말로 번역한 플라톤전집을 보았던 처지로서는 격세지감을 금할 수 없다.

중고등학교 시절, 중등교육에서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견주어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自嘲的인 불평을 늘어놓던 국어와 문학, 역사와 윤리 분야의 연륜이 깊은 노선생들이 입버릇처럼 자탄하며 하는 말이 있었다. ‘영어는 중인인 역관이나 배우는 것이다.’ 깊은 학문을 하려면 문학이나 역사, 철학과 같은 전통 인문학을 해야 한다 하는. 영어를 잘 하면 그저 통역이나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안목이 좁은 편견이었다. 사실 개화기로부터 해방과 한국전쟁, 경제성장의 시기에 영어실력은 엄청난 자질이였다. 영어를 잘하면 취직도 잘 하고 출세도 잘 할 수 있다고 누구나 믿어 의심치 않았다.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었다. 전체 국민의 학력 수준이 낮은 저개발국가나 개발도상의 국가는 영어실력이 개인의 발전과 국가발전에 중요한 동력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외국어 능력을 단순히 통역의 분야로만 여기는 생각은 자기위안의 질시가 아니라면 아주 단순한 생각이다.

그런데 당시 중인이란 말의 의미가 우리 중등학생들에게는 어떤 울림으로 다가왔을까! 故 芝薰 趙東卓(1920-1968) 선생에 관한 일화이다.²³⁾ 선생이 고려대에 재직할 때 교수사회에서는 온갖 부조리한 일이 일어났는데 애국 지식인, 우국지사였던 선생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는 인사의 만행을 견디다 못해 욕이라도 해야 할 상황이면 그 대상을 일컬어서 ‘아무개는 필시 중인의 자식일세!’라고 했다고 한다.

嶺南에서는 양반 중의 양반이었던 경북 英陽 주실마을 漢陽趙氏 문중

23) 조선시대 儒敎經典과 佛經, 주요 역사서, 杜甫의 詩의 諺解는 오늘날의 번역과 같은 것이라고 하겠다. 諺解는 국가적 사업으로서 당대 최고가는 학자들이 학술역량을 傾注하여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하여 諺解는 학문의 기초 토대를 쌓는 일로 여겨졌다. 그런데 口傳의 通譯은 中人인 譯官의 업무로 여겼다는 점은 한편으로 아이러니하기까지 하다.

24) 수 년 전에 고려대 출신 한문학자에게서 들은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전해들은 터라 정확한 사실의 문제라기보다 선생의 인격에 관한 한 면모로서 설화적 요소를 갖는 내용이라 하겠다.

의 일원으로서 선생이 입에 담은 중인이라는 호칭은 蔑稱 중에서도 蔑稱이다. 같은 용어라도 누가 어떤 맥락에서 쓰느냐에 따라 뉘앙스는 천차만별이다. 三不借라고, 순수한 혈통으로 가계가 전승되었으며, 가문의 학문적 조예가 到底하고 雄深하여서 적어도 지역사회에서는 가문의 文氣가 찬란하며, 경제적 기반이 넉넉하여서 문중의 그 누구도 궁핍하여 남의 신세를 지지 않아도 된다고 자부하는 三韓甲族에 嶺南班家の 상징과도 같은 가문의 당당한 학자, 지식인, 우국지사인 그의 입에서 나온 '중인의 자식'이라는 말은 천박한 인간에 대한 가장 심한 모멸감과 인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온갖 비열한 처사에 대한 최대한의 증오가 담겨 있는 말이다.

중인이란 三韓甲族의 양반뿐만 아니라 지방의 土班, 鄉班 들에게서도 蔑視와 嫉視의 兩價의 감정을 드러내는 호칭이다. 우리 역사에서 중인계층이 서양의 시민계급이나 부르주아와 동등한 시대적 과제를 수행한 것은 아니지만 전문직종의 기술을 지닌 사회생산의 주요한 계층으로서 사회변화의 동력에서 한 측면을 담당했으며, 중인의 활동과 그들의 문화가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일조한 것은 사실이다. 중인의 역사적 의의에 관해서는 전문적인 연구의 분야에 속하지만 조선시대 중인의 역할은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적이었고 특히 역관은 조선시대 외교의 중심축인 중국과 왜(일본) 및 동북아시아 여러 나라와 국제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세계정세와 國際時勢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였고 발 빠르게 대처하며 외교와 병행하여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朝貢貿易 형태의 국제무역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기에 대대로 역관을 지낸 가계에서는 막대한 부를 축적하여서 국가 정치의 향방을 좌우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제정세의 변화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²⁵⁾

역관의 역할이 어떠했던 조선의 주류 지식인 사회에서는 역관을 중인이라고 하여 貶稱하였다. 학문의 고유한 사명이라고 여기는 시대의 가치를 지켜나가고 인륜의 보편가치를 이루어내기 위한 선구자가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위해 달려가는 역관의 발 빠른 행동과 그에 따른 막대한 이득에 대한 반감과 질시와 모멸감이 중인이라는 호칭에 복합적으로 들어 있는 것이다. 『論語』의 구절을 빌어 말하자면 上智와 下愚는 자기 처지와 역할을 옮기지 않는 셈이다.²⁶⁾ 늘 중간자들이 옮겨가면서 사회를 변화시켜 나아가는 법이다. 이런 ‘역관은 중인’이라는 고정관념이 얼치기 形而上學에 사로잡혀 있던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非現實的, 退行的 意識의 毒素을 슬그머니 뿌려놓아서 은연중에 영어나 다른 외국어에 느끼는 장벽을 넘지 못하는 자기의 실력을 위안하고 외국어학습의 중압을 회피하는 呪術이 되었던 것이다. 나도 그런 遁辭에 솔깃하여서 일급의 학문은 당연히 철학이나 신학이며 역사나 문학이야 말로 고상한 학문이고 영어에 힘쓰는 일은 역관이 되기에나 딱 알맞으니 정녕 영어를 배우더라도 마땅히 영문학을 하여서 윌리엄 셰익스피어(?-1616)의 비극이나 T. S. 엘리엇(1888-1965)의 시를 논할 일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때는 언어가 학문의 기초라는 사실은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다. 본격적으로 외국어학습을 하고 외국어 텍스트를 공부하여서 번역하는 과정에서야 비로소 학문연구와 번역이 결코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며 번역도 당당한 연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번역물은 원작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 번역은 원작의 존재와 함께

25) 조선시대 壬辰倭亂 때 譯官 洪純彦(1530-1598)이 對明 외교에 참여하여서 明의 參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실은 野史에서 아주 인상적으로 형상화하여 있다. 조선 제19대 왕 肅宗(1674-1720 재위)의 繼妃 禧嬪張氏가 대대로 역관을 지낸 집안 출신이라는 사실도 널리 알려져 있다. 李肯翊(1736-1806)의 『燃藜室記述』 宣祖朝, 肅宗朝 故事와 별집의 譯官條에 관련 내용이 있다.

26) 『論語』 「陽貨」. 子曰, 唯上智與下愚不移.

출발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저자는 원본이고 번역자는 복사본인 셈인가!²⁷⁾ 그런데 번역은 과연 원작의 복제품, 복사본 또는 亞流(亞流)이기만 한 것일까? 번역은 원작의 존재를 전제로 한, 원작에서 나온, 그러나 父系의 혈통을 잇지 못하는 庶子이다. 그렇지만 이 서자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서’²⁸⁾ 또 하나의 家系를 이룬다. 원작은 원본 텍스트이지만 번역은 移植된 곳에서 그 자체가 또 하나의 텍스트가 된다. 마르틴 루터(1483-1546)의 독일어 번역 성서가 근대 독일어를 형성하였고, 영국의 제임스(King James I, 1603-1625 재위) 왕이 欽定한 성서가 근대영어의 형식을 정형화한 것처럼 기독교 성서의 한국어 번역은 근대 국어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산스크리트와 빠알리어 불경은 중국인에게 익숙한 老莊 철학의 용어와 사상을 빌린 格義라는 방법으로 漢譯이 되어서 중국불교를 형성하였고 송대에 이르러 신유학의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아울러 불교 경전과 유교 경전, 중국의 역사서와 시가 한문 텍스트의 한국어 언해는 우리 국어의 발달과 국문학의 발달 과정에서도 막대한 역할을 하였다. 『박통사언해』, 『노걸대언해』는 고려시대에 나온 중국어 학습교재를 조선시대에 우리말로 발음을 달고 뜻을 풀이한 번역서로서 한국어 발달과정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중국어 발달과정을 연구하는 데도 중요한 텍스트이다. 『용비어천가』는 원래 한국어 시가이지만 같은 내용을 한문으로 번역한 韓中對譯 텍스트인데 고전한

27) Edward Young(1683-1765)이라는 영국의 시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우리는 모두 원본으로 태어난다. 그런데 왜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은 복사본으로서 죽는 것일까?”(최민숙·이은화·김연수·이경희, 『독일문학사』, 지식올만드는지식, 2023, p. 170. 재인용) 물론 이 발언은 예술창작의 독창적 직관을 높이 산 말이겠지만 번역에 적용한다면 저자는 원본이고 역자는 복사본인 셈이다. 번역은 특히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도 ‘복사본’으로서 폄하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28) 『성경전서』 「창세기」 12: 1.

문과 한국어가 얼마나 언어적으로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다. 『사서언해』나 『두시언해』는 한문 텍스트를 우리말로 옮겨서 대역을 해놓아 한국의 학문사상과 문학의 발전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이들 텍스트는 이미 우리의 고전이 되었다. 다른 언어로 된 원작은 번역의 과정을 거쳐서 한 문화에 이식되어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워서 花園을 다채롭게 꾸민다. 좋은 번역은 한 문화의 독창적인 창작품과 함께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새로운 문화를 일구어낸다.

한국 근대문학과 근대 아동문학의 발전도 일정 부분은 번역의 소산이다. 물론 번역이라 하여 100% 외국 것을 들여와서 逐字的으로 옮겨놓은 것은 아니다. 중국에서 불교의 발전에 格義의 과정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듯이 우리 문학(아동문학을 포함하여)의 발전에도 翻案의 과정이 개입하였다. 翻案은 너무나 동떨어진 두 문화가 섞이는 과도기의 과정이다. 『사랑의 선물』과 같이 서양의 民譚이나 전래동화를 우리 문화에 녹여낸 翻案童話는 차치하고 『너 참 불쌍타』, 『불쌍한 동무』, 『암굴왕』 류의 翻案을 거쳐서 『레 미제라블』, 『플랜더스의 개』, 『몽테 크리스토 백작』으로 翻譯되면서 서양의 문학은 對自(anti-these)로서 우리에게 다가와 현대 한국문학으로 止揚(aufheben)을 이루어냈다. 외국의 원작은 우리말로 번역됨으로써 우리 문화에 새로운 피를 수혈하고 신선한 물을 공급한다.

나는 번역을 할 때 두 가지 전략을 취한다. 번역의 세계에서 늘 말하듯이 意譯이나 直譯이나 하는 선택의 문제라기보다, 의역이든 직역이든 목표는 똑같이 텍스트를 가장 정확하게 독자에게 전달하려는 것일 터이니,²⁹⁾ 아무튼 텍스트의 성격과 독자의 층을 감안하여 선택을 한다. 나

29) 번역에서 意譯, 直譯 논쟁은 번역이라는 문화적 행위의 시초부터 생겨난 케케묵은, 그러면서도 여전히 논란이 되는 문제이다. 요즘은 심지어 脈絡翻譯이라는 戰略으로

는 주로 학술서적을 번역하며 혹 교양서라 하더라도 주로 한문텍스트를 가공한 서적을 編述하는 편이다. 그리하여 학술서적을 번역할 때는 번역서가 또 하나의 텍스트가 될 터이니 문장이 우리말 어법에 조금 생경하거나 읽기에 낱낱하게 느껴져도 가능한 한 저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추적하려 한다. 그리하여 우리말로 옮겼을 때 문장이 길거나 擬古套의 어휘라 하더라도 가능한 한 살리려고 한다. 왜냐하면 원작의 텍스트는 원래 낯선 세계이며 번역을 통해 접근하는 한 원작의 세계가 풍기는 그 生硬한 분위기(뉘앙스)를 접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단계라도 더 건너면 그만큼 해석의 여지가 늘어난다. 해석의 여지가 늘어나면 또한 그만큼 오해의 여지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현대 독자와 소통하려는 목적에 따라 과거의 일상에서 쓰이던 용어를 현대적 용어로 기계적으로 바꾸어놓으면 맥락과 뉘앙스가 왜곡될 여지가 많다. 조선시대 지식인들이 서로 주고받은 편지를 생경한 용어가 많다고 해서 그대로 현대의 용어로 옮긴다면 원본의 세계에서 그 편지가 소통하던 의미와 버성기지 않겠는가! 심지어 ‘십분十分’, ‘십전十全’과 같은 용어를 100%라고 옮겨놓은 번역물

意譯, 直譯의 陣營對立에서 중립을 지키면서 원작의 의도를 최대한 전달하겠다는 旗幟를 내걸고 있지만 이 戰略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역시 直譯의 원내용을 최대한 다치지 않는 상태에서 意譯을 하겠다는 妥協策으로 생각된다. 차라리 어느 한 측면에 서는 것이 정직한 태도이며, 독자나 텍스트의 성격에 따라 상대적으로 한쪽에 좀 더 비중을 두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한다. 실제로 번역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번역자가 意譯을 하건 直譯을 하건 100% 한 가지 노선으로 일관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독일의 개신교 신학자이며 철학자인 Schleiermacher(1768-1834)의 다음 주장은 음미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는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유창한 번역(흔히 사람들이 잘된 번역이라고 하는)보다 원작자의 出發語가 주는 ‘낯선 느낌(das Gefühl des Fremden)’을 到着語의 독자들이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번역해야 하며, 번역자는 유창한 모국어 능력을 자제해가면서 독자를 원작자에게 인도해야 좋은 번역이라고 한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번역이 어쨌든 낯선 문화를 遭遇하는 최전선이기 때문에 他者の ‘낯섦’을 그대로 철저히 지각하고 받아들여야 卽自와 對自의 辨證法的 綜合止揚을 이룰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안삼환, 『한국 교양인을 위한 새 독일문학사』, 세창출판사, 2018, p. 318. 참조.

도 보았는데³⁰⁾, 조선시대 선비가 서로 대화를 하거나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당신의 말에 100% 동의한다.’ 하고 말한다고 해서 현대의 독자가 원작의 세계에 녹아들 수 있겠는가! 텍스트는 어디까지나 텍스트이며, 번역은 번역이다. 번역이 아무리 원작의 세계에 접근한다 해도 무한접근만 가능하지 일치할 수는 없다.³¹⁾ 그러나 독자층이 주로 청소년이나 교양을 넓히려는 보통의 시민이라면 한문 텍스트를 가능한 한 현대 우리말의 세계로 끌어들이려고 한다. 이런 경우에는 심지어 翻案에 가까운 패러디도 얼마든지 구사하여 중등교육을 받은 보통사람이라면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읽기 편한 문장, 깔끔하고 쉬운 글로 옮기려고 한다.

30) 일본의 번역문화에서는 고전 번역에서도 현대적 용어를 아무렇지 않게 쓰고 있다. 예컨대 退溪 李滉과 高峯 奇大升이 四端七情 논쟁을 하면서 ‘저는 선생님의 견해에 100% 동의합니다.’ 하고 말했다고 하자. 의미전달이라는 측면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번역이라 하겠지만 退溪나 高峯의 문집을 번역하여 원본의 책으로 출간할 때 이들의 편지 원문을 우리말로 옮기면서 100%라는 용어를 버 것이 쓸 수 있겠는가! 일본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나 내 생각에 退溪, 高峯의 문집 원본 번역서는 그 자체 일반 독자를 위한 書冊이 아니라 연구자, 학자를 위한 텍스트이다. 일반 독자를 위해서는 재가공을 하여서 더 쉽게 읽히게 하여야 한다. 문학작품의 번역이라면 다르다. 이 경우에는 독자가 원작의 분위기를 가능한 한 짙진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나는 아무리 완벽한 번역이라 하더라도 원작의 느낌을 그대로 우리 것으로 치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완벽한 의사소통, 완벽한 대응, 완벽한 번역이라는 신화를 벗어버리고 원작과 번역의 영원히 건널 수 없는 강을 인정하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소박하고 정직한 번역의 태도가 아닐까! 그러나 변안의 경우라면 다르다. 변안은 원작을 빼대만 남기고 새로 살을 붙여서 낮익은 것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셰익스피어의 「리어왕」을 일본 전국시대의 한 영주의 이야기로 탈바꿈하여 만들어낸 쿠로자와 아키라(黒澤明) 감독의 영화 「亂」, 「맥베스」를 각색한 「蜘蛛の巣城」은 완벽한 셰익스피어 극이면서 완벽한 일본영화라는 찬사를 받는다.

31) 번역을 조금이라도 해보면 느끼는 바이지만 100% 저자의 의도를 전달할 수는 없다. 양자의 언어세계 차이 때문에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는 것과 직접 옮겨서는 맥락도 닿지 않고 의미나 뉘앙스가 달라서 注解를 달아 설명을 덧붙여야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좋은 번역은 원전의 우리말 번역과 함께 주해를 반드시 곁들여야 한다. 안재원, 『원천으로 가는 길 서양 고전 문헌학 입문』, 논형, 2019, 157-160. 참조.

나는 '아름답고 순수한 우리말'에 이념적으로 사로잡히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어떤 언어라도 '순수한' 언어는 없으며 어떤 언어라도 유기적으로 생성소멸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변화의 흐름 속에 있다. 또한 한 나라의 언어는 반드시 이웃 나라나 교류가 있는 나라의 언어문화와 소통을 하며 그 가운데서 어휘는 물론 심지어 어법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언어도 조선시대 한문 고전 텍스트를 諺解하는 가운데 어법에서 한문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근현대에 이르러서는 일본어나 영어의 어법과 용어에 또한 많은 물이 들었다. 그러니 일본어 말투를 잘라내고 딱딱한 한자말을 바꾸고 순수한 우리말을 발굴하고 다듬어서 지키고 널리 퍼는 일은 그 자체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이데올로기로 고집할 일은 아니다. 만일 어떤 순수한 우리말 어휘가 아름답고 좋은 것이었는데 지금은 쓰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 좋은 어휘가 왜 지금은 쓰이지 않게 되었겠는가! 언어와 문화와 언중은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아무리 '순수하고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말이라 하더라도 취사선택의 저울대를 벗어날 수 없다. 나도 번역을 할 때 때로는 檢閱機制가 작동하여서 순우리말주의자가 제시하고 지적한 대로 일본어나 중국어 또는 영어에서 유래한 번역어투, 혼합어의 사용을 기피하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이전에 쓰이다가 지금은 잘 안 쓰이는 용어까지도 원문의 의미에 더 가깝다고 생각되면 살려서 쓰려고 한다.

번역을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하는 문제에 정답은 없다. 어떤 사람은, 특히 소설이나 수필 같은 문학작품을 주로 번역하는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인데, 미리 텍스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죽 읽고 나서 맥락을 이해한 다음 번역에 착수한다. 나는 번역하기로 한 텍스트를 대하면 미리 읽어보지 않고 우선 곧바로 번역에 들어간다. 원어와 번역어의 대응이 매끄럽지 않건, 우리말로 옮긴 내용이 어색하건, 전혀 이해하기 어려

운 용어나 맥락이 있건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번역을 해 나간다. 그런 다음 다시 처음부터 꼼꼼히 원문과 번역문을 대조해가면서 다시 번역을 한다. 이때 비로소 본격적으로 번역을 하는 셈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번역문을 읽어나가면서 어색하거나 틀렸다는 느낌이 드는 문장을 발견하면 다시 또 고친다. 이렇게 하여 탈고할 때까지 세 차례 이상 번역을 한다. 어떤 전략을 세우고 번역을 하든지 간에 정답은 없다. 자기에게 가장 익숙하고 자신 있는 방법을 따르면 된다. 어차피 번역은 至難한 일이며 기울인 노력에 견주어 빛이 나는 일도 아니다.

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평생 학문의 길을 가리라고 다짐했다. 또래 아이들보다 언어감각이 조금 빨랐고 나름대로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어서 문중의 기대와 선생님들의 촉망을 얼마간 받았다. 그리하여 나는 少陽의 기운이 뻗치는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에도 또래집단에 어울려 악동의 장난도 즐기지 않았고 疾風怒濤(Strum und Drang)의 이유 없는 반항을 일삼지도 않았고 ‘밥보다 팝을 좋아한다.’고 너스레를 떠는 친구들을 따라 팝송을 듣고 기타를 들고 설치지도 않았다. 입시가 엄중한 고등 3학년 때도 단테(1265-1321)의 『신곡』과 괴테(1749-1832)의 『파우스트』를 읽었다. 나름 목전의 입시보다 학문과 교양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시는 어떻게 보든 대학은 가겠지 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과 지적 오만이 작용한 탓일까!

대학에 들어가서도 영어와 제2외국어로 익혔던 독일어는 여러 전공 강의에 늘 따라다녔지만, 그리고 2학년 때부터 동양철학에 관심을 두고 한문 텍스트를 읽게 되면서도 그냥 상황에 따라 그러저러 텍스트를 더듬대며 읽는 정도였고, 선배들이 동양철학을 공부하려면 일본어를 공부해야 한다고 조언을 하여서 일본어를 배우기는 했지만 몰두해서 공부하지는 않았다. 철학을 공부하려면 언어학습에 시간을 들이기보다 철학 저술

을 읽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도 안 되는 신조에 매달려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 당시 장안의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洛陽의 紙價를 올려놓은 『동양철학 어떻게 할 것인가』와 일련의 김용옥 교수의 저술을 읽고서 학문의 실력은 실은 언어(국어를 포함한)의 실력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병역을 마치고 박사과정에 들어간 뒤로 전공 연구와 병행하여서 본격적으로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학습에 몰두하였다. 이들 외국어는 모두 내가 읽고 싶었던 텍스트를 읽고 번역하고 연구하는데 토대가 되었다.

외국어 학습의 성과를 바탕으로 맨 처음 번역한 책은 『중국철학우화』 시리즈이다. 원래는 중국 대륙에서 나온 책이다. 당시만 해도 중국과 직접 교류가 어려운 때였는데, 지도교수가 대만에 연구교수로 1년간 가 계시다가 돌아올 때 가져온, 대만에서 새로 찍은 네 권짜리 한 질이었다. 중국 고전의 우화적 성분이 강한 이야기를 모아서 짤막한 설명을 덧붙인 책이다. 지도교수는 이 책을 번역하여 청소년 도서로 보급하면 좋겠다고 하셔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선배와 함께 번역을 하여서 네 권을 차례로 출간하였다. 각 권의 제호는 각각 『돌부리에 채이고 가시에 찔리고』, 『소금수레 끄는 천리마』, 『깃발인가 바람인가 마음인가』, 『진흙인형의 탄식』이다. 漢詩의 문화에서는 詩讖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주 어릴 때나 청소년기에 쓴 시가 그 사람의 운명을 예고한다는 俗信이다. 한국과 중국 역대 시참의 사례를 모아보면 제법 그럴듯하여서 신기하기까지 하다. 아무튼 지금 와서 돌아보면 나와 선배가 처음 학문의 길로 들어서서 번역하여 낸 책이 하필이면 시참과도 같이 내 삶을 예언한 것 같기도 하여서苦笑를 머금게 한다. 이어서 중국어 텍스트를 번역한 『상수역학』은 兩漢의 역학을 다룬 책으로서 원래 高懷民이라는 대만 학자가 쓴 역학사 시리즈의 둘째 권인데 지도교수와 대학원 세미나 과정에서 공동으로 번

역하여 낸 첫째 권 『선진역학사』에 이어서 나온 책이다. 이 책은 양한의 역학을 다룬 텍스트로서 당시에는 관련 전문서적이 없었기에 역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을 주었다고 자부하는 바이다.

내가 어릴 때 이탈리아의 소년문학 작품인 에드문도 데 아미치스(1846-1908)의 『쿠오레』가 불문학자 안응렬(1911-2005) 선생의 번역으로 『사랑의 학교』라는 이름을 달고 나와서 청소년의 필독서처럼 읽혔고 심지어 초등학교 4학년 때 교과서에도 이야기 한 꼭지가 수록되기도 하였다. 이 책을 번역 소개한 안응렬 선생은 초기 1세대 불문학자이며 불문학과 가톨릭 관련 프랑스어 서적을 많이 번역하였다. 내 유소년의 관념 속에 프랑스나 유럽은 선진문화의 나라이며 기독교(가톨릭) 문화의 나라였기에 대학에 다닐 때까지도 프랑스나 서부유럽에서 동양학 연구의 수준이 깊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김용옥 교수가 사회학적 연구방법론을 원용하여 『詩經』의 國風을 해석한 마르셀 그라네(1884-1940)의 『중국의 고대 축제와 가요』라는 책이 현대 『시경』 연구의 신기원을 이루었다고 소개를 하였다. 四書三經의 하나로만 알고 있고 동양의 선비와 학자들이 늘 가까이 읽는 그렇지만 까마득한 옛날의 시가로만 알고 있던 『시경』을 서양 사람이 연구했다고 하는 사실도 놀라운 일이거니와 그의 연구가 『시경』 연구에 새로운 전기가 되었다는 언급에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그리하여 관심을 갖고 서양의 동양학 수준을 조금씩 들여다보니 이미 서양에서도 17세기 이래 동양에 깊은 관심을 지니고서 동양의 고전을 번역하고 연구를 하였으며 동양의 사상이 근대 서양의 학문과 사상 발전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심지어 19세기, 20세기의 프랑스를 필두로 한 유럽의 동양학 수준은 동양학자들을 능가할 정도가 아닌가! 이에 자극을 받아, 마침 당시에는 『시경』에도 관심이 있어서 박사학위의 연구 주제로 삼을까 생각도 한

적이 있었기에, 어쩌면 오로지 그라네의 이 저술을 번역하려고 불어공부를 하였다.

불어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가던 무렵 마침 선배가 출판사의 의뢰로 앙리 마스페로(1882-1945)라는 프랑스 학자의 『도교와 중국종교』라는 책을 번역하기로 하였다. 원래는 영어 번역서를 텍스트로 하여 선배가 지인과 함께 번역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도중에 선배의 지인이 손을 떼어서 내가 대신하여 번역에 참여하였다. 나는 불어를 공부하기는 하였지만 아직 번역할 수준은 되지 않았기에 먼저 일어 번역서를 참조하여 번역하고 불어로 대조하여 바로잡아서 책으로 출간하였다. 그 뒤 불어를 처음 공부하도록 자극한 『중국의 고대 축제와 가요』의 번역에 착수하였다. 이 책 역시 일본어판을 중심으로 보았으나 불어원전을 충실하게 읽는 과정에서 일본어 번역의 오류를 몇 군데 발견하여 우리말 번역에서는 이를 바로잡았다. 이 책이 처음 프랑스에서 나온 때는 1919년이고 일본에서 번역된 때는 1938년인데 우리말 번역은 2005년이 되어서야 나왔다. 일본과 우리의 외국(서양)의 학문성과를 수용한 역사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

나는 이제 철학을 연구하여 나름의 이론을 세운 철학자가 아니라 철학, 인문학에 관한 서적을 번역하는 중인인 셈이다. 그럼에도 동양철학, 그 가운데에서도 조선유학을 전공한 학자로서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않았다고 자부하는 책은 『성학집요』이다. 『성학집요』는 栗谷 李珥(1537-1584)의 主著로서 조선 유학의 학문성과를 가장 알뜰하게 집약한 책이다. 이 책이 나오으로써 조선의 유학이 중국의 유학을 어떻게 소화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 책은 나중에 중국에까지 소개되어서 조선의 학문수준을 팔목상대하게 하였다. 이 책의 번역서는 울곡의 철학을 공부하거나 조선시대 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물론 정치에 관여하는 사람, 교

양을 쌓으려는 일반시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관심을 끌었다.

그리고 『책문-시대의 물음에 답하라』, 『경연-왕의 공부』와 『고전이 된 삶』은 고전 텍스트를 저본으로 가공하여서 일반 시민의 교양도서로 다듬어낸 책이다. 『책문』은 조선 선비들이 과거시험 최종 단계에서 제출한 답안 양식인 책문 가운데 현대사회에도 여전히 시의성을 갖는 주제를 다룬 글을 여러 문집에서 발췌하여 텍스트로 삼고 그 책문을 둘러싼 학문적, 정치적, 사회적 맥락과 제출자의 생활세계를 들여다봄으로써 오늘날 우리사회의 문제를 우회적으로 성찰하게끔 기획한 책이다. 『경연』은 조선 유교사회를 이끌어 온 제왕의 유교적 교육시스템을 소개하는 책이다. 조선의 왕들은 그저 제왕적 권력을 누린 절대군주, 전제군주로만 알고 있던 우리 사회의 상투적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조선의 왕들이 한 시대의 주역으로서 어떻게 역사의 책임을 떠맡고 인민의 삶을 책임지려고 노력했는가, 그러한 제왕의 덕목을 갈고 닦기 위해 어떻게 수양을 하고 학습을 했는가, 그리고 우리는 민주시민 사회의 주역으로서 어떤 역사의식과 사회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성찰하게 한다. 『고전이 된 삶』은 일본 학자의 책인데 원래 시민교양을 목적으로 기획한 시리즈 가운데 중국의 역대 문장가 열 사람을 선별하여서 삶과 문학세계를 간략하게 소개한 책이다. 처음에는 원서 그대로 번역하여서 모 출판사에서 냈다가 해당 문장가의 실제 문학작품을 함께 감상하자는 취지에서 일어 원서를 재번역하고 본문에서 언급된 문학작품을 찾아서 번역하여 수록하였다. 그리하여 문장가의 삶과 문학세계를 입체적으로 접할 수 있게 하였다.

『주자평전』과 『왕양명평전』은 각각 동아시아 유학의 역사에서 공자 이래 가장 중요한 두 사상가의 일생을 추적한 전기를 번역한 책이다. 우리에게 주자로 알려진 주희(1130-1200)는 조선시대가 주자학의 시대

라 하리만큼 공자, 맹자와 함께 거론되는 학문세계에서 절대권위의 현자이지만 우리는 실제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 이 책의 원저자는 위대한 학자의 학문과 사상은 그의 생활세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전제 하에 삶의 片鱗까지도 낱낱이 추적하여서 주희의 삶을 재구성하였다. 이 번역서가 나올 때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학자가 주자의 생애를 추적한 전기는 없었으며 일본인 학자가 쓴 얇은 전기 한 종이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왕수인(1472-1529)은 주희와 함께 동아시아 신유학의 양대 산맥을 이루며 어떤 의미에서는 신유학의 흐름이 도덕 주체성의 내면을 향한 지향이라고 볼 때 그 정점을 이룬 학자, 사상가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철학계에서는 조선시대 주자학의 관성이 아직도 얼마간 남아 있어서 양명학 연구의 토양이 두텁지는 않다. 또한 중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왕수인에 관한 관심이 지대한 데 반해 우리 사회에서 왕수인 개인과 양명학에 관한 관심 또한 그리 깊지 않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소장학자들의 연구가 쌓이면서 차츰 양명학이 주자학에 필적할 만한 학문세계를 구축해가고는 있지만 아직은 더 역량을 다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 왕수인에 관해서도 더 자세히 알아야 한다. 중국과 일본에는 왕수인의 전기가 여러 종이 있고 지금도 꾸준히 다양한 형태로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에 관한 전기다운 전기가 아직도 없는 형편이다. 아무튼 앞으로 이 두 책을 바탕으로 주희와 왕수인의 삶과 학문과 사상을 우리나라 문화사의 시각에서 재평가하여 우리 시각으로 보는 주희와 왕수인으로 빛어내는 우리의 당당한 주자와 양명의 평전이 나오기를 바라는 바이다.

4. 『주자평전』과 『왕양명평전』 번역 전말과 소회

저자 東景南(1945-) 교수는 중국 江蘇省 丹陽 사람이다. 1968년에 南京大學 역사학과를 졸업하였고, 1978년에 復旦大學 중문과에 들어가서 대학원에서 중국 고대문학을 전공하였다. 1981년에 문학석사 학위를 받았고, 곧 蘇州大學에서 교육을 담당하였다. 1992년에 교수가 되어서 고대문학 연구 주임, 中華文化研究所 소장으로 재직하였다. 1995년에 浙江大學으로 옮겨서 浙江大學 古籍研究所, 中外文化交流센터, 宋學研究센터의 교수 및 박사지도교수를 역임하였다. 문학, 역사, 철학을 두루 연구하였으며 1968년부터 1978년까지는 문학 창작에도 종사하여서 문학작품을 발표하였다. 1978년 이후로는 문학과 철학, 미학의 연구에 종사하였다. 대학원 과정 연구생으로 있을 때 중국을 대표하는 철학저널에 논문을 발표하여서 주목을 끌었다. 1982년 이후 宋明理學, 經學, 易學, 불교 및 도교 등에 관한 연구 논문 100여 편을 발표하였으며, 만년에는 주희의 연구에 천착하여서 『朱子大傳(주자평전)』, 『朱熹佚文輯考』, 『朱熹年譜長編』의 주자학 삼부작을 저술하여서 주자학 연구의 가장 밑받침이 되는 초석을 놓았으며 또한 주자학 연구의 최고봉에 올랐다. 주자학 연구로 정립한 방법론을 더 발전시키고 또한 주자학 연구 성과를 토대로 신유학의 정신을 고도로 집약한 양명학 연구에 매진하여서 『陽明佚文輯考』, 『陽明年譜長編』, 『陽明大傳』의 양명학 삼부작의 저술에 몰두하여 삼위일체의 양명학 연구의 금자탑을 쌓았다.

『朱子大傳』은 중국도서상, 국가도서제명提名상, 교육부 인문사회과학 2등상, 세계대극과학 금상을, 『朱熹年譜長編』은 浙江省 정부 철학사회과학 1등상, 上海市 우수도서 1등상을, 『朱熹佚詩佚文全考』는 전국

古籍整理 우수도서 1등상, 國家圖書提名獎을 획득하였다. 東景南 교수는 서예에도 대가로서 자기의 독특한 서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통악기인 二胡의 연주에도 탁월한 기량을 발휘하고 있다. 탁월한 업적을 쌓은 사람에게는 거의 예외 없이 반은 신화적인 이야기가 따라 붙는다. 東景南 교수에게도 남의 이목을 놀라게 하는 신화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대학을 다닐 때 四庫全書를 다 독파한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내가 『주자평전』을 번역한 계기는 다음과 같다. 2000년대 초반, 책한 권으로 허명을 얻어서 출판계에 이름이 조금 알려졌다. 그 무렵 내가 주도하던 공부모임 회원 한 사람의 동생이 출판사 편집자인데 『성학집요』 번역자를 구하고 있었다. 그 회원의 소개로 출판 편집자를 만나서 『성학집요』 번역 계약을 맺고서 작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편집자가 이어서 東景南 교수의 『朱子大傳』을 번역하여서 출판하고 싶다고 하였다. 이 책은 이미 동양학계에서는 해적판으로 거의 다 갖고 있는 책이었지만 워낙 두껍고 문장이 난만하고 어려워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나 전공자라도 드문드문 필요한 부분만 읽었을 뿐이었고, 학자로서 이 책이 가진 학술적 중요성과 가치를 인정하여 번역을 하고 싶어도 아무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편집자의 무식한(?) 용기에 고무되어서 선배와 들어서 번역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2005년부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사료연구원 자격으로 학술진흥재단 공모과제 사업인 『備邊司謄錄』 번역에 몰두하느라 번역에 손도 못 대고 있었다. 저자에게 너무 송구하여서 2006년에 초빙하여서 모교에서 강연을 주선해드리고 안동을 중심으로 한 유교문화권 순방을 시켜드렸다. 그러나 결국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착수를 못하였고, 기획을 했던 출판사에서도 마침 출간을 포기하는 바람에 2009년도엔가 다시 杭州로 가서 東 교수를 만나서 저간의 사정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신다면 번역을 마무리 짓겠노라고 제의를 하였다. 반신반의 하면서도 수록만리 외국에서 찾아온 정성이 가늠해서인지(?) 출판사가 나서면 다시 시작해보자고 하였다. 그 뒤 국사편찬위원회 일이 마무리 되어갈 무렵 2010년에 지금의 출판사와 정식계약을 맺고 번역에 착수 하여서 5년 만에 완성되어서 마침내 발간을 하였다.

초벌번역 기간만 꼬박 3년 남짓 걸렸고, 재번역, 교정, 운문 등에 또 1년여를 쏟았으며, 제작기간만도 1년가량 되었다. 그리하여 2015년 9월에 책이 나왔다. 그 사이 속 교수와 서신왕래는 물론 직접 찾아가서 수정을 받은 것도 두 차례이다. 서신으로는 말끔히 풀리지 않았던 문제를 많이 해결하였다.³²⁾

당초 『주자평전』 번역에 다시 도전하려고 중국 현지의 안내를 맡아주었던 후배 同學의 소개로 중국 杭州에 가서 束 교수를 만나 뵈었을 때 속 교수는 이미 양명학 연구에 천착을 하고 있다고 밝히셨다. 同學이 주자학을 연구하여서 前人未踏의 성취를 하셨으면서 어쩌면 학문적으로 대립되기도 하는 양명학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 까닭은 무엇인가 하고 여쭙었다. 束 교수는 학문 이력의 초기부터 양명학에 관한 관심을 지니고 있었다고 하셨다.³³⁾

32) 束 교수와 학문으로 교류하면서 느낀 바를 간략히 사족으로 덧붙인다. 우리나라는 학문의 토대가 빈약하다. 학문을 하는 사람이 없거나 학자의 수준이 낮다는 뜻이 아니다. 바로 사회가 학문을 더 이상 존중하지 않으며, 학자들 또한 더 이상 학자로서 자긍심과 자존심을 지니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모든 것이 교환가치를 지닌 물질로서만 자기 존재이유를 인정받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불가피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선비정신이니, 지식인의 양심이니, 하는 말들은 이제는 퇴행적이고 복고적인 향수에 불과하리라. 속 교수가 주자학, 양명학 분야에서 신기원을 이루고, 학자의 양심과 지조를 온전히 지켜갈 수 있다는 점이, 그리고 학자로 하여금 자기 학문의 세계를 넓혀가고 깊이를 더해가게 할 수 있는 사회풍토가 부럽다. 이에 더욱 명암의 대비를 이루며 중첩되는 우리나라 학문과 학자의 현실이 안타깝다.

33) 한국어 번역을 마치고 제책 과정에 있어 未刊인 『왕양명평전(陽明大傳)』의 저자 머리말에 소상히 밝혀두었는데 그의 일생 학문적 관심은 궁극적으로는 王守仁의 인문주의 정신을 규명하는 데 있었다고 한다.

『주자평전』을 출간한 뒤 두어 차례 중국에 가서 東 교수를 만나 뵈고 평전 번역의 답례로 과분한 향응을 대접받기도 하고 杭州를 중심으로 한 강남 문화를 답사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東 교수의 후속 작업을 참관하였다. 틈틈이 東 교수는 양명학 연구의 성과를 편지로나 또 출간한 저술로 알려주셨다. 그러다 마침내 『陽明大傳』을 완성하였다고, 언제 杭州를 다녀가라고 청하셨다. 서둘러 杭州에 가서 東 교수를 찾아보니 아직 출간하기 전 원고를 제본한 두툼한 복사본을 내주셨다. 東 교수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한국어로 번역하여 출간하기를 원한다고 하셨다. 그리하여 몇 학자가 팀을 이루어서 번역을 하면 어떠한가 하고 물어보셨다. 그런데 내 번역의 경험상 두 사람이 동일한 텍스트를 나누어서 번역하는 경우에는 그런대로 소통이 이루어져서 번역의 품질에 큰 문제가 없지만 세 사람 이상으로 늘어나면 번역의 품질은 차치하고 용어의 통일, 문체의 통일, 出典과 注釋의 취사 문제 등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대부분 대작의 경우 처음에는 몇 사람이 팀을 이루어서 번역을 시도한다. 그러나 경험이 쌓인 번역자라면 혼자 작업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다. 순수 한문고전 텍스트의 경우에는 흔히 다수의 학자가 팀을 이루어서 번역을 하기는 한다. 그러나 내막을 들여다보면 참여자의 수준이 제각기 다른 터라 고른 번역의 품질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도 순수한 한문텍스트의 경우에는 한문원문을 우리말로 옮기면 되지만 현대 중국 학자가 쓴 텍스트의 경우에는 한문원문의 번역에 더하여서 중국학자가 해석한 중국어 텍스트를 아울러 번역을 해야 하는데 이는 한문원문 텍스트만 번역하는 것보다 일이 더 늘어난다. 고전한문은 물론 현대 중국어에 익숙해야 하고 한문과 우리말, 중국어와 우리말의 관계를 탐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나는 東 교수께 열일 짓혀두고 오로지 이 일에 몰두하여서

하루라도 빨리 번역을 하여 오래 기다리지 않게 하겠노라고 호언장담 하였다. 귀국을 하여 조금 마음을 추스른 다음 2018년 동짓날부터 본격적으로 번역을 시작하여서 3년 반 만인 2022년 상반기에 일단 번역을 완성하여 탈고하고 출판사에 넘겼다. 전언에 따르면 2022년은 왕양명 탄신 550주년이라 중국에서는 양명학과 왕양명에 관한 대대적인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하였다. 東 교수께서는 한국어 번역서가 출간되면 국제양명학대회에 소개하고 싶다고 하셨다. 그러나 이제 갓 번역을 마치고 편집과 제책의 기간이, 『주자평전』에 견주어, 한 1년 이상 걸릴 터라 확답을 드리지 못하였다. 지금 생각하면 假本 형태라도 보내드렸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국제적 성격의 학술대회에 기본본을 제출한다면 구차스러울 듯도 하고 또 공명심을 벗어나지 못한 듯한 자책도 들어서 단념하였다. 한국에서도 당년에 陽明學會에서 연례행사의 양명학 국제학술대회와 평가 성격의 陽明學者 대회를 개최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직 책이 완성되어 출간되지 않은 탓인지 『왕양명평전』 번역에 관해 간접적으로 양명학 관계자에게 전언했으나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조선성리학 전공자가 왕양명의 전기를 번역한다고 설친 탓인가!

여기서 東 교수가 저술한 朱熹, 王守仁의 평전이 다른 관련 전기적 저작물과 차별을 보이는 美德을 한 마디 덧붙여두고자 한다.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두 사람의 전기적 생애에 관한 우리나라 학자의 저술이 드물다. 생애를 더듬은 텍스트라 하더라도 사상을 서술하기 위한 일환으로 附記한 것이라 한 세계사적 인물이 살아간 삶의 궤적을 상세히 밝힌 것이 아니다. 문화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학자나 사상가의 학문, 사상을 이해하려면 관념적 사상의 세계를 더듬기 전에 당사자의 생활세계와 그 인물이 구체적으로 살아간 시공간을 속속들이 들여다보아야 한다. 東 교수는 朱熹와 王守仁의 학문 사상을 연구하는 것보다 이들의 생애를 입체

적으로 밝혀서 학문과 사상이 胚胎되고 生成하여 성장해간 과정을 추적하였다. 정보가 절대 제약이 있었던 조선시대는 차치하고 현대에도 학자들은 여전히 이들의 학술사상을 천착하고 변태하게 분석하는 일에 몰두한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탁월한, 막대한 영향을 끼친 학술을 연구하려면 먼저 대상 사상가의 실존적인 삶을 먼저 재구성하고 인간학적 측면에서 이해를 선행해야만 한다.³⁴⁾ 束 교수의 전기 二部作은 이제 동아시아 학문사상의 양대 산맥을 답과하기 위한 指南의 역할을 할 것이다.

저자의 원문은 매우 蔓衍體, 華麗體의 문장으로서 단락마다 구절마다 懸河의 辯을 도도하게 펼쳐서 마침표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긴 문체가 끝도 없이 이어진다. 典故를 자유자재로 갖다 쓰고 주장을 현란하게 펼쳐서 문체에 익숙하지 않으면 맥락을 따라가기도 버겁다. 그러나 독특한 문체가 어느 정도 눈에 익으면 대상 인물에 대한 애착이 구절마다 글자마다 오롯이 드러난다. 그리하여 번역을 할 때에도 가능한 한 저자의 호흡을 따라가면서 저자의 이야기를 한 자리에서 듣는 듯이 문체를 이어나갔다. 글을 쓸 때에는 거의 무조건 短文으로 끊는 것이 미덕인 시대이지만 글은 전적으로 의사소통의 목적에만 예속되지 않는, 글 나름의 개성이 있어야 하고 저자만의 특유한 문체가 있기 마련이다. 이른바 可讀性이라는 굴레에 사로잡혀서 의사전달로 기능을 제한하다 보니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실용성의 글은 물론 저자만의 향취가 풍겨야 할 문학적 글조차도 단편적인 선언의 글처럼 되고 말았다. 두 평전의 번역서는 읽기에 결코 친절한 책이 아니다. 쉽게 읽을 책은 쉽게, 어렵게 읽어야 할

34) 王守仁의 생애에는 귀양 과정에 潛迹했던 사건이 일종의 신화적, 설화적 이야기가 되어서 그의 삶을 신비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런 해석은 문학적 양식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는 있지만 王守仁의 생애와 사상을 재구성하는 데는 오히려 障礙가 됨을 면치 못한다. 지금도 일부 王守仁의 전기는 이런 설화적 이야기를 버젓이 실어서 그의 생애를 신비화하고 있다.

책은 어렵게 읽어야만 한다. 하물며 당대의 현실에서 가장 치열하게 산 두 위인의 생생한, 피가 뛰는 삶을 고스란히 그려놓은 전기임에랴!

5. 驥尾千里

司馬遷의 『史記』는 동아시아의 본격적 역사텍스트의 효시로서뿐만 아니라 紀傳體라는 역사서술 양식에서도 독특하고 입체적인 체제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기전체를 구성하는 한 축인 列傳은 역사를 움직여나간 다양한 인간군상의 면모와 역사에서 담당할 역할을 증언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있다. 그런데 열전이라 하면 흔히 개인의 생애와 활동을 서술한 傳記(biography)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열전은 해당 주인공의 생애를 서사적으로 구성한 기록, 곧 근대적 문학 장르의 전기는 아니다. 열전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전기가 아니라 주인공의 생애와 활동에서 꼭 전해야만 할 가치가 있는 내용을 전하는 일종의 전설인 셈이다. 그런 점에서 열전을 통해 어떤 역사적 인물의 생애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려면 곧 난관에 부딪힌다. 가장 상세하게 기술되었다고 할 수 있는, 본인의 열전에 해당하는 「太史公自序」조차도 생애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한 서술이라기보다 자기 생애 가운데 꼭 후세에 전하여서 남겨놓고 싶은 사건을 위주로 한 증언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열전의 각편은 사실상 소설적으로 구성된 문학작품이라 할 수 있다. 사마천이 열전을 이와 같은 체제와 양식으로 구상한 까닭에는 나름대로 야심찬, 또는 처연한 기획이 담겨 있으니 그의 생애를 상징하는 비극이 그로 하여금 열전이라는 독특한 체제로 역사를 재구성하게 한 근본 원인이라 하겠다.³⁵⁾

열전의 첫 주인공은 伯夷이다. 백이는 사마천이 자기와 동일시를 하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다. 백이라는 인물의 열전에서 사마천은 개인의 행위와 역사적 보응의 너무나 현격한 불일치에 자기 울분을 섞어서 피맺힌 절규를 토로하였다.³⁶⁾ 사마천은 이들 역사에 희생되어서 신원을 얻지 못한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대신 변호하고 갈가리 찢긴 삶의 片鱗을 주워 모아서 그 의의를 제대로 인정하고 정당한 평가를 받게끔 증거를 남겨놓고자 하였다. 사마천이 백이나 공자, 굴원과 같은 사람의 전기를 특별히 인상적으로 구성한 데는 이러한 의도가 있었는데 이들을 위한 변명은 실은 자기를 위한 변명이었던 것이며 자기 이름을 후세에 남겨놓고자 하는 원대하고도 처연한 야망이 있었던 것이다.

백이의 열전에서 사마천은 다음과 같은 인상적인 비평을 곁들인다.

군자는 세상을 마친 뒤 이름이 일컬어지지 못함을 괴로워한다. 가 선생(賈誼)이 말하기를, ‘탐욕스러운 사람은 재물을 추구하고 열사는 명예를 추구하고 과시욕이 있는 자는 권력 때문에 죽는다. 못 서민은 생존에 매달린다. 같은 발광체는 서로 비추고 같은 부류는 서로 구한다. 구름은 용을 따르고 바람은 범을 따른다. 성인이 일어나고 만물이 제 모습을 드러낸다. 백이와 숙제는 비록 현자였지만 부자가 계셨기에 이름이 더욱 빛났다. 안연은 비록 배움을 독실하게 하였지만 천리마의 꼬

35) 司馬遷이 列傳이라는 일종의 문학작품을 저술하게 된 동기는 고통이며 그 목적은 불후의 명성을 획득하려는 것이라 하는 해석이 있다. 매우 타당성 있는 해석이라 하겠다. 朴惠淑 編譯, 『司馬遷의 歷史認識』, 한길사, 1988, pp. 304-305. 참조. 또한 司馬遷이 특별히 공을 들어서 구성한 列傳으로는 伯夷, 孔子, 屈原(343-278.B.C.)과 같이 시대의 버림을 받아 억울한 분노가 쌓인 고귀한 영혼의 소유자이다. 孔子의 경우는 따로 「仲尼世家」로 갈무리되어 있는데, 이 작품은 司馬遷의 『史記』의 특징과 사상을 가장 잘 드러내는 편이라 한다. 司馬遷은 孔子를 자기 삶의 준거로 삼은 듯이 보인다. 司馬遷은 孔子 생애의 의의를 『春秋』의 저술을 통해 포착하였고, 孔子가 현실에서는 실의와 좌절을 겪었지만 사후에는 저술로 영예를 얻고 聖人으로서 승화한 데에서 자기 저술의 목적과 의의와 이상을 觸發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위의 책, pp. 316-323. 참조.

36) 『史記』 「伯夷列傳」. 儻所謂天道, 是邪非邪!

리에 붙어서 행실이 더욱 뚜렷해졌다. 바위굴에 숨은 선비가 쓰이거나
 버려짐에 시운이 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夫子와 같은 성인을 만
 나지 못해) 이름이 사라지고 일컬어지지 않으니 슬프다. 여항의 사람들
 이 행실을 날카롭게 버려서 이름을 세우고자 하나 靑雲의 선비에 붙지
 않으면 어찌 후세에 이름을 떨치겠는가!³⁷⁾

나는 청운의 뜻을 품고 학문의 길로 들어섰다 제대로 학문을 갈고 닦
 지도 못하고 존재감도 없이 살았으나 고명하신 학자의 웅대한 저술을 번
 역하여 마치 천리마의 꼬리에 붙어 천리를 가듯 이름 석 자를 겨우 갖다
 붙이는 처지이다. 그러나 이름을 추구하여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얼마
 나 허망한가! 자기 삶을 성실하게 수행하면 이름은 나중에 저절로 알려
 지는 법이다. 『장미의 이름』 류의 중세 수도원을 배경으로 삼은 소설에
 꼭 나오는 등장인물이나 상황 가운데 하나는 장서관의 필사에 관한 수사
 나 관련 업무이다. 꼭 남겨야 할 텍스트나 소장해야 할 텍스트를 선별하
 여서 정성껏 손질한 양피지에 꼼꼼하고 정확하게 글자를 써넣고 도안을
 그리고 장정과 제본을 하는 일에 관한 묘사를 읽으면 정말 ‘부름받아 나
 선 이 몸……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하는 기독교 찬송
 가의 노래에 전혀 손색이 없는 숭고하고 거룩한 감동을 느낀다. 권세를
 부리고 재물을 탐하고 육신의 향락을 추구하는 은폐된 교회의 타락한 권
 력 다툼에서 벗어나 묵묵히 절대자를 향해 헌신한 수많은 필사 수사의
 공으로 우리는 고전 희랍과 라틴어 텍스트를 이어받아 읽을 수 있고 연
 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수많은 수사의 이름은 거의 잊혔지만 그들의
 손때와 땀방울은 여전히 양피지 위에 영광의 훈장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37) 『史記』「伯夷列傳」. 君子疾沒世而名不稱焉. 賈子曰. 貪夫徇財. 烈士徇名. 夸者死權.
 衆庶馮生. 同明相照. 同類相求. 雲從龍. 風從虎. 聖人作而萬物覩. 伯夷叔齊雖賢. 得夫
 子而名益彰. 顏淵雖篤學. 附驥尾而行益顯. 巖穴之士. 趣舍有時. 若此類名堙滅而不稱.
 悲夫! 閭巷之人. 欲砥行立名者. 非附靑雲之士. 惡能施於後世哉!

〈참고문헌〉

『周易』
『禮記』
『論語』
『孟子』
『史記』
『老子』
『莊子』
『荀子』
『燃藜室記述』
『성경전서』

장영진, 『漢字字源辭典』, 심산, 2018.

김태완, 『주자평전』, 역사비평, 2015.

김태완, 『나의 외국어 학습기』, 메멘토, 2019.

다니엘 에버렛/윤영삼, 『잠들면 안 돼, 거기 뱀이 있어』, 꾸리에, 2013.

모텐 H. 크리스티안센, 닉 체터/이혜경, 『진화하는 언어』, 웨일북, 2023.

朴惠淑 編譯, 『司馬遷의 歷史認識』, 한길사, 1988.

안삼환, 『한국 교양인을 위한 새 독일문학사』, 세창출판사, 2018.

안재원, 『원천으로 가는 길 서양 고전 문헌학 입문』, 논형, 2019

최민숙 · 이온화 · 김연수 · 이경희, 『독일문학사』, 지식올만드는지식, 2023.

Apologies for Hemes God of the Messengers:
A Brief History of My Translations

Kim, Tae-wan *

When a person is born, he becomes a member of the language world. Various fields of study, such as philosophy, evolutionary biology, and cognitive science, have been researching all kinds of things about language, such as the origin of language, the nature of language, and the innateness of human language ability (the so-called language instinct), but debate continues. Leaving aside the study of the nature of language as a matter of linguistics, in reality, all human beings are born and live as members of the established language world. No matter what language was the original language, since we were born and live in a world where language already works, objects with known names accept the relationship between names and referents to communicate with the language, and when we encounter new objects, we say what. By naming, the thing comes into existence in our consciousness.

Languages vary from country to country and region to region. So, from a very long ancient society, there was a need to communicate with other languages. The role of this communication is called translation (interpretation). In principle, translation should deliver the original text with 100% accuracy, but since everyone has their own pre-understanding, distortions inevitably occur during the transmission process. Interpretation intervenes between accurate delivery and arbitrary distortion. And when one culture meets another culture, mutual understanding is enhanced through the

* Special Researcher, Institute of Honam Studi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E-mail: youngok0215@hanmail.net

process of translation, and through this, both cultures develop.

Ancient East Asian societies accepted Buddhism through translation and in modern times accepted Christianity. Likewise, East-West trade was carried out in the West, and Eastern ideas such as Buddhism, Confucianism, and Taoism were spread. Translation plays as important a role as creation in the development of a culture. However, there was a tendency in our modern society to belittle translation. This is because there was a culture that accepted translation as a part of developing research capabilities and aspects stemming from the long-held conventional stereotype that translation was regarded as a role similar to that of interpreting, and that interpretation was the responsibility of a Chinese interpreter. A translation cannot exist without the original. Translation starts with the existence of the original. Translation presupposes the existence of the original work, but once translated, it forms another culture in the transplanted place and furthermore becomes its own text.

Key Words

The world of language, Names and references, Language communication, Translation, Pre-understanding, Interpretation, Translator

논문접수일: 2023. 5. 15, 심사완료일: 2023. 6. 7, 게재확정일: 2023. 6. 30.
--

한국경제학회 회칙

제 1 장 總則

제1조 (名稱) 본회는 韓國經濟學會라 한다.

제2조 (目的) 본회는 韓國 및 東亞細亞 經濟의 종합적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事業) 본회에서 수행할 事業은 다음과 같다.

학술 연구 발표회 및 토론회의 開催

學會誌 發刊

經濟 研究의 국제 교류

기타 필요한 事業

제 2 장 會員 및 任員

제4조 (會員)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정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회하며 연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며,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준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회한다.

명예회원은 경제학 연구에 공헌이 많은 사람으로서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추대된다.

회원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 및 총회의 결의에 의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會長) 본회는 會長 1인을 둔다.

會長은 본회의 제반 업무를 管掌하고 對外的으로 본회를 代表한다.

會長은 總會에서 選出하고 그 任期는 2년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제6조 (副會長) 본회는 副會長 약간 명을 둔다.

副會長은 會長을 보좌하며 회장 有故 時 그 직무를 代理한다.

副會長은 會長이 위촉한다.

제7조 (監事) 본회는 監事 2인을 둔다.

監事は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監査하여 總會에 보고한다.

監事は 總會에서 選出하며 任期는 2년으로 한다.

제8조 (理事) 본회는 總務理事, 研究理事, 渉外理事, 出版理事 각 약간 명을 둔다. 理事는 會長이 選任한다.

회장은 필요시 이사 외에 간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9조 (顧問) 본회는 총회의 추대에 의하여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 3 장 機構

제10조 (總會) 總會는 會員으로 구성한다.

定期總會는 年 1회로 하고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臨時總會는 會長 또는 會員 1/10 이상의 發議에 의하여 會

長이 이를 召集한다.

總會는 豫算·決算 및 事業計劃의 認准, 會長·監事의 選出, 會則의 改定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을 審議 議決한다.

總會의 안건은 출석 회원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단, 會則의 改定은 출석 회원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11조 (分科委員會) 본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 연구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 (運營委員會) 運營委員會는 會長, 副會長, 理事로 構成하며, 본회의 실무를 집행한다.

제13조 (編輯委員會) 編輯委員會는 委員長과 약간 명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編輯委員會는 學會誌 및 기타 刊行物의 편집에 관련된 사항을 審議 執行한다.

編輯委員은 會長이 위촉하며 그 任期는 2년으로 한다.

編輯委員長은 편집위원 중에서 會長이 선임한다.

學會誌 간행을 위한 논문 審査 運營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內規를 정하여 공정히 운용한다.

제 4 장 財政

제14조 (財政) 본회의 財政은 會員의 會費, 有志者의 贊助金, 기타 收入金으로 한다. 단, 會費는 年會費와 終身會費로 구분되며 內規로 정한다.

附 則

제1조 본 회칙에 明示되지 않은 事項은 慣例에 따른다.

제2조 본 회칙은 通過日로부터 發效한다.

제3조 이 회칙은 2014년 3월부터 시행한다.

한국경학학회 논문 투고 규정

제1조 (名稱) 이 규정은 韓國經學學會 學會誌 論文 投稿에 관한 規程이라 한다.

제2조 (目的) 이 규정은 韓國經學學會의 學會誌 『經學』에 게재할 論文의 投稿에 관한 절차를 定하고 관련 업무를 規定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著作權) 本 學會의 學會誌인 『經學』에 掲載된 論文 등의 著作權은 本 學會가 소유한다. 著作權에는 디지털로의 複製權 및 電送權을 포함한다. 다만, 掲載된 論文 등의 筆者가 本人의 論文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學會는 특별한 事情이 없는 限 이를 承認한다.

제4조 (논문의 성격) 本 學會의 學會誌인 『經學』은 經學과 關聯이 있는 전공 학술 논문을 비롯하여 관련 글, 소식 등을 收錄한다. 단, 필요에 따라 새로운 자료의 발굴 소개 및 번역, 학술성을 지닌 역주도 할 수 있다.

- 1) 논문은 다른 學術誌(학위 논문 포함)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2) 새로운 자료의 발굴 소개 및 번역, 학술성을 지닌 역주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 3) 論文 掲載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일 연구자의 논문은 연속 게재하지 않는다. 단, 기획 논문의 경우는 이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4) 투고 논문이 표절된 논문으로 판명될 경우, 향후 5년 간 본 학회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도록 한다.

제5조 (발행 시기) 학회지 발간은 연 2회로 하되, 6월 30일과 12월 31

일에 발간한다. (규정 수정, 2023년 6월 30일)

제6조 (투고 시한) 원고 투고 시한은 5월 중순과 11월 중순으로 한다. (규정 수정, 2023년 6월 30일)

제7조 (투고 자격) 원고의 투고 자격은 본회의 회원을 원칙으로 하되, 학문적으로 본회의 취지에 부합하고 연구 성과가 우수한 필자에게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호를 개방한다.

제8조 (원고 분량) 원고의 분량은 제한하지 않으나 200매를 超過할 경우 출판비의 일부를 투고자가 부담한다.

제9조 (논문 提出處) 투고 원고는 학회 이메일(studyclassic@naver.com)로 제출한다.

제10조 (게재료) 研究費를 받아서 수행된 論文을 掲載할 경우, 편 당 30만원의 掲載料를 投稿者가 부담한다.

제11조 (원고 작성 방식) 모든 원고는 본 학회가 정한 원고 작성 방식에 따라 투고되어야 한다.

- 1) 원고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어로 작성한 원고도 수록할 수 있다.
- 2) 한글 97이상으로 작성하되 글씨 크기는 10포인트로 한다. 단,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는 다른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할 수 있다.
- 3) 원고는 제목, 저자 표시, 목차, 국문초록(5개 내외의 주제어 포함),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영문제목, 영문저자표시, 5개 내외의 Key Words 포함)의 순서로 작성한다. 단 본격 논문이 아닌 서평 등의 글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4) 논문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나 연구비의 출처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논문 제목 우측에 별표(*)를 표시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각주로 밝힌다.

- 5) 저자 표시 사항에는 저자의 이름, 소속 기관 및 직위, E-Mail 주소 등을 밝히되 저자 이름 이외의 사항들은 저자 이름 우측에 별표(*)를 표시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각주로 밝힌다. 그 순서 및 표기 방식은 「소속 기관 및 직위 / E-mail」로 한다.
- 6)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1저자를 맨 앞에 쓰고 저자 이름 바로 뒤에 제1저자임을 괄호로 표시한다[예 : ○○○(제1저자)]. 단, 논문의 제출 및 수정을 책임지고 학회 편집위원회와 교신한 연결저자가 제1저자가 아닐 경우, 또는 제1저자와 제2저자 등의 구별을 할 수 없는 공동 저술일 경우에는 연결저자 이름 바로 뒤에 연결저자임을 괄호로 표시한다[제1저자와 연결저자가 다를 경우의 예 : ○○○(제1저자)·○○○(연결저자), 제1저자와 제2저자 등의 구별이 없는 경우의 예 : ○○○·○○○(연결저자)].
- 7) 국문초록(5개 내외의 주제어 포함)은 논문의 내용과 논지를 간추려 작성하되 그 분량이 A4 용지 1매를 넘지 않도록 하며, 주제어는 논문의 주제 및 내용을 대표할 만한 단어 중에서 고르되 그 수는 5개 내외로 한다.
- 8) 영문초록(영문제목, 영문저자표시, 5개 내외의 Key Words 포함)은 국문초록에 준하여 작성하되, 영문저자표시의 경우 저자의 이름, 소속 기관 및 직위, E-Mail 주소 등만을 밝히되 저자 이름 이외의 사항들은 저자 이름 우측에 별표(*)를 표시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각주로 밝힌다. 그 순서 및 표기 방식은 「소속 기관 및 직위 / E-mail」 등으로 한다. 단 그 논문의 성격상 중문초록이 의미있다고 판단할 경우 중문초록을 추가할 수 있다.
- 9) 脚註의 형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각주 번호는 1), 2), 3) 등으로 부여한다.

② 논문 또는 저서를 인용할 경우에는 저자의 이름, 출판 연도(같은 해에 여러 편의 저자가 있을 경우에는 a, b, c 등으로 구분 표기), 관련 페이지(페이지를 표시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생략)만을 다음의 예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예) 홍길동(1982), 20면.

홍길동(2000) 참조.

홍길동(2001a), 217면.

홍길동(2001b), 66~67면 참조.

홍길동 외(2000).

홍길동(2001a), 217면.

홍길동(2001b), 66~67면 참조.

③ 두 개 이상의 다른 논저를 인용할 경우에는 세미콜론(:)을 사용하여 구분하되, 동일 저자의 경우에는 맨 앞에만 저자 이름을 표기한다.

예) 홍길동(1982); 조선인(1988); 한국인(2000) 참조.

홍길동(2000; 2001a; 2001b) 참조.

홍길동(2001b), 66~67면; 조선인(1988), 35~36면;

한국인(2000), 42~47면 참조.

④ 공동 저자가 2인일 경우에는 저자를 모두 제시한다.

예) 홍길동·조선인(2000).

⑤ 공동 저자가 3인 이상일 경우 첫 번째 인용에서는 저자의 이름을 모두 제시하고, 두 번째 인용부터는 「○○○ 외」로 표기한다.

예) 홍길동·조선인·한국인(2000).

홍길동 외(2000).

⑥ 原典 資料를 인용할 경우에는 저자의 이름(저자 이름을 표시할

수 없을 때는 생략), 書名 및 卷數, 작품 제목(작품 제목을 표시할 수 없을 때는 생략), 관련 페이지(페이지를 표시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생략)만을 표기한다.

예) 丁若鏞, 『與猶堂全書 1』 卷17, 「爲李仁榮贈言」, 372면.

『正宗大王實錄』 卷32, 正祖 15년 2월 丁巳. 201~202면.

⑦ 서양 논저를 인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예를 따른다.

예) James, Palais(1975), p.135.

Henderson, Gregory(1957), p.19.

James, Palais(1975), *ibid.*, p.107.

Henderson, Gregory(1957), *op. cit.*, pp.20~21.

10) 參考文獻의 형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참고문헌에는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 정보를 수록 하되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② 각 문헌은 원전 자료, 연구 논저의 순으로 배치하고, 연구 논저는 한국어 문헌, 기타 동양어 문헌, 서양 문헌의 순으로 배치되, 그 배열 순서는 동양 문헌은 가나다순으로 서양 문헌은 알파벳순으로 한다.

③ 원전 자료는 저자 및 편자의 이름(저자 및 편자의 이름을 표시할 수 없을 때는 생략), 서명, 출판사, 발행 연도의 순으로 표기한다.

예) 丁若鏞, 『與猶堂全書』, 경인문화사, 1987.

『朝鮮王朝實錄』 46 『正宗大王實錄』, 국사편찬위원회, 1957.

④ 연구 논저는 저자 및 편자의 이름(여러 명일 경우 모두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함), 출판 연도(같은 해에 여러 편의 논저가 있을 경우에는 a, b, c 등으로 구분 표기), 논문 제목(단행본의

경우 생략), 서명, 출판사의 순으로 표기하되, 논문은 수록된 책 속의 처음과 끝 페이지를 명기하고 단행본은 페이지를 표시하지 않는다.

예) 홍길동(1998), 『서명』, 한국출판사.

홍길동 편(1999), 『편서명』, 한국출판사.

홍길동(2000), 「논문 제목」, 『서명』, 한국출판사, 25~37면.

홍길동(2001a), 「논문 제목」, 『經學』 제1집, 한국경학학회, 215~245면.

홍길동(2001b), 「논문 제목」, 『經學』 제1집, 한국경학학회, 64~85면.

⑤ 출판 예정인 논저는 출판 연도 대신 ‘출판 예정’이라고 기재하고 출판될 예정인 학술지나 책의 이름을 명기한다.

⑥ 미간행 저술은 위의 연구 논저의 예에 준하되 발표된 기관, 장소 및 날짜를 기재한다.

예) 홍길동(2002), 「논문 제목」, 한국한문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2년 4월 5일~6일.

⑦ 서양 논저의 경우에는 다음의 예를 따른다.

예) James, Palais(1975), *Politics and Policy in Korea*, Harvard University Press.

Henderson, Gregory(1957), “Chong Ta-san, A Study on Korea’s Intellectual History”,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XVI, No.3. pp.15~29.

11) 주요 부호(기호)는 다음으로 통일한다.

① 단행본, 문집, 신문, 잡지, 장편소설, 서사시, 전집류, 학회지명 등 - 『 』

- ② 작품명, 논문(석사·박사 학위 논문 포함), 시(시조, 가사, 한시), 중단편 소설, 단행본 속의 소제목, 기타 독립된 짧은 글 제목 - 「 」
 - ③ 강조, 간접 인용 - ‘ ’
 - ④ 직접 인용(단, 인용문을 별도의 인용문단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기호 생략), 대화 - “ ”
- 12) 본문 및 각주에서 한문 원문을 인용할 경우, 기본적인 구두점(쉼표·마침표·물음표·느낌표·따옴표)을 가하고, 필요한 경우 일반적 원칙에 따라 여타의 부호를 추가 표기할 수 있다.
- 13)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논저 저술의 일반적 원칙을 따른다.

한국경제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 (名稱) 이 규정은 韓國經濟學會 編輯委員會 規程이라 한다.

제2조 (目的) 이 규정은 韓國經濟學會 회칙에 따른 編輯委員會의 조직 및 권한, 임무와 활동, 학회지 투고 논문의 심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規定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제3조 (構成) 編輯委員會는 委員長과 약간 명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제4조 (編輯委員의 委屬) 편집위원은 세부 전공 분야 및 연구 업적을 감안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다음 요건을 충족하도록 한다.

- 1) 학문적 연구 업적 및 해당 학문 분야에서의 공익적 활동
- 2) 세부 전공 분야의 포괄성(한중일의 문학, 역사, 철학 등 한국 경제학의 제분야를 망라함)
- 3) 소속 기관의 전국적 분포
- 4) 學者로서의 名望과 人格

제5조 (編輯委員長의 選任) 編輯委員長은 編輯委員 중에서 會長이 선임하되, 편집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6조 (編輯委員會의 권한)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투고 논문의 심사 및 편집, 기타 간행물의 편집과 관련된 활동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제7조 (編輯委員의 任期) 편집위원의 任期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編輯委員會의 任務) 編輯委員會는 學會誌 및 기타 刊行物의 편집에 관련된 사항을 審議 執行한다.

- 1) 編輯委員會는 編輯委員會 規程과 學會誌 論文 投稿에 관한 規

程을 정하고 이를 엄정하게 적용한다.

- 2) 편집위원장은 논문 심사를 엄정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논문 심사에 관한 최종적 책임을 진다.

제9조 (編輯委員會의 召集) 편집위원회는 회장 또는 편집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隨時로 召集한다.

제10조 (編輯委員會의 成立)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단, 편집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闕席한 경우에는 編輯委員 중 최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제11조 (編輯委員會의 議決) 편집위원회의 제반 안건은 출석 위원 過半數의 찬성으로 議決한다. 다만, 贊反 同數인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2조 (審査委員)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할 심사위원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審査委員은 편집위원회에서 선정 위촉한다.
- 2)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을 심사할 수 있는 해당 분야의 전공자여야 한다. 단, 해당 분야의 전공자가 부족할 경우 인접 전공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3) 논문 투고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투고자의 논문 지도교수, 친족 관계 등)는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 4) 심사위원은 논문 한 편당 3인으로 한다.

제13조 (匿名성과 秘密 維持) 審査用 原稿는 반드시 匿名으로 하며, 審査에 관한 諸般 事項은 編輯委員長 책임 하에 對外秘로 하여야 한다.

- 1) 匿名성과 秘密 維持의 조건을 위반함으로써 인해 심사위원에게 重大한 피해를 입힌 회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서

그 징계를 의결하여 시행한다.

- 2)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편집위원을 闕席시킨 후에 심사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4조 (審査 節次)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編輯委員會에서 심사위원을 선정 위촉한다.
- 2)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여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등의 判定 所見을 編輯委員會에 제출한다.
- 3)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를 검토한 후, 투고 논문의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를 결정한다.
- 4) 심사 결과 '게재 가' 또는 '수정 후 게재' 判定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 編輯委員會는 그 判定 所見을 검토하여 修正 要求 事項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5) 심사 결과 '게재 불가' 判定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 編輯委員會는 그 判定 所見을 검토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6) '게재 가' 및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投稿者는 論文審査書를 수령한 후 所定期日 內에 원고를 수정하여 편집위원회에 송부한다.
- 7)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 '게재 가' 또는 '수정 후 게재' 判定을 받은 논문 중에서 修正 要求 事項이 성실하게 이행되었거나 해명된 論文에 한하여 掲載를 최종 결정한다.

제15조 (審査의 基準) 심사의 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심사 결과는 항목별 평가, 게재 여부, 판정 소견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 2) 항목별 평가는 ① 방법론의 진취성 및 문제 인식의 새로움, ② 연구 내용 및 결과의 창의성과 논리성, ③ 기존 성과의 활용

및 연구사적 반성, ④ 용어·개념의 적절성 및 논리적 정합성, ⑤ 자료 검증 등 5가지 기준에 따라 하되, 매 기준마다 5가지의 차등 점수를 주어 평가하도록 한다.

- 3) 게재 여부는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중의 하나로 한다.
- 4) 판정 소견은 항목별 평가와 게재 여부에 대한 근거 및 의견을 총괄적으로 기술하되, 게재 시 수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 (게재 여부 결정의 條件) 게재 여부 결정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1) 각 審査委員의 심사 결과 '게재 가'의 경우 3점, '수정 후 게재'의 경우 2점, '게재 불가'의 경우 0점을 부여한다.
- 2) 각 審査委員의 合計 점수가 8-9점인 경우 최종 결과를 '게재 가'로 판정한다.
- 3) 각 審査委員의 合計 점수가 6-7점인 경우 최종 결과를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다.
- 4) 각 審査委員의 合計 점수가 3점 이하인 경우 최종 결과를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 5)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編輯委員會에서 掲載 與否를 최종 결정한다.
- 6) '게재 가' 또는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이 일정량 이상 이어서 해당 호에 모두 수록하기에 적절치 않은 경우, 부여받은 점수에 근거하여 일부 논문을 다음 호로 이월할 수 있다.

제17조 (異議 申請) 투고자는 審査와 논문 게재 여부에 대하여 異議를 신청할 수 있다.

- 1)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투고자는 200자 원고지 3매 이상의

異議申請書を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2) 異議申請을 한 투고자의 논문에 대해서는 編輯委員會에서 異議申請의 受諾 與否를 결정한다. 수락한 異議申請에 대한 조치 방법은 編輯委員會에서 결정한다.

한국경학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한국경학학회 연구윤리 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경학학회에서 간행하는 학술지 『경학』에 발표되는 논문과 그 연구자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 대상) 『경학』에 투고한 연구자는 모두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제4조 (적용 범위)

- 1) 이 규정은 『경학』 공모 논문 심사에서 연구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해당 논문과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2) 이 규정은 『경학』에 이미 게재된 논문에 대해 연구 부정행위 제보가 있을 경우 해당 논문과 연구자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5조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모든 연구자는 연구의 계획, 각종 자료의 분석, 연구 결과의 도출과 출판, 개별 혹은 단체로 수행하는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정직해야 한다. 이를 전제로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1) 연구의 계획,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
- 2)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3)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 4)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5)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중복 투고하거나 이중 출판하는 행위.

제6조 (용어의 정의) 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조 -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 2) 변조 - 연구 자료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개·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3) 표절
 - ① 타 연구자의 발상, 논리, 고유 용어, 데이터, 분석 체계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 ② 출처를 밝혔더라도 인용 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그대로 옮기는 행위.
 - ③ 출처를 밝혔더라도 어떤 부분이 선행 연구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자신의 주장인지 독자가 명확하게 알 수 없도록 서술하

는 행위.

- ④ 이미 발표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학위 논문 포함)의 내용을 출처나 인용의 표기를 하지 않고 거의 그대로 재수록하거나 여러 편의 글을 합성하여 한 편의 논문으로 구성하는 행위.
 - ⑤ 대학원생 또는 박사후 연구원 등 소장 연구자들에 대한 정당한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
- 4)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5) 제보자 -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교 또는 연구 지원기관에 알린 자.
 - 6) 피조사자 - 제보 또는 연구 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 단, 조사 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7) 예비 조사 -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
 - 8) 본조사 -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
 - 9) 판정 -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

제7조 (편집위원 윤리 규정)

- 1) 편집위원은 모든 투고 논문을 편집위원회 규정 및 논문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해야 한다.
- 2) 편집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품성을 아울러 갖춘 심사위원을 엄정하게 선정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3) 편집위원은 전 심사 과정과 그 결과를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심사위원 윤리 규정)

- 1) 심사위원은 위촉된 논문에 대해 개인의 학문적 신념을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명정대하게 심사해야 한다.
- 2) 심사위원은 심사의 전 과정과 결과를 어떤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 3)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는 어떤 경우에도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 1)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해 비상설 기구로 운영한다.
- 2)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유관 분야 전공자에게 회장이 위임하되, 5인 이상으로 한다.
-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 피제보자와 갈등 관계에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 4)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후 호선으로 선출한다.

5) 연구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가 제보되면 연구 진실성 검증 절차에 따라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 ① 예비 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 결과 통보
- ②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 보호
- ③ 연구 진실성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 ④ 기타 편집위원회의 부의 사항

제10조 (연구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1) 본 학술지 투고 논문 가운데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예시할 경우에는 익명으로 제보하더라도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 2)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1조 (연구 부정행위 검증 절차)

- 1)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3단계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안에 따라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절차는 추가로 포함시킬 수 있다.
- 2) 예비 조사는 연구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공식 조사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고, 본조사는 연구 부정행위 혐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판정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알리

는 절차를 말한다.

제12조 (예비 조사의 절차)

- 1)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단, 30일 이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본조사 여부를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 2) 예비 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① 제보 내용이 제4조 각 항 가운데 어느 하나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② 제보 내용의 구체성과 객관성, 본조사의 필요성 여부
 - ③ 제보일이 부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 3) 예비 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조사 대상자와 소속이 다른 전문가 등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4) 예비 조사 결과는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 5) 예비 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기초 정보
 - ② 연구 부정행위 혐의 조사의 대상이 된 논문 및 관련 조항
 - ③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④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3조 (본조사의 절차)

- 1) 본조사는 예비 조사 결과에 대한 편집위원회의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에 따라 본조사 수행을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재구성할 수 있다.

- 2)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3) 연구윤리위원회가 90일 이내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 4)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연구윤리위원 명단을 고지해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5) 연구윤리위원회는 치밀한 조사 활동을 거쳐서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징계의 종류를 결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4조 (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 1)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2)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제15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 엄수)

- 1) 연구윤리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와 제보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보자의 성명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2)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개인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와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 3) 연구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조사 내용과 피조사자의 신원이 가능한 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뿐 아니라,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 4)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가 승인을 요청하고, 이에 대해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 (피조사자의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충분하고도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7조 (조사 결과 보고)

- 1) 연구윤리위원회는 의견 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 내용 등을 토대로 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 2)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제보 내용
 - ② 조사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 과제
 - ③ 해당 연구 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④ 관련 증거 및 증인
- ⑤ 조사 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 ⑥ 연구윤리위원 명단과 기초 정보

제18조 (판정)

- 1)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 보고서의 조사 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 2)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조사 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모든 자료를 편집위원회로 이관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19조 (결과에 대한 조치)

- 1) 연구 부정행위가 판명된 연구자에 대해서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에 징계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2)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피해를 가한 자에게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에 징계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3)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에 대해서는 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연구윤리위원회가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 1) 예비 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학회 총무진이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2) 최종 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1조 (재심의)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징계) 연구 부정행위가 판명된 연구자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의 경중과 성질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제재와 징계를 가할 수 있다.

- 1) 연구자의 학회 제명 및 논문 투고 금지
- 2) 학회지에 수록된 해당 논문 취소 및 인터넷 서비스에 해당 논문 삭제
- 3) 학회 홈페이지 및 연구 부정행위가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학회지에 연구 부정행위 사실 공지
- 4) 연구 부정행위자의 소속 기관에 부정행위 사실 통보

제23조 (연구윤리 규정 시행지침)

- 1)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회원은 논문 투고 신청서의 해당란에 투고 논문이 본 연구윤리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음을 서약해야 한다.
-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經學 論文 審査書

대상 논문						
심사위원	심사자 : 소 속 :					
평가	평가 등급	A(5)	B(4)	C(3)	D(2)	E(1)
	평가 지표					
	방법론의 진취성 및 문제 인식의 새로움					
	연구 내용 및 결과의 창의성과 논리성					
	기존 성과의 활용 및 연구사적 반성					
	용어·개념의 적절성 및 논리적 정합성					
	자료 검증					
평가 기준	계재: 20~25, 수정 후 계재: 17~19, 계재 불가: 0~16 (계재불가 :15)					
판정 소견 또는 계재 시 수정 요구 사항						
위와 같이 심사 판정합니다. 202 심사위원 : ㉞						

한국경학학회 임원

고 문 : 김언중(고려대 명예교수),
이기동(성균관대 명예교수),
최석기(경상대), 이강재(서울대)

회 장 : 이영호(성균관대)

부 회 장 : 김승룡(부산대, 겸 편집위원장),
김용재(성신여대, 겸 학술위원장),
엄연석(한림대), 박순철(전북대),
정우락(경북대), 서대원(충북대),

총무이사 : 함영대(경상국립대), 이시연(성균관대)

연구이사 : 양원석(고려대), 김수경(공주대)

섭외이사 : 원용준(충북대), 전성건(안동대), 이승률(중국 산둥대)

출판이사 : 신원철(안양대), 윤선영(고려대)

감 사 : 노경희(조선대), 당윤희(건국대)

회원가입안내

— 회원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개인회원, 기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회원)

- 1) 대학에서 경학과 관련된 강의를 담당하거나 번역에 관한 이론을 연구하는 교원, 연구원, 대학원생.
- 2) 경학 연구 단체에서 활동하거나 연구에 종사하는 자.
- 3) 경학 연구에 관심이 있는 자.

2. (기관회원) 경학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기관이나 조직 또는 공공도서관.

3. (특별회원) 그 밖에 경학에 관심이 높고 본 학회의 취지에 공감하는 개인이나 단체.

— 입회 안내

본 학회 홈페이지의 입회 안내문을 따라 회원 가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비납부 안내

개인회원: 연 5만 원, 종신회비 50만 원

기관회원: 연 5만 원

혜택: 학회지 증정, 학술대회 초청

계좌 번호: 우리은행 1002-064-102173 이영호

* 학회 입회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studyclassic@naver.com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원고 모집 안내

한국경학학회에서 원고를 모집합니다.

본 학회 학회지 『경학』에 게재할 원고의 성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의 성격/분량

- 학술 논문—고전의 정리 및 경학과 관련한 연구 성과물(번역서에 대한 학술적 비평도 포함)/ 원고지 130매 이내
- 연구사 정리—기존 경학 연구 논저에 대한 연구사 정리
/ 원고지 100매 이내
- 서평 : 경학 연구서 REVIEW—경학 연구 비평 또는 학술 회의 관전 소개
/ 원고지 50매 이내
- 원로 회고 —경학 연구에 참여한 노학자의 경학과 관련한 자유로운 주제
/ 원고지 제한 없음

2. 원고 제출: 학회 E-mail (studyclassic@naver.com)

3. 원고 마감: 매년 5월 중순, 11월 중순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한국경학학회 편집위원회 ■

편집위원장 김승룡(부산대 한문학)

편집위원 김용재(성신여대 동양철학)	박순철(전북대 중문학)
양원석(고려대 한문학)	당윤희(건국대 중문학)
노경희(조선대 한문학)	전병철(경상대 한문학)
전성건(안동대 동양철학)	서대원(충북대 동양철학)
원용준(충북대 동양철학)	김수경(공주대 한문학)
함영대(경상대 한문학)	노명동(홍콩침희대 경학)
김배의(대만사대 중문학)	강지은(대만대 한문학)
정선모(남경대 한문학)	

편집이사 신원철(안양대 중문학) 윤선영(고려대 한문학)

편집간사 이동학(고려대 한문학)

經 學 5

2023년 6월 30일 인쇄

2023년 6월 30일 발행

발행처 도서출판 한모임

편 집 한국경학학회

회장 이영호

E-mail: studyclassic@naver.com

제 작 도서출판 한모임

ISSN 2713-9638

